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1. 8. 24.(화), 14:00 ~ 18:4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이순, 김종현
나창순, 목수현, 신안준, 이광표, 이연경,
이혜은(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안전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2	국가등록문화재 「진해역」 현상변경	
3	국가등록문화재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현상변경	
4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금도 대동 염전」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검토사항】		
5	사적 「전주 전통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6	「제주 육군제1훈련소 정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7	「은제 이화문 합」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8	「국문정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9	「김지섭 편지 및 봉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보고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진입로 석재보수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진입로 석재를 보수하는 등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서울시립미술관장
-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 (제254호, '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
-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
 - ※ 당해 문화재
 - 신청내용 : 진입로 정비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진입로 석재 교체 : 131.76㎡
 - 진입로 장애인 점자블럭 신설 : 23.8m
 - 진입로 석재 양측 잔디석재 교체 : 좌측 263.42㎡, 우측 337.41㎡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 1F~2F, 15인승 (1400×1600), EV홀 테크 별도
 - 1층 목재경사로 설치 변경
 - (기존) 전면 현관 진입 경사로('21.6.24.현상변경 허가 득, 현재 미착공)
 - (변경) 서측면 현관 진입 경사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 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서측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 설치로 인해 당해문화재 일부 변형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신안준('21.8.4.)

-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계획안은 1층 발코니 바닥 슬래브 및 2층 발코니 난간의 일부 해체와 철거, 승강기 피트층 및 기초부의 설치 등으로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과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승강기 설치는 최근 승인된 현관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내부공간 활용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 전면 광장의 잔디식재 교체, 진입로 화강석 바닥 교체 및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하는 기존 상태를 정비, 개선하는 계획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자문의견(서울시립미술관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안성준('21.8.10.)

- 미술관 외관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적벽돌과 화강석 판석을 경사로 입면(마감면) 재료로 사용하여 정면 마감면과 일체감 있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동측면 부출입구로 연계되는 경사로 설치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측 부출입구 연계시 주출입구 계단 및 미술관 입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측면 에어컨 실외기 등 이동 설치가 필요합니다.
- 경사로 시작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과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 보행로 상에 설치되는 벤치는 등받이와 양측면 손받침이 있는 형태의 벤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벤치 설치 바닥면과 측면 1400공간까지 바닥면의 포장은 보행로 포장면과 동일한 재질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공공건축가 강정은('21.8.10.)

- 석재를 건식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소음 및 접촉에 주의하면 좋겠음
ex)구조체(각파이프)와 합판+석재 사이에 완충재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철재난간의 경우 포스트간격을 치짐이 발생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최대한 하여 개수를 줄이고 반사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진회색 정도가 무난함)
- 석재 재질부분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사용 해야함
- 현재 정면에 설치된 경사로를 재검토할 필요 있을듯함. 현재안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인 통행로가 1,200 미만이어서(1,600의 장애인 경사로와 비교해서) 주출입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

- 우측면에 있는 계단쪽(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부분)이나 후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제안함. 단, 측면 진입의 경우 내부의 전시실이 공용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미술관측 운영과 협의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당해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안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 확인 후 시행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 국가등록문화재 「진해역」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진해역」의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해역」에 대한 외관 보수정비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물 현상변경 허가 신청('21.7.14)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7.16)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가 급회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진해역」(제192호, '05.9.14. 등록)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761-474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지붕재 교체
[아스팔트성글→1안: 천연슬레이트(점판암), 2안: 아연징크]
 - 알루미늄창 → 목재 오르내리창, 방범창 철거
 - 외벽 재도장
 - 플랫폼 측 외부 목재 기둥 보수
 - 전면 외부 간판 교체
 - 복층 기존 출입문 복원(2개소)
 - 광장 경사도 정리 및 포장 변경(아스팔트 → 화강석 판석)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 된 시설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나 원형고증, 보수계획의 적정성 및 광장 화강석 판석 설치에 따른 눈부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신안준('21.8.18./서면검토)

- 현재 계획은 원형 고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 현황의 부분적 보수, 리모델링 중심의 계획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원형적 건축형식과 기법, 그동안 변형 과정을 고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형복원과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27년 건축된 목조건물이므로 현존하는 목조 구조체 및 부재의 상태(안전성, 훼손, 변위, 부후 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보수, 보강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붕 마감, 창호 설치, 외벽 도장 등의 보수기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부에 대한 구체적 보수기법 계획 수립(기존재 해체, 신재 설치 등과 관련된 상세도 작성 등)이 필요함.
- 대합실은 철도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공간이므로 매표창구, 출입문, 내벽마감, 천장마감, 창문, 벽난로 등을 가능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활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지붕, 외벽의 단열 및 방수 성능 관련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신안준, 문화재수리기술위원 김기수('21.7.16./현지조사)

- 진해역 일대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구역은 현재 진행중인 창원 진해 근대역사 문화공간의 구역과 대부분이 중첩되므로, 두 사업의 내용과 성과가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조율이 필요함
- 진해역 역사 및 광장은 창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 문화재이자 중심적 경관이자 상징적 공간이므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측면을 기반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진해역 역사와 광장이 문화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증자료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과 변형과정을 확인하고 원형 보존과 복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명확한 고증과 보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 마련 후 시행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3. 국가등록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의 외관 보수정비 및 증축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에 대한 외관 보수정비 및 증축 등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7.27.) : **부결**
 - 사유 :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제582호, '13.12.20. 등록)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4-9, 17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구분	1차 심의('21.7.27.)	금회 신청
건축물 증축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물탱크실 ※ 위치 조정
단열보강	벽체, 지붕, 바닥, 창호교체	벽체 단열, 창호교체 [지붕 마감재(징크), 창호(외부: 목재오르내림창, 내부: PVC오르내림창)]
구조변경	내부 내력벽 철거, 보 철거	-
내부리모델링	내부 칸막이벽 철거(1,2층 6개소)	내부 칸막이벽 철거(1층 2개소)
구조보강	철골구조물 설치, 마이크로 파일 설치	-

※ 지붕 단열 및 바닥공사 : 공사과정에서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세부계획 마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나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2층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1층 칸막이벽 철거 등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신안준('21.8.18./서면검토)

- 지붕재 교체, 창문 교체 등의 보수기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부에 대한 구체적 보수기법 계획 수립(기존재 해체, 신재 설치 등과 관련된 상세도 작성 등)이 필요함.
- 후면부에 증축되는 물탱크실 규모를 최소화하고 본관 소화설비의 배치, 배관 설치가 내부 공간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추후 활용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본관 지붕, 외벽의 단열 및 방수 성능 관련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부에서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체 창호도 현재 남아있는 원형을 참조하여 목재 창호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나창순('21.8.18./서면검토)

- 1층 5열과 6열의 내부벽체 철거에 따라 필요 시 프레임 보강 등 내진성능 보완이 필요함
- 2층 부분의 내부 벽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보강 대책을 세워야함

○ 문화재위원 신안준·나창순('21.7.16./현지조사)

- 현재의 계획은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수립되었으므로, 고증자료를 통해 건물의 원형을 확인하고 원형 보존과 복원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구조 보수, 보강 계획은 기존 구조체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의 원형을 지나치게 훼손, 변형시키므로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여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물탱크실 및 펌프실 증축 계획은 정면 입면을 변형시키므로, 후면에 증축되는 화장실 부분과 통합하여 증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조적 보강방법 및 보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 계안 마련 후 시행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4.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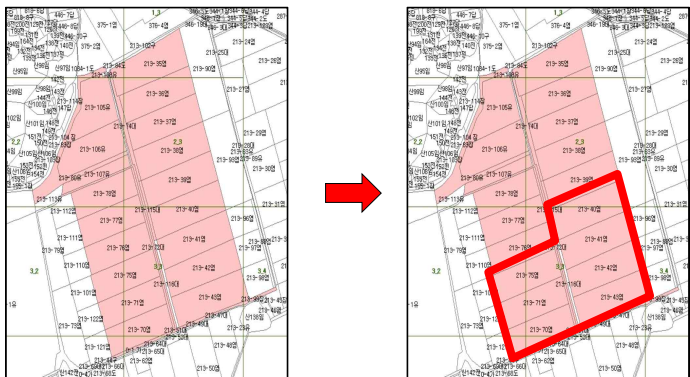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의 문화재 등록구역 조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07.11.22. 등록)에 대한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신청(’21.6.1.)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형준 등 19명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제362호, ’07.11.22. 등록)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번지 등 24필지
 - 소유자 : 김형준 등 19명
 - 면적 : 염전, 수로, 소금창고, 해주 등 453,131㎡(24필지)
 - 염전 시작연도 : 1953년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신청
 - 현재구역 453,131㎡(24필지) → 조정구역 176,162㎡(7필지, 현재 구역의 38.9%)



- (4) 신청사유 : 천일염 생산량 저하 및 가격 하락, 채무 증가, 생산자 고령화 등에 따른 폐염 위기 상황 등 염전 지속의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 등록 구역 축소 조정 요청

(5) 추진경과

- (’07.11.2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18.12월) : 등록 해제 요청 민원 신청(소유자 → 신안군)
- (’19.7.15.) : 문화재 등록 해제 민원 접수 알림(신안군 → 문화재청)
- (’19.11.6.) : 비금도 대동염전 1차 실태조사(문화재청)
- (’20.10.30.) : 비금도 대동염전 보존 협조 요청(문화재청 → 신안군)
- (’21.1.22.) : 비금도 대동염전 구역 축소 조정 요청 집회 신청(소유자)
- (’21.4.23.) : 비금도 대동염전 2차 실태조사(문화재청)
- (’21.6.1.) : 비금도 대동염전 문화재 구역 조정 신청(전라남도 → 문화재청)
- (’21.7.23.) : 문화재 구역 조정 신청에 따른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천일염 생산량 저하 및 가격 하락, 채무 증가, 생산자 고령화 등에 따라 대동염전을 포함한 다수의 염전이 폐염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동염전 소유주 대부분이 문화재 등록 구역 축소 조정을 요청하였음.
-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천일염전 폐염 위기 등의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변화에 유동성 있게 대응하며 염전의 천일염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현지 조사 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윤인석(’21.7.23.)

- 본 유구는 한국의 산업시설 중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비금도 지역의 주민 450세대가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이룩한 천일염전의 현장임.
- 따라서, 동시기에 등록된 천일염전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등록된 등록문화재 구역의 해제 및 변경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 정해진 의사결정과정을 온전히 거쳐 설정한 문화재등록 범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님.
- 다만, 최초 등록 시의 등록사유에서 변경된 것은 그 동안 급변한 생산시설 환경조건의 강화와 생태환경의 악화로 염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 격변하는 근대산업구조 환경 안에서 소유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는 염전업에 대한 구체책이 없이 문화재 보호만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놓여 있다 할 것임.
- 2007년에 등록된 해당 문화재는 이러한 생산체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염전 구역에만 주목하였던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제안범위+천일염전 생산체계에 근거한 문화재 등록범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생산체계 과정에 근거한 범위를 재과약하여 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이연경('21.7.23.)

- 대동염전은 역사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70년 이상 이어져오는 천일염제조업의 산업적 가치, 비금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사적 가치, 인근 유지와 떡매산과 함께 만들어내는 염전으로서의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임.
- 그러나 천일염산업의 쇠락과 태양광 발전의 확대 등으로 현재 대동염전 뿐 아니라 염전 산업 자체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재로 보호 중인 대동 염전의 문화재 구역마저 대폭 축소되면 문화유산으로서의 염전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일염 산업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일염 제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노쇠화와 천일염 사업 자체의 하향화로 인해 현재의 대동염전을 천일염제조업 염전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를 매입하는데도 재정적 한계가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되 유지 및 배수로, 대동염전 천일염 체험장, 떡매산 등을 전체적인 대동염전의 경관으로 보존하기 위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천일염 제조업의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차원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이용준('21.7.23.)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은 근대식 천일염 제염시설로서 오늘날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천일염 염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1948년)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염전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음.
- 하지만,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생산자(염주)들이 천일염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노령화(평균연령 70대 초중반)된 생산자(염주)들이 염전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

- 해당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등록 구역에 포함된 다수(19명중 16명)의 생산자(염주)들이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협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 염전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생산자(염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천일염 생산지로서 비금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 폐전 위기에 처한 대동염전의 기능과 문화재적 가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출된 조정(안)에 염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고 또한, 염전 시설로서의 문화재적 완전성이 담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역 설정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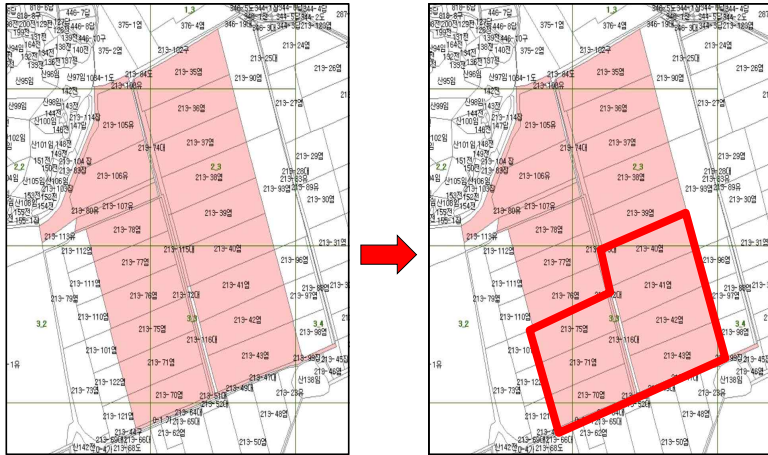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보류
 - 조정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여 염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구역으로 재조정 필요
- 출석 10명 / 보류 10명

<붙임>

문화재 구역조정 신청에 따른 조사 보고서

- 1. 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제362호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 2. 등록일자 : 2007. 11. 22.
- 3.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번지 외(24필지)
- 4. 소유자 : 김형준 등 19명
- 5. 문화재 개요
 - 구조 : 염전(해주, 소금창고, 수로 등 포함)
 - 시작연도 : 1953년
 - 수량 및 면적 : 453,131㎡(24필지)
- 6. 신청내용 및 사유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국가등록문화재 구역 조정 신청
 - 현재구역 453,131㎡(24필지) → 조정구역 176,162㎡(7필지, 현재 구역의 38.9%)



- 신청사유 : 천일염 생산량 저하 및 가격 하락, 채무 증가, 생산자 고령화 등에 따른 폐전 위기 상황 등 염전 지속의 어려움에 따라 문화재 등록 구역 축소 조정 요청

7. 조사자 의견('21.7.23.)

<문화재위원 윤인석>

1) 문화재 등록경과

- 2007년 6월 7일 제3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2007년 9월 6일 제4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참고
- 2007년 6월 7일 제3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 천일염전 문화재 등록예고 검토

가. 제안사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된 천일염전 3개소 및 석조 소금창고 1건에 대한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등록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등 4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등 4건
- (3) 검토내용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등 4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예고 검토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기간 : '06. 4월~5월
- 지역 :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조사자 : 이만열 문화재위원장 등 10명
- 조사대상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등 천일염전 9건, 석조소금창고 1건
- 조사결과 : 붙임1·2 참조

마. 검토의견

- 문화재등록 추진 : 4건(천일염전 3건, 석조소금창고 1건)
 - 5개 시도 천일염전 9건 가운데 소유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부안 곰소염전』, 가치평가에 논란이 있는 『신안 비금도 수림리 1호염전』, 소유자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인천 소래염전』 등 6건을 제외한 3건의 천일염전과 석조소금창고 1건
 - 소유자 반대 : 전북 부안 곰소염전(1건)
 - 소유자와 협의 중 또는 가치평가 논란(5건)
 - 인천 소래염전, 태안 관리염전, 중화염전, 마금리염전, 신안 비금도 수림리1호염전

마. 검토결과

- a. 원안가결(3건)
 - 문화재 등록을 예고함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신안 증도 태평염전, 신안 증도 석조소금창고
- b. 보류(1건)
 - 문화재 등록예고를 보류함
 - 대상물 일부 훼손에 따라 현지 재조사·검토 : 시흥 소래염전

2.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 1. 염전명칭 : (현)대동염전 / (구)대동염전
- 2. 소유자 : (염전)이순희 외 / (수로)농림부

3. 소재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외
 4. 시작년도 : 1953년
 5. 규모, 수량
 ○ 등록검토대상 : 염전, 수로, 창고부지
 총면적 : 416,482㎡

6. 염전연혁
 ○ 1948년경에 비금도의 450세대의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 100여ha가 넘는 광활한 대동염전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폐염된 경기·인천지역의 주안·남동·군자·소래염전을 제외하고는 설립당시 국내 최대규모였음. 대동염전이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 염부가 150명, 보충염부 50명으로 한 작업에서 15일 이내에 소금을 만들었다고 전해짐.
 ○ 또한, 당시에 비금중앙초등학교에 “천일염전기술자양성소”가 설치되어 비금도의 젊은 이들이 염전기술자로 많이 양성되었으며, 이들 염전기술자를 중심으로 “수립 염전개발기술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후 여기에서 활동한 기술자들은 인근도서지역과 완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 등지에 진출하여 천일염전 조성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해방 후의 우리나라 염전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전체 4구(1구-4구)로 나누어져서 나중에 1구는 군소업자가 소유, 2구-4구는 1962년경에 명만수씨가 인수하여 소유하다가 1969년경에 명만수씨가 사망 시 지역 주민들에게 양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

7. 현황 및 특징
 ○ 대동염전은 대규모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주민 및 염부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임. 대규모 염전의 경우 대부분이 외지의 사람이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동염전의 실소유자는 모두 거주하는 주민으로 염전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대동염전이 만들어진 이후 주위에 대성염전(약 100ha), 남일염전(약 100ha), 중앙염전(약 100ha), 나무섬염전(약 100ha)이 이어진 형태로 형성되어 하나의 대규모 염전지대를 형성하게 됨.

8. 조사자의견
<이만열 / 문화재위원, 근대사>
 ○ 지역의 450세대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조성한 염전으로 규모나 ‘인문적 경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염전 중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어 이 중의 일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용수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및 설계>
 ○ 비금도 떡매산을 배경으로 한 대동염전은 규모면이나 경관으로 빼어나다. 1948년 무렵 비금도 450세대의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고 나물죽을 먹으면서 1백여ha가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염전인 대동염전을 조성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떡매산과 어울려진 대규모 대동염전을 연계한 염전체험 교육장내지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어 등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박현수 / 문화재위원, 문화인류>
 ○ 소금은 사람들의 아주 특수한 식품이다. 곡식이건 고기건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내주는 데는 짠 맛이 기본이며 그 맛은 소금에서 나온다. 이것 없는 삶이란 불가능한 만큼 소금은 素金(or blanc)이라고 존중되었고, 이것의 유통망은 인류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 소금길을 만들었고, 소금장사는 자연스럽게 문화 브로커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비금도에 남아있는 염전은 생태적 위기 속에서 아직 현역으로 기능하는 소금 생산의 현장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전통적 식생활의 생산수단의 유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전통생활의 유적은 경작지와 수리시설, 그리고 곡물 가공시설을 제외하면 염전이 거의 유일한 형태일 것이다.
 ○ 염전은 경관의 요소로서도 중요하다. 이 경관은 자연과 문화가 만나서 형성한다. ecology적 영역과 economy적 영역이 교차하는 점에 위치한다. 염전의 보존은 문화유적의 보존이며 경관의 보존이다. 그러나 비금도가 개발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보존된 이

염전들도 가까운 장래에 리조트 지역으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 그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 비금도의 염전 중 근대 한국문화속에서의 전형성을 증시하는 시각에서 판단할 때 대동염전을 보존해야할 것이다.

<최병하 / 문화재전문위원, 근대건축>
 ○ 비금도는 비금중앙초등학교에 “천일염전기술자양성소”를 설치하여 염전기술자 양성, “수립 염전개발기술조합”이 결성, 인근도서지역과 완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 등지에 진출하여 천일염전 조성공사에 참여함으로써 해방 후의 우리나라 염전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특히, 대동염전에 인접해 있는 떡매산에서 바라본 대동염전의 경관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로 구성된 넓고 평평한 염전지대가 서로 잘 조화되고 어우러져 천일염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뿐 아니라, 근대가 남기고 현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문적 경관”으로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천일염제작업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근대유산”으로서도 비금도 대동염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함경식 / 목포대학교 교수, 식품공학 >
 ○ 대동염전은 여기서 양성된 기술자들이 주위의 다른 염전을 개척하는 등 염전사에 많은 영향이 있는 염전으로, 앞서서도 언급 되었듯이 대규모 염전 거의 대부분은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대동염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드문 경우로 지역 주민들의 삶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대동염전의 개발 뒤에 대성염전(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 남일염전, 중앙염전, 나무섬염전 등이 만들어져 거의 530 ha에 이르는 하나의 이어진 대규모 염전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이고, 2005년도 한국 총 염전면적이 4,000 ha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염전지대 하나가 한국 총 염전의 약 1/8 차지하며, 신안군 신의면에도 700-800 ha의 염전이 있으나 염전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특히, 떡매산에서 바라본 우수한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07년 9월 6일 제4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심의사항】

8.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문화재 등록 심의
 가. 제안사항

문화재 등록예고 기간이 만료된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예고('07.6.22~7.21)된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3) 등록예고 내용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외
 ○ 수량·규모 : 총면적 416,482㎡ / 염전, 수로, 창고부지

- 소유자/관리자 : 이순희 외
- 조성년도 : 1948년 조성
- (4) 예고 시 제출의견(신안군)
 - <당초> 염전 면적 : 18필지, 416,482㎡
 - <변경> 염전 면적 : 23필지, 453,131㎡(5필지, 36,649㎡ 추가)
 - <변경사유> 등록예고 범위 설정시 누락 부분 추가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안군 의견대로 염전 면적을 조정하여 문화재 등록
 - 염전 일괄 453,131㎡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로 등록함

붙임 : 1. 문화재 등록구역 조서 1부
2. 조사보고서 1부

2) 등록 후 경과

- 2014년 종합정비계획 마련. 경관정비 보조비 마련 지원 계획.
- 2014년 대동, 태평염전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8년 경관정비사업 추진/태양광 사업 참여 등을 염두에 둔 사업비 만남
- 2018년 11월 등록해제청원서 접수, 문화재청과 1차 협의
- 2019년 7월 문화재 등록 해제청원서 제출
- 2019년 11월 6일 문화재청 1차 실태조사
- 2021년 4월 23일 문화재청, 전라남도 2차 실태조사(염주 면담 등)
- 2021년 6월 1일 문화재 구역 조정 신청(전라남도→문화재청)
- 전라남도 제4회 문화재위원회 원안가결 2021.5.13.~14)
- 2021년 7월 23일 문화재청 3차 실태조사

3) 염주 요구사항 및 토지매입 현황

- 2007년 등록문화재 등록, 2009년 소금의 식품 인정 후, 천일염전 시설의 지속적 환경개선 요구 등으로 염주들의 체무가 급증하는 반면,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천일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염전경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현지의 보고가 있음.
- 등록범위 전체 매입 또는 등록문화재 해제 요청: 전체 범위 매입시 120억원 소요.
- 매입 현황: 4필지 구입완료.
- 매입 예정: 3필지 예정
-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입완료 및 구입예정 필지 포함하여 7필지를 제외한 지역을 등록해제 요청함.

4) 종합의견

- 본 문화재는 2007년 전국의 천일염전 일제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 등록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광복 후 천일염 생산시설로 만들어 진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 후 한국 천일염 생산 시설로 초기에 만들어진 유구이다.
- 인문학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 소유주 모두의 동의를 얻은 신청에 의해 조사하고 등록하였다.
- 등록 예고기간 중에는 누락된 필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받아들여진 바 있다.
- 본 유구는 한국의 산업시설 중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비금도 지역의 주민 45세대가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이룩한 천일염전의 현장이다.
- 최초 등록 시의 등록사유에서 변경된 것은 그 동안 급변한 생산시설 환경조건의 강화와 생태환경의 악화로 염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이다.
- 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문화재 등록범위 유지하는 방안: 동시기에 등록된 천일염전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등록된 등록문화재 구역의 해제 및 변경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 전지역 매입 : 120억원 추정 예산 마련이라는 한계
 - B. 가역성의 원칙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임대기간 종료 후) 제거하는 방안
 -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동결보존 방법이 아닌 융통성 있는 보존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염전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며 설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형회복하는 방안
 -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최근 매도한 염주들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염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양도소득세 부담 등)
 2. 문화재 등록범위 변경 방안
 - A. 전라남도 제안대로 변경
 - 매입예정 필지까지 포함하여 7필지는 등록유지하고 나머지 필지 해제
 - 등록 사유 중에 큰 요소였던 떡매산에서, 해안가에서 조망하는 인문적 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 있음
 - B. 전라남도 제안범위+천일염전 생산체계에 근거한 문화재 등록범위 재설정(변경)
 - 천일염전의 일반적 수급 생산체계는, ‘염전’과 ‘외해’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외제방’,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이곳을 통해 들어 온 바닷물을 농축시키기 위한 ‘증발지’, 여기에서 생성된 함수를 더욱 농축시켜 고체의 소금으로 만들어 채취할 수 있게 하는 ‘결정지’, 그 사이에 만일 우천이나 겨울을 대비하여 덮개(지붕)를 씌운 웅덩이인 ‘함수류’, 소금을 보관하는 ‘염퇴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시설들 사이에는 미세한 고저차를 이용한 수로와 염전 바닥판이 구비되어 있다.
 - 2007년에 등록된 본 문화재는 이러한 생산체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염전구역에만 주목하였던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등록범위를 변경하면서 위의 생산체계 과정에 근거한 범위를 재파악하여 조정하는 방안 마련.
- 2007년에 ‘천일염전’을 비롯하여 ‘고전영화’, ‘옛 담장’, ‘역사인물 주거’ 분야에서 복수의 유구,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배 문화재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362호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본 건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국가에서 정해진 의사결정과정을 온전히 거쳐 설정한 문화재등록 범위를 변경한다는 것을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격변하는 근대산업구조 환경 안에서 소유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염전업에 대한 구체적 이 없이 문화재 보호만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위에 제시한 방안 중에 2)-B)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등록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아울러 전국 해안가의 천일염전 지역은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단지로 탈바꿈할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 등록 후 10여년 만에 등록해제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 따라서 내륙지역의 도시재생 또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념으로 근대산업 시설의 유구들이 소유자에게 경제성이 있으며 문화재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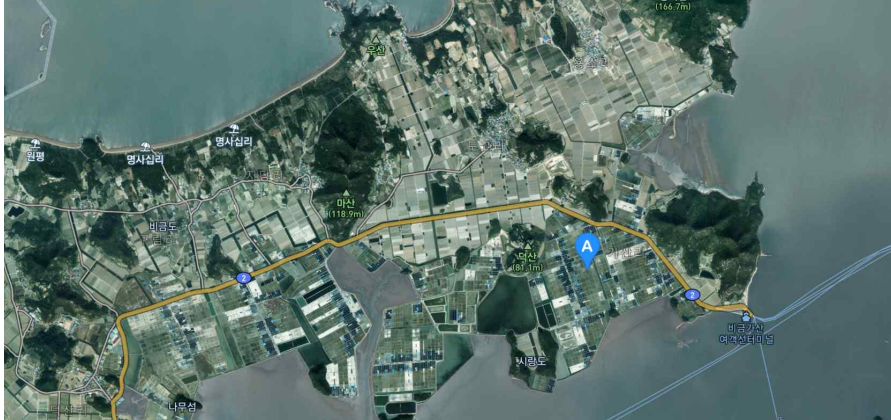


그림1 비금도 항공사진



그림2 대동염전과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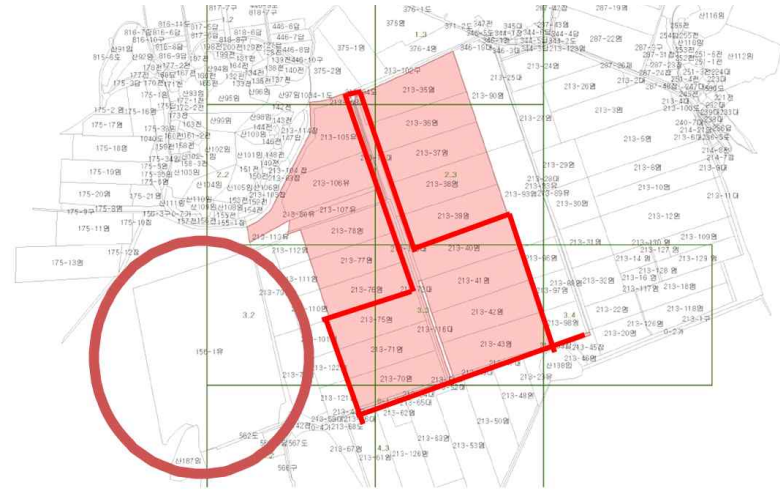


그림3 등록범위 조정 개념도 예시(안)

<문화재위원 이연경>

1) 대동염전의 특징과 문화재적 가치

- 1948년 비금도의 450세대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100여ha가 넘는 광활한 면적으로 조성한 대동염전은 설립 당시 국내 최대의 염전이었음
- 2007년 문화재 등록 당시 대동염전의 실소유주는 대부분 거주 주민으로 천일염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대동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 소금창고 등으로 구성된 염전지대와 배수로 및 주변의 유지 및 떡매산과 함께 하나의 경관으로서 비금도 천일염전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대동염전은 천일염전의 대다수가 폐염이 된 상황에서 천일염 제조업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사적 가치가 크며, 해방 이후 비금도의 주민생활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사적 가치 역시 큼

2) 문화재등록 이후의 상황

- 2008년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경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주와 소금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비닐장판을 친환경장판, 타일장판으로 변경하는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염주들의 경제적 부담 컸음
- 2018년 10월 대동염전의 소유주들은 천일염 사업의 침체와 소금값 하락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문화재 해제를 요청하였음
- 2020년 1월 배수로 정비 사업 발주
- 2021년 5월 신안군수는 비금도 대동염전 조합원 19명 가운데 17명이 가격 하락, 생산량 저하, 늘어나는 대출금 빚 등으로 천일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기에, 염전 경영의지를 가진 조합원 2명의 염전구역 및 2020년 문화재청 사업비로 매입한 염전 2필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문화재 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보전하고자 신청함

- 떡매산 서측으로는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대동염전 천일염 체험관을 조성하여 2021년 개관 예정
- 염전의 태양광발전지화 및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인해 2021년에는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였음.

3)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 내용

- 문화재구역에 속하는 전체 24필지 중 현재 태양광개발회사에서 16필지 (호반건설·한수원·비금주민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 7필지, 그린에너지(SM E&C) : 9필지) 매입, 나머지 필지는 신안군 소유 2필지, 염주 소유 2필지, 기타 도로 등 8필지
- 신안군에서는 신안군 소유 2필지 및 염주 소유 2필지를 포함한 대동염전 조정 구역 대안 4개 중 3안(전체 7필지)을 선택하였으며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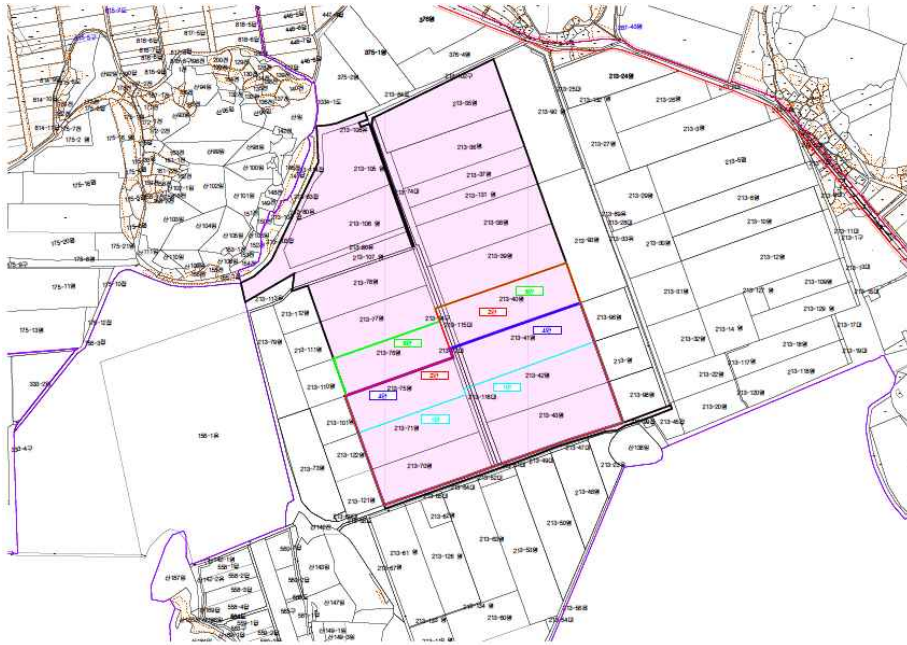


그림 1. 대동염전 구역계 설정 대안

4) 문화재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

- 대동염전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사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70년 이상 이어져오는 천일염제조업의 산업적 가치, 비금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사적 가치, 인근 유지와 떡매산과 함께 만들어내는 염전으로서의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임. 그러나 현재의 구역조정안은 떡매산과 유지 그리고 염전 사이에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전체적인 대동 염전의 경관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천일염산업의 쇠락과 태양광 발전의 확대 등으로 현재 대동염전 뿐 아니라 염전 산업 자체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재로 보호 중인 대동 염전의 문화재 구역마저 대폭 축소되면 문화유산으로서의 염전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일염 산업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일염 제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노쇠화와 천일염 사업 자체의 하향화로 인해 현재의 대동염전을 천일염제조업 염전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구역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약 120억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되 유지 및 배수로, 대동염전 천일염 체험장, 떡매산 등을 전체적인 대동염전의 경관으로 보존하기 위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천일염 제조업의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차원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이용준>

- 동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비급도 대동염전의 등록구역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제출된 조정(안)에 따르면, 등록 면적은 당초 24필지 453,131㎡에서 7필지 176,162㎡로 변경되며 조정 후 유지되는 등록 구역은 전체 면적의 약 38.9%로서 향후 염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보존, 관리될 예정이다.
- 신안 비급도 대동염전은 근대식 천일염 제염시설로서 오늘날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천일염 염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1948년)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염전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음.
- 하지만,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생산자(염주)들이 천일염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노령화(평균연령 70대 초중반)된 생산자(염주)들이 염전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
 - * 저염식 문화 확산 및 황사, 미세플라스틱 등 안전성 문제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재고량이 증가하여 생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 다수의 염전들이 폐전되고 있는 것은 비단 대동염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반적인 천일염 생산 시설이 직면한 문제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폭 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동염전의 경우, 문화재 등록 구역에 포함된 다수(19명중 16명)의 생산자(염주)들이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협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 염전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생산자(염주)들은 상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천일염 생산지로서 비급도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큰 틀 속에서 등록 구역 조정을 통해 전통적인 천일염 생산방식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임.
- 따라서 현 상황에서 폐전 위기에 처한 대동염전의 기능과 문화재적 가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출된 조정(안)에 염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고 또한, 염전 시설로서의 문화재적 완전성이 담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역 설정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염전을 구성하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소금창고, 해주, 구거(수로) 등의 필수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개관 예정인 '체험관' 시설과 연계한 구체적 활용계획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근대 2021-07-05

5. 사적 「전주 전동성당」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적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타당성 조사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20.12.22.) : **부결**
 - 사유 : 제시된 사업내용은 개발사업에 가까우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음
- '21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21.6.22.) : **부결**
 - 사유 : 제시된 안은 과도한 시설 건립 계획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적합하지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전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전주 전동성당」(제288호, '81.9.25. 지정)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 (3) 추진경과
 -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 142,000천원(국비 99,400, 지방비 42,600)
 - ('19.1.5.) 용역 착수보고
 - ('19.9.5., '20.4.7.) 용역 1, 2차 보고
 - ('20.12.22.) '20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 부결
 - ('21.5.20.) 보완자료 제출
 - ('21.6.22.) '21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 부결
 - ('21.8.10.) 보완자료 제출
- (4) 세부내용 : 사적 「전주 전동성당」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 계획범위 : 전동성당 지정구역(625㎡) 및 보호구역 일부(7,184㎡)
 - 기간 : 단기 2023~2027년(5년), 중기 2023~2032년(10년)
 - 추정사업비 : 5,100,5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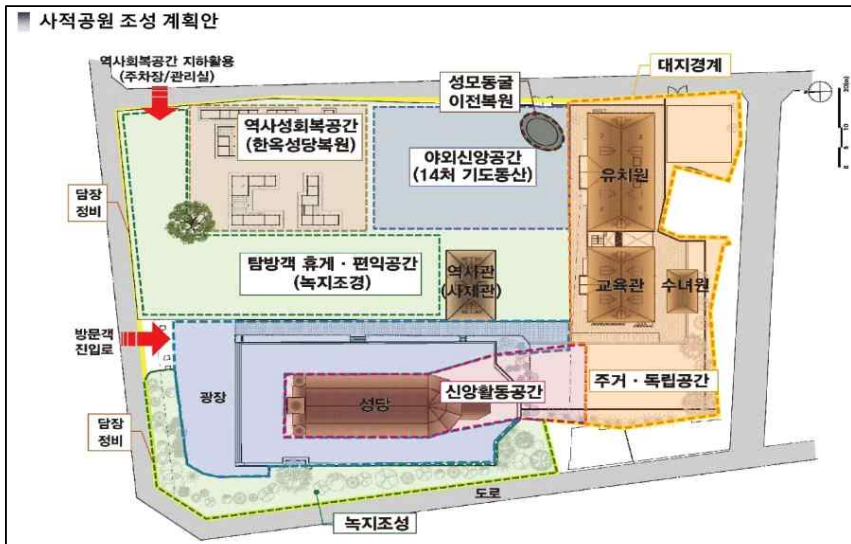
○ 지정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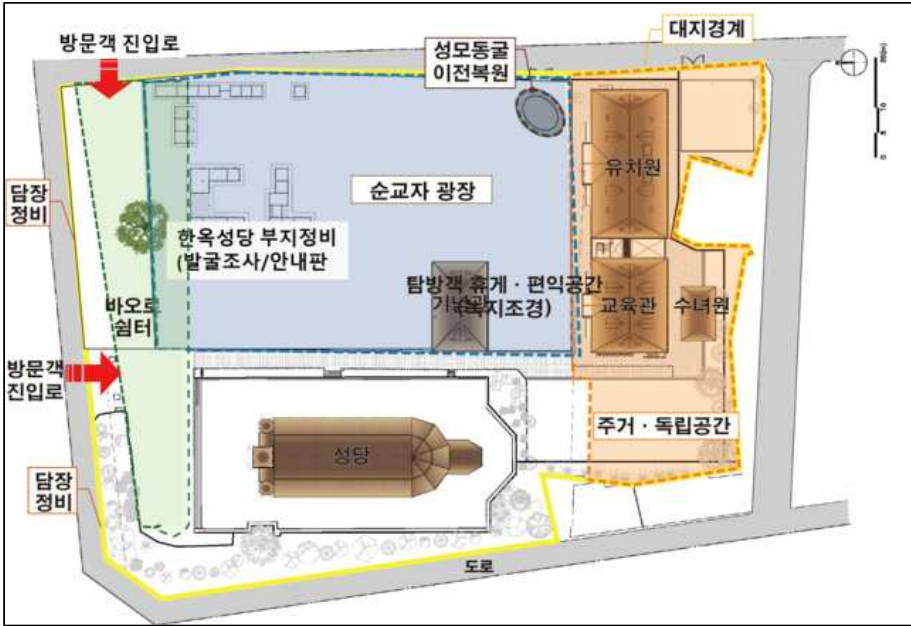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등) ○ 역사성 회복(한옥성당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설계 등 추진 ○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공간 조성 - 녹지/휴게 공간 조성(바오로 쉼터, 순교자 광장, 경관 개선과 담장정비) - 신앙활동 환경개선(야외 기도처 조성, 성모동굴 이전, 신자 쉼터) ○ 활동강화(생생 전통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 전통성당(전동성당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5차('21.6.22.) 제출자료



○ 금회 제출자료



라. 검토의견

- 신청내용은 사적 전주 전동성당 주변 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지난 5차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기존 제출된 내용에서 문제가 되었던 과도한 시설 건립 계획이 취소되고 경관 개선과 담장정비 등 주변정비 위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구분	내용
보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성당 영역 내 옛 한옥성당 복원 사업 계획 취소 ※ 옛 한옥성당 부지 내 지하공간 활용 계획 취소 ○ 기존의 전동성당 영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큰 사업계획 구상 ○ 기존 국가사적의 보존과 역사성 회복을 중심으로 계획 ○ 다양한 방문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공원 계획 ○ 한옥성당 발굴 성과를 복원이 아닌 표현과 전시에 활용
세부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등) ○ 역사성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표현과 전시, 사무실 이전 ○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휴게 공간 조성(바오로 쉼터, 순교자 광장, 경관 개선과 담장정비) - 신앙활동 환경개선(야외 기도처 조성, 성모동굴 이전, 신자 쉼터) ○ 중기기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제관 국가문화재로 지정, 사제관 목구조 보강 정비 후 순교역사 기념관으로 활용 등 ○ 활동강화(생생 전동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성당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0.4.28.)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3.1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육군참모총장 대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모2교차로
(좌) 대정읍 상모리 3722-2번지 도로, (우) 상모리 4165번지 도로
 - 소유자 : 육군본부(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502-2호)
 - 수량 : 기둥 2기
 - 건립시기 : 1952년(추정)
 - 구조 및 규모 : 기둥 2기(가로 2.5m×세로 2.5m×높이 3.7m) * 기둥사이 간격 17m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0.4.28.)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21.3.1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6·25전쟁 당시 제주도에 설립한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 기둥으로 이미 등록된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와 함께 6·25전쟁 관련 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으며, 건축자재로 제주 현무암과 조개껍질 등을 사용한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이광표('21.3.18.)

- 6·25 당시의 대규모 신병 양성기지로,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 기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큰 전쟁 건축임. 일반적인 건물이라 아니라 정문의 기둥이지만 전쟁 중이었던 1950년대 정문 건축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주변에 관련된 전쟁 유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훈련소 정문 기둥을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미 등록된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함께 묶어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추가 조사에 대한 계획, 인근 전쟁문화유산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이연경('21.3.18.)

- 제주 모슬포에 있었던 육군제1훈련소의 정문은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 설치된 육군제1훈련소(강병대)로 진입하는 입구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시설물로, 훈련소가 위치한 북쪽과 부대시설인 교회, 병원 등이 위치한 남쪽의 경계가 되어 훈련소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장소적 의미가 있음.
- 구조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는 크게 높지 않으나 조개껍질 등을 사용한 지역적 특징이 있으며, 인근에 있었던 육군98병원 병동의 정문 역시 같은 형태였으나 2008년 8월 멸실됨에 따라 이 지역에 남은 당시의 문으로서의 유일한 가치를 가짐.
- 인근에 한국전쟁 유적이 다소 부포하고 있어 집합적 가치 역시 있으므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국가등록문화재 제409호)에 부변을 붙여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이용준('21.3.18.)

- 동 시설은 최초의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전쟁 관련 유산으로서의 상징성과 희소성 등이 인정됨. 또한, 당시 훈련병으로 입소한 평양 철도전문학교 토목과 졸업생 이영식씨가 설계를 맡아 진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시대적 상황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음.
- 정문 기둥 축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현무암과 마감재(인조석 물씻기)에서 확인된 조개껍질 등의 재료는 지역적 특징이 잘 반영된 건축적 특징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음.
- 다만, 등록 대상이 지주 형태의 방형 기둥 2기라는 점에서 단순 물리적인 상태로만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동 시설이 갖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로서의 장소성과 상징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기 등록된 육군 제1훈련소 시설(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등과 연계하여 일괄로 보존·관리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이미 등록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연계하여 등록 추진이 필요하며, 명칭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으로 검토 추진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 (구)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

2. 용 도 : (현) - (원) 출입구

3.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모2교차로
(좌) 대정읍 상모리 3722-2번지 도로, (우) 상모리 4165번지 도로

4. 소유자 : 국방부 육군본부(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502-2호)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콘크리트(추정)
- 제작년도 : 1952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기둥 2동(가로 2.5m×세로 2.5m×높이 3.7m) * 기둥사이 간격 17m

6. 조사자 의견('21.3.18.)

<문화재위원 이광표>

1) 개요

가. 육군 제1훈련소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된 것은 1951년 3월 21일.
- 육군 제1훈련소의 모체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제25교육연대임. 25교육연대 창설 이후,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전방에서 사상 병사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병력이 부족해짐. 육군 25교육연대는 안정적으로 병력을 양성하기 위해 1951년 1월 22일 최후방 지역인 제주 모슬포로 이동. 이어 두 달 뒤인 1951년 3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가 공식 출범함.
- 제1훈련소 면적은 약 198만㎡(약 60만 평)였고 훈련소 본부, 훈련소 연대, 공병대, 헌병대, 정훈부, 법무부대, 통신부, 하사관학교, 군수대, 병참대 등으로 구성됨. 당시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막사는 대부분 천막으로 지음.
- 1952년 7월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미8군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이 제1훈련소를 시찰함. 1953년 1월 21일엔 ‘강한 병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강병대(強兵臺)’로 이름을 변경.
- 1956년 1월 제1훈련소가 해체될 때까지 5년간 약 50만 명의 신병을 양성함. 전쟁 초기에는 하루 500여 명이 입소했으며 전방 전투가 치열할 때는 동시에 8만여 명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기도 함.

나. 육군 제1훈련소 정문

-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 기둥 한 쌍이 현재까지 남아 있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 2교차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장소 이동 없이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 설계자는 당시 제1훈련소 입소자였던 훈련병 이영식(1930년생). 그는 1950년 평양 철도전문학교 토목과 졸업했고 그러한 경력으로 인해 훈련소 정문 설계의 임무를 부여받게 됨. 이영식은 “당시 제1훈련소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훈련소 정문 기둥을 설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음.
- 1956년 제1훈련소가 해체된 뒤 지역 주민들은 이 정문 기둥의 전면에 ‘반공’이라는 구호를 써놓았고 이 지역에서는 이 정문 기둥을 ‘반공탑’이라고 불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쌍의 기둥은 모두 사각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 하나의 폭은 2.5m, 높이는 3.7m이고 두 기둥간의 거리는 17m.
- 현재의 외관으로 볼 때,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몸체와 덮개 부위로 이뤄짐. 기둥의 몸체 부위 표면 마감은 가장자리는 인조석 물씻기, 중앙부는 모르타르 흙뿌리기 (모르타르 뽀칠)로 처리.
- 상단부 덮개 부위는 3단으로 올려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식을 취했고 맨 위는 넓은 삼각뿔 모양으로 처리함.
- 현재 별도의 기단부는 보이지 않는데 기단부 존재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임.
- 기둥 내부의 재질과 축조 방식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함.
- 위치를 보면, 대정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교차로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이 특별히 훼손되거나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단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현재 외관상으로는 기단부가 보이지 않음. 하지만, 제1훈련소 정문 기둥과 형태, 크기, 재질이 흡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근 육군 98병원 (1952년 9월 창설)의 정문 기둥(2008년 철거)에는 기단부가 존재했음. 98병원 정문의 옛 사진을 보면 기둥 아래쪽에 2단의 기단이 선명하게 드러남. 이런 점에서 제1훈련소 정문에도 기단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노후에 따른 훼손이 많은 편. 기둥 곳곳에 이미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표면의 인조석과 모르타르도 여기 저기 떨어져 나갔음. 특히 기둥 아래쪽의 인조석 탈락은 심각한 상황임.
- 보호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탓에 수년 전에는 차량이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음. 또한 한 때 기둥에 못을 박아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례도 있어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음. 이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한 상황.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는 6·25 전쟁기 전후에 군사 시설이 들어섰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음.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국가등록문화재 제409호), 남제주 강병대교회(국가등록문화재 제36호), 제주 구 해병대 훈련시설(국가등록문화재 제410호),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국가등록문화재 제680호) 등이 대표적임.

- 육군 제1훈련소 정문 주변은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의 상흔을 기억할 수 있는 근대역사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제1훈련소 정문 기둥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존 및 활용의 측면에서 특별히 우려할만한 대목은 없음.
- 제주도는 2020년 육군 제1훈련소와 관련해 기록화 및 구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또한, 제1훈련소 정문 기둥을 포함해 이 일대를 전쟁문화유산으로 보존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까지 제1훈련소 정문 기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 계획, 주변 전쟁문화유산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정문 기둥에 관한 정보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기둥의 내부 구조와 기단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임. 기둥 주변 조사를 통해 기단부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그것을 원래대로 노출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의 당당한 위상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설계자(이영식)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함.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스토리를 더 찾아낸다면 제1훈련소 정문 기둥의 역사적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6·25 전쟁 관련 유적·유물은 이미 다수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특히 제1훈련소 인근의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남제주 강병대교회, 제주 구 해병대 훈련시설,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도 등록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상황임.
- 기존의 전쟁 관련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주로 병사들이 직접 생활했던 건물 공간이라면 이것은 생활공간이 아니라 훈련소 정문 기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제1훈련소가 6·25 전쟁 당시 핵심적인 신병 양성 기관이었으며 그 훈련소를 상징하는 정문의 기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문 기둥 또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로 평가할만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6·25 당시의 대규모 신병 양성기지로,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 기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큰 전쟁 건축임.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정문의 기둥이지만 전쟁기였던 1950년대 정문 건축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주변에 관련된 전쟁 유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훈련소 정문 기둥을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미 등록된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함께 묶어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또한 추가 조사에 대한 계획, 인근 전쟁문화유산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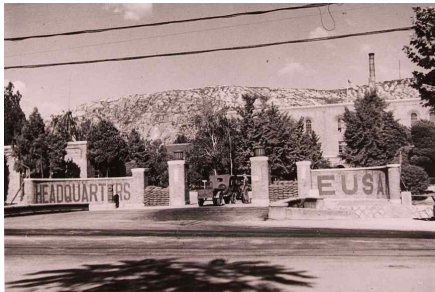
<문화재전문위원 이연경>

1) 개요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한국전쟁 중 안정적인 병력 보충을 위해 1951년 1월 22일 대구에서 제주도 모슬포으로 이동한 육군제1훈련소가 1951년 3월 21일 정식 출범함에 따라 건설된 정문으로, 당시 훈련병으로 입소했던 평양철도전문학교 졸업생인 이영식이 설계를 맡았다.
- 육군 제1훈련소는 1953년 1월 21일 강한 병사를 기르는 곳이라는 의미의 강병대로 개명하였고 1956년 1월 훈련소가 해체될 때까지 5년간 50만 여명의 신병을 양성하였다.
- 훈련소 해체 이후에도 정문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2008년 대정-안덕 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정문으로서의 위용은 잃었다. 일부 변형, 훼손이 있었으나 원래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 제주 모슬포 강병대가 있었던 지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콘크리트 구조의 정사각기둥으로 기단 위에 놓여 있으나 현재는 도로면이 높아지며 기단이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부는 점점 작아지는 세 개의 단 위에 정사가 완만한 사각뿔이 놓여 있다.
- 4면은 모두 같은 모습으로 인조석물갈기를 한 테두리와 몰탈흔뿌리기로 된 중앙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조석물갈기 부분에는 조개껍질들이 다수 노출되어 있어 바닷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조개껍질을 섞어서 사용한 지역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기둥 간격은 17m로 건축 당시와 동일하다. 건축 초기부터 문은 없고 현재의 문지주만 있으며 전면 중앙에 초소가 있는 상태였다. 사각기둥을 양 옆으로 세워 문을 만드는 것은 당시 군 관련시설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1952년 당시 미8군 사령부 정문



1956년 당시 국방대학 정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인 형태는 비교적 온전히 잘 남아 있으나, 기단부는 주변 지면이 높아지며 가려졌으며, 일부 부재의 탈락 및 균열이 있어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인근에 한국전쟁 유적(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2008년 문화재 등록), 제주 구 해병 훈련시설(2008년 문화재 등록), 남제주 강병대 교회(2005년 문화재 등록),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2017년 등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육군 제1훈련소 정문으로 사용될 당시의 도로 역시 잘 남아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음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으나, 기둥은 육군본부, 도로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소유로 향후 활용계획을 세울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음
- 다. 기타사항
 - 인근에 있는 기존 등록문화재들과 연계하여 활용계획 세우는 것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문화재 중에서는 비슷한 형태나 성격의 문화재는 없음

7) 등록가치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제주 모슬포에 있었던 육군제1훈련소의 정문은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 설치된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로 진입하는 입구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시설물로, 훈련소가 위치한 북쪽과 부대시설인 교회, 병원 등이 위치한 남쪽의 경계가 되어 훈련소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장소적 의미가 있다.
- 구조물 자체의 건축적 가치는 크게 높지 않으나 조개껍질 등을 사용한 지역적 특징이 발견되며, 인근에 있었던 육군98병원 병동의 정문 역시 같은 형태였으나 2008년 8월 멸실됨에 따라 이 지역에 남은 당시의 문으로서 유일한 가치를 가진다. 인근에 한국전쟁 유적이 다소 부포하고 있어 집합적 가치 역시 있으므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국가등록문화재 제409호)에 부번을 붙여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으로는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적합하며 인근 한국전쟁유적들과 함께 집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이용준>

1) 개요

- 동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모슬포(오늘날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위치하였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 출입구(GATE) 기둥(支柱)으로서 좌·우 양쪽에 각 1기씩 모두 2기가 서로 마주 보고 있음.

- 한국전쟁 초기 1950년 8월 14일 대구의 제25연대를 모체로 제1훈련소가 창설되었으나, 1·4후퇴로 인해 제주 모슬포로 이전하여 3월 21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로 새롭게 설치되었음.
- 훈련소 부지는 당시 제주도 국경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하였던 기지 내 시설을 활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시설(오무라(大村) 병사(兵舍))이었다고 함. 훈련소는 모두 8개의 신병연대와 교도연대, 하사관학교 등의 예하 부대로 구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제9연대 정문이 철거되고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문 출입구는 당시 훈련병이었던 이영식씨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경 평양철도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뒤 1·4후퇴 때 제주도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고 당시 훈련소장의 명에 따라 정문과 함께 다수의 막사 시설을 설계하였다고 함.
- 다만, 설계 및 공사 준공일 등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연혁과 이영식씨의 군복무 상황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대략 1951년~1953년쯤인 것으로 추정됨.
- 동 정문 시설이외에 현존하는 육군 제1훈련소의 흔적으로는 지휘소와 해병대 훈련 시설이 남아 있는데, 이들 시설은 현재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또한, 이 시기에 훈련 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훈련병들의 정신적 위안을 위한 교회가 인근에 건축되었으며, 이들 시설도 국가등록문화재 ‘육군98병원 병동’과 ‘남제주 강병대교회’로 보존·관리 되고 있음.
- 이밖에, 기록 사진 등을 통해 육군98병원에도 육군 제1훈련소와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정문 기둥(지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2008년 8월 철거 되어 현존하지 않음. 다만, 이 시설도 이영식씨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존하는 정문 출입구 기둥은 방형(方形)의 지주(支柱) 형태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 양측에 서로 마주 보고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2.7m(길이)×2.7m(너비)×3.7m(높이)로 모두 동일함. 두 기둥이 서로 약 17m 이격되어 있고 그 사이로 차도가 개설되었으나, 본래의 위치에서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다고 함.
- 기둥은 크게 기단-몸통-옥개(屋蓋)로 구분되며, 옥개는 삼각뿔 형태로 마무리하였고 그 아래에는 3단의 층급으로 된 옥개 받침을 두었음. 몸통 하부에는 기단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과거 주변으로 보행로가 만들어 지면서 땅이 성토되어 현 상태에서 정확한 단 수를 확인할 수 없음.
- 기둥의 구조 및 구조체 상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외장은 시멘트 몰탈과 인조석 물색기로 마감한 한 것으로 보임. 즉, 옥개의 삼각뿔과 네 면의 기둥 몸통은 시멘트 몰탈로 뿔칠을 하여 거칠게 처리하였고, 기둥 몸통 테두리와 층급 형태의 옥개 받침은 인조석과 함께 잘게 부서진 조개껍질을 사용하여 물색기 하였음.
- 등록신청서 등의 자료에는 정문 기둥의 구조체를 콘크리트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술한 육군98병원 정문 철거 사진에 담긴 모습을 참고하면 제주 현무암을 허튼 층쌓기로 하고 그 위에 시멘트몰탈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거나 정확히는 알 수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설계자의 증언을 통해 건축 배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기록 사진을 근거로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본래 기둥 정면에 ‘강병대’라는 부대명이 새겨져 있었으나 후에 훼손된 것으로 확인됨.
- 정문의 몸통부와 기단 일부에서 마감재가 벗겨지거나, 갈라짐 현상이 확인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제주도(관할시도)와 국방부(소유주)에서는 한국전쟁의 상징적인 시설물로서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다만, 동 시설물이 서귀포시 대정읍 시가지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도로 확장 등에 따른 훼손 및 멸실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한국전쟁의 상징적인 시설물로서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었음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 시설이 한국전쟁 관련 유산 및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국전쟁 관련 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여러 사례가 있으며, 특히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시설로는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2008.10.등록)’를 비롯하여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2008.10.등록)’, ‘육군98병원 병동(2017.4.등록)’, ‘남제주 강병대교회(2002.5.등록)’ 등이 있음.
- 이번 등록 신청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이들 시설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시설은 최초의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전쟁 관련 유산으로서의 상징성과 희소성 등이 인정됨. 또한, 당시 훈련병으로 입소한 평양철도전문학교 토목과 졸업생 이영식씨가 설계를 맡아 진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시대적 상황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정문 기둥 축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현무암과 마감재(인조석 물색기)에서 확인된 조개껍질 등의 재료는 지역색이 잘 반영된 건축적 특징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음.
- 다만, 등록 대상이 지주 형태의 방형 기둥 2기라는 점에서 단순 물리적인 상태로만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동 시설이 갖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로서의 장소성과 상징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기 등록된 육군 제1훈련소 시설(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등과 연계하여 일괄로 보존, 관리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

7. 「은제 이화문 합」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은제 이화문 합」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6.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공예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은제 이화문 합	1건 2점	전체높이 12.4cm 지름 18.2cm	1908 ~1913	서울공예 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길4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3.9.)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1.6.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한성미술품제작소(1908~1913년)에서 프레스 기법으로 제작한 은제 공예품으로 전통공예가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수량도 희소하여 근대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다만, 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에 의거하여 분류명과 유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합)」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제4조2항1호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목수현('21.6.16.)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존재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제작품으로, 그 예가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제작 기법 면에서 기형이나 문자문 등을 넣은 전통 공예를 계승하면서도 프레스 기법을 사용하고, 은과 구리의 합금 등 제작방식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로 등록 가치가 높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공호('21.6.16.)

- 조사대상품은 1908~1913년 사이에 제작한 은제합으로, 황실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가장 충실하게 구현된 초기의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임.
- 지금까지 한성 시기의 제작품으로 확인된 8점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제작하였고, 길상문자문과 보문 등을 새긴 솜씨와 형식의 품격,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만수무강’ 문자의 적용 관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실 소용품으로써 손색이 없는 형식미와 조형적 완결성을 지녔음.
- 현재까지 같은 시기의 제작품이 몇 점 확인되었으나 소형의 축소모형이거나 비교적 기법이 단순하고, 일부 원 소장자와 연관된 난제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작품은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희소성이 높고 보존상태도 양호함.
- 조선시대의 궁중 은기가 대부분 단조로 제작된 것과 달리 기형을 성형하는데 주물과 프레스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은과 납을 섞는 이전까지와 달리 은에 구리를 합금하여 전통공예가 근대화에 진입한 초기 단계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충실히 갖추어 근대공예사와 기술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문화재위원 신탁근 ('21.6.16.)

- 1908-1913년에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며 제작시기와 제작소가 분명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은 94-95%에 구리 2-3%의 합금으로 제작되고 제작기법에 있어 단조기법 대신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연봉형 꼭지를 리벳으로 뚜껑 위에 고정하는 등 수공예적 생산 방식에서 근대적인 생산과 제작방법과 같은 공예기술사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문양의 표현에서 전통적인 잠보문과 ‘만수무강’이나 ‘길상여의’와 같은 문자문이 사용되어 황실의 전통을 황실에서도 계속 전승하여 제작하였음
- 국내에서 아직까지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합)」으로 추진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은제 이화문 합

2.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

3. 소유자 : 서울공예박물관

4. 조사자 의견('21.6.16.)

<문화재위원 목수현>

1) 개요

- 서울 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신청명칭 은제 이화문 유개 발)은 그릇과 뚜껑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은제 '합'으로 전체 높이는 12.4cm, 그릇의 지름은 18.2cm 크기임.
- 서울 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근대 전환기에 공예품의 생산과 유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공예품임. <은제 이화문 합>은 그릇의 바닥 면에 '漢城美術' 글씨가 각인되어 이 유물이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생산품임을 알 수 있음.
-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후원하여 설립한 미술품제작소로, 전통적인 왕실 기물을 생산하는 관영 수공업 체제를 해체하고 민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상황이자, 전통적인 공예기법이 근대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전환하는 등 전통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임.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 10월 '전통공예의 진작'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이왕직미술품 제작소로 변경했으며 운영난을 겪으며 1922년 8월에 일본인 도미타 기사쿠에게 매도하여 조선미술품 제작소로 바뀐 뒤 더욱 상업화됨. 따라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는 매우 짧으며, 이 시기의 생산품은 전통 공예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임.
-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제품은 '漢城美術' 또는 '韓美'가 새겨져 있으나 이후 이왕직미술품 제작소 시기나 조선미술품 제작소 시기에는 주로 '美' 자를 새겨 시기적인 차이를 알 수 있음. 이왕직미술품 제작소 시기나 조선미술품 제작소 시기의 생산품은 수효도 많고,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것은 매우 드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서울 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은으로 만든 용기인 발(鉢)과 그릇을 덮는 뚜껑이 함께 있는 완형임. 용도는 국이나 찌개를 담은 탕기(湯器)로 보임.
- 뚜껑에는 중앙에 음각으로 연봉 모양을 새긴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꼭지를 중심으로 이화문(李花紋)이 양각으로 감입해 표현되어 있음. 뚜껑의 내립 면에는 전서체로 '만수무강(萬壽無疆)' 네 글자를 새기고 그 사이사이에 길상도안인 잡보문(雜寶紋) 중 산개(傘蓋), 법륜(法輪), 방승(方勝), 쌍전(雙錢) 도상을 배치했음. 몸체에는 역시 전서체로 '길상여의(吉相如意)' 네 글자를 배치했음.

- 뚜껑을 덮은 전체 높이는 12.4cm, 몸체는 높이가 7.4cm, 입지름이 17.9cm 이며 두께가 0.21-0.25cm 임. 문자문은 세로 3.3cm, 가로 3.08cm 임. 뚜껑은 지름이 18.2cm, 높이가 5.5cm 이며 이화문의 최대 너비는 6.7이고 문자문은 세로 4.1-4.2cm 가로 3.3cm 크기임. 연봉은 지름 0.8-1.2cm, 높이 2.0cm 크기임.
- 바닥면의 가운데에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한성미술(漢城美術)’을 양각으로 눌러 새겼음. ‘한성미술’ 글자는 이 그릇의 제작 주체 및 생산 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명문임. 이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은제 이화문 합>이 1908-1913년 시기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음.
- 제작 기법은 일정한 틀 안에 눌러 만든 주물 제작의 프레스 기법을 사용했으며 부분적으로 단조한 흔적도 있음. 성분 분석 결과 은(Ag)이 94-95% 내외, 구리(Cu)가 2-3% 내외로 합금되어 바탕색에 검은 빛이 도는데, 이는 은과 납으로 제작되던 전통적인 합금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함. 또한 뚜껑의 이화문과 만수무강 문자무늬는 선각한 후 안쪽 면을 도금처리한 것으로 보임. 성분 분석 결과 문자문에 수은(Hg)이 포함되어 있어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음.(서울시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참조)
- ‘만수무강’이나 ‘길상여의’ 문자문은 전통적인 것이나 뚜껑의 연봉형 꼭지는 근대적 도안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이화문은 1880년대에 왕실과 국가의 상징으로 채택되었고,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의 상징으로 사용된 문양임.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소장 경위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1908-1913년 시기에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되어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장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잘 간직했던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은제 이화문 합>은 현 소장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 소장자는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전함.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사용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 소장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 온 것으로 보임.
- <은제 이화문 합>은 나무 상자에 담겨 보관되고 있으나 이는 제작 당시의 원래 상자는 아님.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은제 이화문 합>은 소장처인 서울공예박물관 수장고에서 운습도 환경이 적절하게 지켜져 보존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은제 이화문 합>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 강점기로의 변화 시기에 전통 공예의 제작 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따라서 근대기 공예품 제작의 주요 연구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유사 기형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가 등록문화재 제452호로 지정(2009년)되어 있으며, 동 소장처의 <은제 이화문 화병>이 등록문화재 제453호로 지정되어 있음.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 452호)는 신청 유물인 <은제 이화문 합>과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하며 크기도 지름 18.4cm, 높이 11.8cm 로 거의 유사함. 뚜껑의 연봉 모양은 <은제 이화문 합>과 거의 유사하며 이화문의 위치도 같으나 형태를 음각으로 새긴 점이 다름. ‘萬壽無疆’을 새긴 문자문은 유사하나, 잠보문은 없음. 몸체 측면에는 다른 문자문은 없으며 이화문이 작게 새겨져 있고, 바닥 면에는 ‘美’와 ‘純銀’이 새겨져 있음. 제작 방식도 프레스기로 주물한 <은제 이화문 합>과는 달리 단조의 흔적이 있음. 유물 등록 번호는 ‘창덕12950’으로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것을 수습한 것이며, 사용 흔적도 매우 많음. 종합적으로 볼 때 1913-1922년 사이인 이왕직미술품 제작소 시기에 제작하여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신청 유물인 <은제 이화문 합>이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인 1908-1913년 사이인 더 이른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서울역사박물관에는 ‘한미’ 또는 ‘한성미술’ 명이 있는 유물이 4점 소장되어 있음. <‘한미’명 이화문잔>(운 1083)은 전면에 이화문이 있고 바닥 면에 ‘漢美’ 글자가 새겨져 있음. 크기는 입지름 6.0cm, 전체 높이 3.2cm 임. <‘한미’명 이화문 잔 받침>(운 1079)은 입지름 10.3cm, 바닥지름 3.3cm 높이 0.6cm 크기로 꽃잎 모양의 잔 받침으로 가운데에는 잔을 받칠 수 있도록 움푹 들어갔고, 꽃잎 안쪽으로 또 다른 꽃 모양이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겹치는 부분 때문에 가운데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이화문 각 꽃잎마다 3개씩 꽃술이 표현되어 있음. 잔 받침의 바닥 면에는 ‘漢美’ 글자가 새겨져 있음. 이 잔과 잔 받침은 운현궁에서 기증한 것으로 2005년 이준용 묘를 옮길 때 석곽 내의 목함에 부장품으로 출토된 것임. 이준용(1870~1917)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적손으로, 고종의 조카가 됨. 이준용의 몰년이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보다 더 뒤이기 때문에, 이 은제 잔과 받침은 부장용 명기라기보다는 평소에 쓰던 물품을 부장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주발>(운 1374-1, 운 1374-2)은 전체 높이 9.1cm, 몸통 높이 7.2cm, 입지름 9.6cm, 바닥지름 4.5cm 크기로 뚜경과 몸체로 되어 있으며 바닥 면에 ‘漢城美術’ 네 글자가 새겨져 있고, 뚜경에는 글자가, 몸체에는 ‘壽’, ‘福’ 등 글자가 금도금으로 새겨져 있으나 이화문은 없음. 특히 바닥면에는 ‘운현궁 노안당’이라는 글자가 가는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운현궁의 주요 전각인 노안당에서 사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음. 유물은 서울시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임.
- 충남역사박물관에는 ‘漢美’ 명이 새겨진 <은잔>과 받침이 소장되어 있음. 은잔은 지름 6cm, 높이 3.4cm 이며, 잔받침은 지름 10.5cm, 높이 1cm 크기임. 잔의 안쪽 바닥에는 이화문이, 바닥 면에는 ‘漢美’ 명이 새겨져 있음. 잔 받침은 윗면에 전체적으로 이화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잔을 놓는 부분에 ‘壽’ 문자무늬가 있고, 바닥면에 ‘漢美’ 명이 새겨져 있음. 이 잔과 잔 받침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미’명 이화문 잔>과 <‘한미’명 이화문 잔 받침>과 거의 유사함. 이 <은잔>은 고종이 대한제국기에 관직을 지낸 이정렬(李定烈, 1868-1950)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함. 이정렬은 1897년 시종관, 1899년 예모관, 1903년 봉상사 부제조, 1905년 궁내부 특진관, 1906년 강원도 관찰사 등 왕실에 매우 가까운 직책을 지낸 인물임. 이정렬의 문집인 『퇴호유고』에 따르면 고종이 1912년 승지 이우규에게 이정렬에 대한 소식을 묻고 아는 바가 없다고 아뢰자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하며 하사했다고 함. 이정렬은 퇴직 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의 예안 이씨 종족 마을로 낙향했으며 그의 후손들이 이 <은잔>을 충남역사박물관에 기탁함.
- 국립중앙박물관에는 ‘漢城美術’이 새겨진 은제 그릇이 1점, ‘漢美’명이 새겨진 은제 그릇이 2점 소장되어 있음. <궤(簋)>는 제사용기 형태로, 바닥 면에 ‘漢城美術’ 인이 새겨져 있음. <화(盃)> 역시 제사용기 형태이며, <정(鼎)>은 세 발 술의 형태임. 이 두 은제 그릇의 바닥 면에는 ‘漢美’명이 새겨져 있음. 그러나 이 은제 그릇들은 모두 실제 제사용기보다는 매우 크기가 작아서 일종의 부장용 명기(冥器) 또는 기념품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유물이 많지 않으며 생산과 판매용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음.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유물들을 구입에 의해 소장하고 있음.

소장처	수량	형태	이미지	명문	유물번호	소장경위	비고
1 (신청) 서울 공예박물관	1건 2점	합(뚜경)		없음		구입 (판매자가 일본에서 반입)	
		합(몸체)		漢城美術			
2 서울 역사박물관	1건 2점	발(뚜경)		없음	운1374-1	이관(서울 시)	이화문 없음
		발(몸체)		漢城美術	운1374-2		
	1건 1점	잔		漢美	운1083	기증(운현 궁 유물) 이준용 묘 출토	유물이 없음 두 형태적으 로 유사함
1건 1점	잔대		漢美	운1079			
3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1건 2점	잔		漢美		기탁 (아산 외암마을 개인)	
		잔대		漢美			
4 국립 중앙박물관	1건 1점	궤(簋)		漢城美術	신수1244 9	구입	
	1건 2점	화(盃)		漢美	신수1244 9(22-11)		
	1건 1점	정(鼎)		漢美	신수1244 9		

총 수량 8건 12점

- 위의 소장 예 외에도 국외인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에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함.
- 이상으로 타 기관에 소장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유물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신청 유물은 유물의 상태가 매우 좋으며,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기물에 근대적인 제작 방식의 적용한 예로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존재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제작품으로, 그 예가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제작 기법 면에서 기형이나 문자문 등을 넣은 전통 공예를 계승하면서도 프레스 기법을 사용하고, 은과 구리의 합금 등 제작방식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로 등록 가치가 높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형태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와 유사하여 명칭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는 ‘탕기(湯器)’라는 용도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나 <은제 이화문 합>은 뚜경이 있는 납작한 그릇을 이르는 ‘합(盆)’으로 형태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임. 유사한 형태의 그릇을 같은 종류로 보아 가지 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명칭을 붙이느냐, 또는 구분하기 위해 다른 명칭을 붙이느냐의 문제가 존재함.

두 그릇을 하나로 통일할 경우

- 제452-1호 <은제 이화문 탕기>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합>과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에 제작한 타 기관소장 은제 공예품들

- 제452-2호 <은제 이화문 합>
- 다만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명문을 근거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제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는 1913년 이후인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시기의 제작품으로 추정되는 바, <은제 이화문 합>을 한성 미술품 제작소 시기의 것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명칭과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 경우 다른 기관 소장품으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공예품이 신청되어 등록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따라서 <은제 이화문 합>을 별도 번호의 등록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을 대별하는 명칭으로 하고 그 아래에 형태적인 명칭을 붙여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합)>으로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이 경우 타 기관 소장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은제 공예품은, 예를 들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준용 묘 출토 잔과 받침)>으로, 충남역사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 공예품(이화문 잔과 받침)> 등으로 부여할 수 있음.
- 하나의 번호 아래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다면, 기존 명칭을 고려할 경우 서울역사 박물관 소장품은 <‘한미’명 이화문 잔> 또는 <‘한미’명 이화문 잔 받침>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면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은 <‘한성미술’ 명 은제 이화문 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최공호>

1) 개요

- <은제 이화문 합>은 1908-1913년 사이에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만든 제작품.
- 제작처인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이왕가의 후원으로 1908년에 설립하여 1937년까지 운영된 공방임.
- 제작소는 설립 당시인 1908년부터 1913년까지는 ‘한성미술품제작소’, 1913년부터 1922년까지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1922년부터 1937년까지는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음.
- 미술품제작소는 전통 공예에 기초하여 일본을 통해 수용된 서구의 제작기술과 조형형식, 근대도안의 사용, 포장기법 등에 공예의 근대적인 전환 과정이 함축된 중요한 공방임. 특히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김정섭, 이학응 등 근대를 대표하는 공예가들을 배출하여 훗날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전통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함.
- 약 30년간의 운영기간 중 초기인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에는 황실의 설립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고 제작 품목과 소비처도 황실과 직접 연관되었으나,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의 입지 변화에 따라 일본인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고 제품도 상업화 경향을 띠게 됨.
- <은제 이화문 합>이 제작된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에는 조선 황실의 기명 전통을 이어 황실 의기를 제작하거나 고동기의 형식을 재현하되 사용 가능한 형태가 주로 제작되었음.
-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 이후에는 크기가 작은 미니어처 형식의 은제 장식품이나 기념품, 대중적인 상품, 기업의 홍보물 등으로 품목이 변화, 확대되었음.
- 기형은 황실 소용의 탕기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서체로 구성된 만수무강(萬壽

- 無疆) 등 전통 길상문자와 팔보문의 일부 소재를 크고 활달하게 새긴 구성 등이 전형적인 황실 기명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
- 제작소의 운영 기간 중 특히 초기인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제작품은 그 수가 희소함. 현재까지 파악된 이 시기의 제작품 수는 8점 정도에 불과함.
- <은제 이화문 합>은 근래에 일본에서 들여왔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함.
- 재질이 연성임에도 바닥을 비롯한 기면 안쪽에 사용흔이 거의 없어 사용자가 쓰지 않고 정성껏 보관해온 것으로 보임.
- 이 제작품은 기물의 용도와 형식미, 문양의 내용과 제작기법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황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1908-1913년 사이에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은제합으로, ‘조선 고유의 미술 진작’의 목적과, ‘의장은 모두 조선식으로 한다’는 황실의 설립취지가 잘 반영된 초기 제작품임.
- 황실 기물 특유의 형식과 조형적 완결성을 갖추었으며, 희소성이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함. 전통공예가 근대화 과정에 진입한 초기 단계의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작품임.
- 은으로 만든 발과 뚜껑으로 구성된 합의 형식이며, 용도는 국이나 찌개를 담는 탕기(湯器)로 간주됨.
- 동체는 평저형 바닥에서 구연부를 향해 완만하게 벌어진 전형적인 발의 형식임. 뚜껑은 중심에 연봉형 꼭지를 달아 여닫는 손잡이 기능을 부여하고, 이화문을 새긴 평면을 지나면 비스듬히 흐르는 빗면의 끝단을 수직으로 꺾어 동체의 운두를 덮는 형태로 구성했음.
- 사용자의 시선이 닿는 뚜껑에는 연봉형 꼭지를 중심으로 이화문장 한 송이를 양각으로 가득 새기고, 사선으로 내달린 빗면에는 전서체로 ‘만수무강(萬壽無疆)’ 네 글자를 등간격으로 새겨 배치했으며, 글자들 사이에 산개(傘蓋), 법륜(法輪), 방승(方勝), 쌍전(雙錢) 등 4종의 잡보문(雜寶文)을 교차로 포치하고 부금(付金)으로 화사하게 꾸몄음.
- 동체에는 뚜껑의 ‘만수무강’글자 위치에 맞추어 ‘수복부귀(壽福富貴)’를 동일한 전서체로 단정하게 시문하고 문양은 부금하여 의미를 강조하였음.
- 굽이 없는 동체의 바닥면 중앙에 ‘한성미술(漢城美術)’을 양인각(陽印刻)하여 제작소 초기의 제작품임을 알려줌.
- 기형은 주물로 뽑은 바둑(함금덩이)을 프레스 기법으로 펼쳐 제작하고, 부분 단조로 기형을 잡은 뒤에 가질틀에 걸고 표면을 다듬어 완성했음.
- 프레스 기법이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사례의 하나로 간주되며, 이는 근대 금속공예 기술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써 중요함. 기계식 제작기법의 적용은 당시 첨단 기술로 인식되었으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과 근대식 기법이 혼용된 흥미로운 사례로써 근대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 이 제작품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황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판단됨. 황실 기물의 품격을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설립 초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물임. 특히 창덕궁 구장의 기존 국가등록문화재(은제 이화문 탕기; 제452호)와 형식 및 품격이 유사하고, 일반 대중이 쓰지 않는 보문(寶文)과 ‘만수무강’을 금으로 부금

하여 치장한 관례에 비추어 황실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음.

들 사이에 선행하던 첨단 기술을 선점한다는 자긍심이 있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보존상태가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수장고와 전시 공조시설을 잘 갖춘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보존관리 환경이 안정적인.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와 가까운 시기임에도 남아 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고, 전통문화가 현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에 따른 공예 형식과 제작기술의 변화과정을 오롯이 담고 있어 전시와 교육, 홍보, 문화상품 등 전통 콘텐츠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 개관을 앞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이 제작품을 근대공예관의 대표 유물로 전시할 계획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은제 이화문 합>은 황실에서 세운 미술품제작소의 설립 초기에 해당하는 1908-1913년의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임.
- 같은 미술품제작소 제작품으로 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 제452호>나 <은제 이화문 화병; 제453호>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임. 조사 대상품에는 이화문 외에도 기물의 저부에 적힌 ‘漢城美術’명이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의 제작품임을 증명하고 있으나, 기 등록된 <은제 이화문 탕기>에는 ‘美’와 ‘純銀’명이 적혀 이보다 뒤인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품임.
- 한성 시기의 제작품은 이 제작품 외에도 현재 서울역사박물관과 충남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7점이 소장되어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의 3점은 ‘漢城美術’또는 ‘漢美’명이 적혀 있어 한성 시기의 제작품으로 확인되고, 서울역사박물관의 <은제 이화문 잔>이나 <은제 이화형 은잔> 도 ‘漢城美術’또는 ‘漢美’명이 선명하여 같은 시기의 제작품임.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의 제작품은 흥선대원군의 자제인 이준용의 묘에서 출토되어 소장자가 확인됨. 충남역사박물관의 ‘漢美’명 은잔은, 고종이 이정렬에게 1912년에 하사한 기록이 있고, 이화형의 잔받침에 전서체의 ‘壽’와 꽃술을 음각으로 새겼음.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의 3점은 축소형 장식품이고, 충남역사박물관 소장품 역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법이 단순한 편임.
- 미술품제작소의 은기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물과 장식용 축소모형으로 구분됨. 축소모형은 탁상 위에 올려 두고 완상하는 일본의 오키모노(置物) 취향과 연관됨. 은잔의 경우는 축소모형은 아니나 기물의 형식과 제작기법이 비교적 단순함. 반면 서울공예박물관 합은 비록 일본에서 들여와 소장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규모나 장식에 들인 정성을 고려할 때 황실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음.
- 기 등록된 제작품이 은과 납을 섞는 조선시대 왕실 은기의 합금 전통과 단조 제작법과 달리 은에 구리를 합금하였고, 기형도 새로 들어온 프레스를 사용하여 근대적인 제작기법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줌. 특히 당시의 새로운 기법은 장인

7) 등록 가치 의견

- 근대공예사의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미술품제작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조사대상품은 1908-1913년 사이에 제작한 은제합으로, 황실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가장 충실하게 구현된 초기의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임.
- 지금까지 한성 시기의 제작품으로 확인된 8점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제작하였고, 길상문자문과 보문 등을 새긴 솜씨와 형식의 품격,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만수무강’ 문자의 적용 관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실 소용품으로써 손색이 없는 형식미와 조형적 완결성을 지녔음.
- 현재까지 같은 시기의 제작품이 몇 점 확인되었으나 소형의 축소모형이거나 비교적 기법이 단순하고, 일부 원 소장자와 연관된 난제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작품은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희소성이 높고 보존상태도 양호함.
- 조선시대의 궁중 은기가 대부분 단조로 제작된 것과 달리 기형을 성형하는데 주물과 프레스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은과 납을 섞는 이전까지와 달리 은에 구리를 합금하여 전통공예가 근대화에 진입한 초기 단계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충실히 갖추어 근대공예사와 기술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조사대상품 외에도 향후 미 등록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등의 소장품을 면밀히 조사하여 함께 등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함.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기존에 등록된 고궁박물관의 <은제 이화문 탕기>와의 형식적 유사성을 고려하고 유물의 고유성도 감안하여 <은제 이화문 합>이 적절해 보임.
- 그러나 형식과 기능이 거의 동일한 <은제 이화문 탕기>가 용도를 명확히 적시한 데 비해 합은 가치 중립적인 기형의 일반명칭을 썼을 때 동일계 유물의 관리 등에 불편이 예상된다면 기존 등록품 제452-1호에 이어 제452-2호로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타 기관의 소장품이 추가로 등록 신청될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물의 형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을 추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문화재위원 신탁근>

1) 개요

- <은제 이화문 합>은 은(銀) 94-95%에 구리 2-3%의 합금이며, 그릇의 형태는 편평한 몸체 위에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으로 구성된 합(盒) 형식으로서 제작기법은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연봉형 꼭지는 리벳으로 뚜껑 위에 고정하고, 용도는 국이나 찌개를 담았던 탕기(湯器)의 일종임.
 - 몸체의 바닥면에 ‘한성미술(漢城美術)’이라는 각인을 통해 1908년 10월 설립되어 1913년 6월 5일까지 운영되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漢城美術品製作所)에서 제작한 금속공예품으로서, 그 제작소와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음.
 - 문양은 뚜껑 꼭지 아래에는 다섯 잎의 이화문이 새겨지고, 뚜껑 부분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 라는 문자문과 그 의미를 지닌 4가지 잡보문(雜寶文), 몸체 부분에는 ‘길상여의(吉祥如意)’ 문자문이 배치되며, 문양의 제작기법은 외곽을 음각으로 새기고 그 내부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여 처리하고 있음.

		
합의 전면	뚜껑 위 꼭지와 이화문, 만수무강, 잡보문	'한성미술(漢城美術)' 각인
<은제 이화문 합>(서울공예박물관)		

2) 주요 내용 및 특징

- '漢城美術' 각인 : 1908년 10월 설립되어 1913년 6월 5일까지 운영된 한성미술품 제작소 작품

					
'한성미술', 서울공예박물관 1908-1913	'한성미술', 서울역사박물관 1908-1913	'순은', '미' 국립고궁박물관 1913-1922	'순은', '미', 서울역사박물관 1913-1922	'미', 서울역사박물관 1922-1937	'미', 서울역사박물관 1922-1937

- 재질의 특성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이화문합은 재질의 순도를 나타내는 '純銀'각인은 없지만,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은(Ag)이 94~95% 내외, 구리(Cu)가 2~3% 내외로 합금되고 바탕색은 검은 빛이 돛. 이 합은 은과 구리 및 납으로 합금되어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財用)편에 왕실기명은 천은(天銀)으로 제작된다는 기록에 보이는 전통 합금방식과 다른 변화가 나타남.

원소명 위치	은 (Ag)	금 (Au)	수은 (Hg)	구리 (Cu)	황 (S)	납 (Pb)	아연 (Zn)	텅스텐 (W)	크롬 (Cr)	카드뮴 (Cd)	비고
① 몸체(안)	96.6	N.D.	N.D.	3.0	N.D.	0.4	N.D.	N.D.	N.D.	N.D.	
② 몸체바닥	95.4	N.D.	N.D.	2.4	1.9	0.3	N.D.	N.D.	N.D.	N.D.	
③ 뚜껑	94.4	N.D.	N.D.	2.3	3.1	0.2	N.D.	N.D.	N.D.	N.D.	
④ 뚜껑문양	2.7	80.8	13.1	N.D.	3.3	N.D.	N.D.	N.D.	N.D.	N.D.	
⑤ 뚜껑문양	38.8	60.2	N.D.	0.4	N.D.	N.D.	0.2	0.4	N.D.	N.D.	
⑥ 뚜껑문양 (이화문)	11.5	87.7	N.D.	0.1	N.D.	N.D.	0.3	0.3	N.D.	N.D.	
⑦ 몸체문양	73.7	24.0	N.D.	1.2	N.D.	0.2	0.2	0.3	0.3	0.2	

표 1. 은제이화문합에 대한 X-선 형광분석 성분분석 결과 ※ N.D.=Not Detected

- 제작 방법과 형태적 특징 : 은제이화문합의 몸체와 뚜껑의 성형방법은 모두 프레스기(Press機)를 사용한 기계 제작임.
 - 몸체의 기형은 편평한 바닥면에서 위로 갈수록 외반되다가 상단 1/6지점에서 꺾여 다시 외반 되어 올라가고, 연봉형 꼭지가 달린 뚜껑이 몸체의 운두를 덮는 형태임.
 - 뚜껑과 연봉형 꼭지는 은으로 된 리벳으로 결합됨. 연봉형 꼭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에 도금된 단판 5엽 3꽃술의 이화문이 시문됨. 꽃술은 반원정을 사용하여 반원 2개를 맞대어 둥근 형태를 잡음.
- 문자문과 문양의 내용 : <은제 이화문 합> 뚜껑에는 중앙의 이화문 아래 경사면의 사면에 '만수무강(萬壽無疆)'의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그 사이사이에 영지(靈芝), 법륜(法輪), 방승(方勝), 쌍전(雙錢)의 잡보문(雜寶紋)을 배치하고 있음. '길상여의' 문양과 '만수무강' 문자문의 경우 선각으로 문양을 처리하고 그 안쪽 면을 도금처리 하였음. 잡보문의 형태는 단순하고, 도금이 문양의 윤곽선을 뒤덮거나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두껍게 처리되었음.
 - 기법의 명칭 : 외형상 상감(象嵌)이나 감입(嵌入)기법과 유사하나, 문양의 윤곽선이나 내부를 파낸 후 다른 재질로 채운 것이 아니어서 도금이나 부금(附金)기법으로 여겨짐.
 - 도금 처리 방식 : 문자문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수은(Hg)이 포함되어 있어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되었음이 확인됨.

뚜껑				
문자	萬	壽	無	疆
뚜껑의 잡보문				
	영지(靈芝)		법륜(法輪)	
	방승(方勝)		쌍전(雙錢)	
몸체				
문자	吉	祥	如	意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 뚜껑과 몸체 위에 새겨진 문자문과 잡보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서울공예박물관 은제이화문합은 1908년 10월부터 1913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으로서 은과 구리 및 납의 합금이며 프레스기법으로 형태를 만들고, 몸체와 뚜껑에 음각으로 문자를 새기고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문자문 내부에 도금을 하는 등 제작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은제이화문합>은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서울공예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소재) 수장고 내에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음.
- <은제이화문합>은 향은·합습 기능을 갖추고 매년 해당 유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 수장고나 전시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대한제국기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 관련 학술연구·교육·전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필요함.
-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설립 운영한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창덕궁 유물]과 국립중앙박물관[창덕궁 유물]이나 서울역사박물관[운현궁 유물] 및 충남역사박물관 등지와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전시를 통해 대한제국기 공예품 연구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 <은제 이화문 화병>(제453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수'자문 발>과 <은제 이화문 합>과의 비교
- **각인에 의한 제작시기의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의 각인은 '한성미술(漢城美術)'이어서 1908년 10월부터 1913년 6월까지 운영된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임. 한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수'자문 발> 또한 각인은 '한성미술(漢城美術)'이어서 1908년 10월부터 1913년 6월까지 운영된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임.
-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와 <은제 '수'자문 탕기>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수'자문 주전자>의 경우 '미(美)자'와 '순은(純銀)자'가 각인되어 있어 세 점은 모두 한성미술품제작소를 계승하여 1913년 6월 6일부터 1922년 8월 15일까지 이왕직(李王職) 직영으로 운영되었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職美術品製作所) 시기에 제작된 것임. 따라서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이 기등록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보다 제작시기가 앞선 것을 알 수 있음.
- **재질의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이화문합은 과학적 성분 분석 결과 은(Ag) 95%와 구리(Cu) 3% 내외 합금으로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두 점의 <탕기>들은 '순은(純銀)' 명이 각인되어 있어 재질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것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것과 재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됨.

은제 이화문 합, '한성미술' 각인, 서울공예박물관	은제 수자문 발, '한성미술' 각인, 서울역사박물관	은제 이화문 탕기, '미', '순은' 각인, 국립고궁박물관	은제 수자문 탕기, '미', '순은' 각인, 국립고궁박물관	은제수자문주자, '미', '순은' 각인, 서울역사박물관

○ **형태의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의 형태는 바닥면에서 약간 외반되다가 내반되어 올라가는 것이어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보다는 같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제 '壽'자문 탕기>와 형태적으로 비슷함. 다만 <은제 '수'자문 탕기>의 경우에는 몸체와 뚜껑의 높이가 높아 서울공예박물관의 것과 비례감에서 차이가 남.

○ **크기의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는 대체로 비슷함. 전자가 후자보다 높이가 약간 크고, 몸체가 약간 높고, 후자가 뚜껑 지름이나 뚜껑 높이가 약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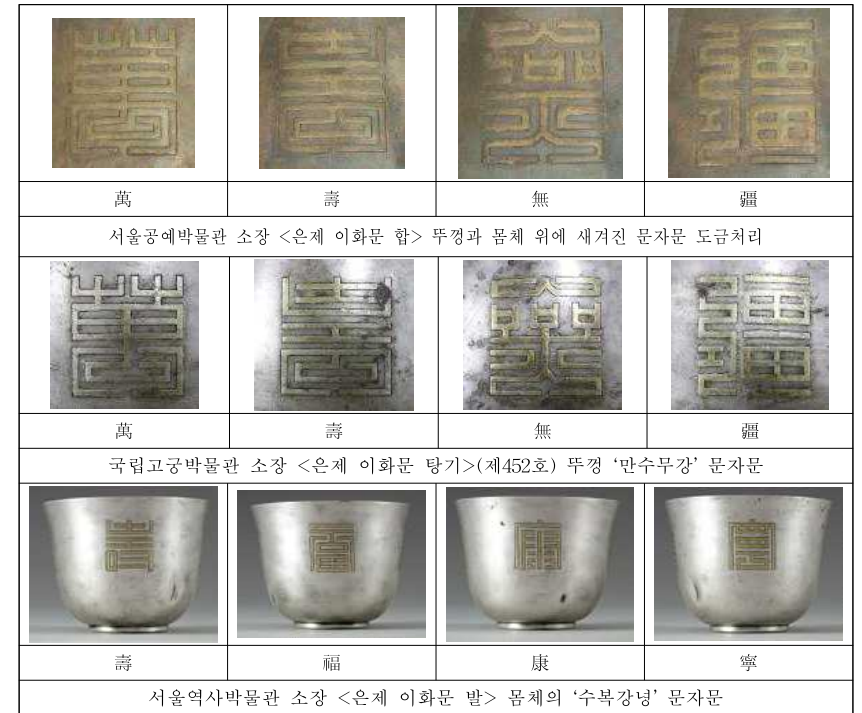
구분	전체높이	뚜껑지름	뚜껑높이	몸체높이	비고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	12.4cm	18.2cm	5.5cm	6.9cm	미등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	11.8cm	18.4cm	5.6cm	6.8cm	등록 제452호

○ **제작기법의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의 성형방법은 프레스기를 사용한 기계 제작인 반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점의 탕기들은 내면에 망치질 흔적이 있어 단조기법으로 제작된 것도 비교됨. 뚜껑과 연봉형 꼭지의 경우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의 성형방법은 프레스기를 사용한 기계 제작으로 은으로 된 리벳으로 결합함.

○ **이화문 문양과 제작기법 비교** : 이화문의 모양은 비슷하나 꽃술의 표현에 있어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에서는 반원정을 이용하여 2번 겹쳐 표현했으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탕기의 경우 공근정으로 동그라미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점도 비교됨. 연봉형 꼭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에 도금된 단판 5엽 3꽃술의 이화문이 시문하되 꽃술은 반원정을 사용하여 반원 2개를 맞대어 둥근 형태를 잡았음. 반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제452호 등 2점의 탕기들은 이화문양은 비슷하나 내부의 꽃술은 공근정을 사용하여 하나의 원의 형태를 만들어 차이가 남. 이것은 국립고궁박물관 은제이화문마상배형잔, 서울역사박물관 <은제 '美'명 이화문 합>, <은제 '漢美'명 이화문 잔>에 시문된 이화문 꽃술은 모두 공근정을 사용하고 있음. 이로 미루어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는 반원정으로 꽃술을 만드나,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는 공근정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짐.



○ **문양의 수량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은 뚜껑에는 '이화문'과 '길상여의'와 잡보문 및 몸체에는 '만수무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비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두 탕기의 경우 몸체에는 이화문과 '수(壽)자문'이, 뚜껑에는 '만수무강' 문자가 새겨져 있음. 이로 미루어 <은제 이화문 합>에는 이화문과 '길상여의'와 '만수무강' 문자문 및 잡보문 등 문양의 수량이 많은 반면, 탕기류에는 이화문과 수자문 및 만수무강으로 문양의 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엿볼 수 있음.



○ **몸체 문자문의 음각과 도금처리 비교** :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의 몸체에 새겨진 ‘만수무강’ 문자는 획수의 형태나 모양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데 비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 몸체의 ‘만수무강’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발>의 몸체에 새겨진 ‘수복강녕’ 문자의 경우 자로 잰 듯이 새겨져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한성미술’명 발>과 비교**
 - <은제 이화문 합>은 각명이 ‘漢城美術’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한성미술’명 발>과 동일하여 같은 시기, 같은 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이 확인됨. 다만 전자가 합인 반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은 형태가 조금 높은 발(鉢)이고 뚜껑에 꼭지가 달리지 않은 점, 몸체에 ‘수복강녕’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글씨체가 자로 잰 듯 처리되어 차이가 있음.

○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잔과 잔받침>과 비교**
 - <은제 이화문 잔과 잔받침>은 잔 바닥과 잔받침의 굽 바닥 안쪽 각인은 ‘漢美’여서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합>의 ‘한성미술’과 각인은 다르지만 같은 시기, 같은 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이 확인됨. 해당 유물은 『퇴호유고』에 의하면 1912년 고종이 승지 이우규(李禹珪)를 통해 이정렬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임. 잔과 잔 받침의 형태로 잔의 중앙에 이화문이 음각으로, 잔받침은 다섯잎의 이화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壽의 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은 형태가 조금 높은 발(鉢)이고 뚜껑에 꼭지가 달리지 않은 점, 몸체에 ‘수복강녕’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글씨체가 자로 잰 듯 처리되어 차이가 있음.

			
이화형 ‘수’자문 잔받침	잔받침 굽 ‘한미’ 각인	은제 잔의 모습	잔 바닥의 이화문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잔과 잔받침>, 1912년			

7) 등록가치의견

○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등록 신청한 <은제 이화문 합>은 기등록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탕기>(등록 제451호)이 1911-1922년에 설치 운영된 이왕직 미술품제작소보다 앞선 시기인 1908-1913년에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여 제작시기와 제작소가 분명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점, 순은으로 제작되던 조선왕실의 공예품에서 대한제국기에는 은 94-95%에 구리 2-3%의 합금으로 제작되고 제작기법에 있어 단조기법 대신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연봉형 꼭지를 리벳으로 뚜껑 위에 고정하는 등 수공예적 생산 방식에서 근대적인 생산과 제작방법과 같은 공예기술사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점, 문양의 표현에서 전통적인 잡보문과 ‘만수무강’이나 ‘길상여의’와 같은 문자문이 사용되어 왕실의 전통을 황실에서도 계속 전승하여 제작하는 점, 국내에서 아직까지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은 ‘은제 이화문 합’ 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 명칭; 비교적 편평한 몸체에 보주형 꼭지를 가진 뚜껑이 있는 기물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 의하면 ‘은엽표(銀葉瓢)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임.
- * 기등록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사용 용도에 의해 <은제 이화문 탕기>(등록 제451호)로 표기하였으나, 본 신청건은 몸체 위에 뚜껑이 있는 기물은 형태적 특징에 의해 전통적으로 ‘합(盆)’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따라 <은제 이화문 합>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은제 이화문 합,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1908-1913년	은제 이화문 탕기(등록 제451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911-1922년	은엽표(銀葉瓢),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년

- 은제이화문탕기와 동종인지 여부
 * 본 신청건은 기 지정된 <은제 이화문 탕기>(등록 제451호)와 크기나 형태가 비슷하여 동종의 기물로 보이나, 바닥에 새겨져 있는 각인이 ‘한성미술’로서 1908-1913년에 설치 운영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작품이고, 등록 제451호는 1911-1922년에 설치 운영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서 기 등록된 기물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기물임.
- 타 기관 소장품이 등록 신청할 경우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 중 ‘한성미술’, ‘한미’ 각인이 새겨진 <은제 ‘한성미술’명 발>이나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은제 이화문 잔과 잔받침> 또한 본 신청건과 같은 시기의 것이어서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임.

8. 「국문정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국문정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문정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0.9.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6.3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한글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국문정리	1건 1집	24.5×16.0cm	1897년	국립한글 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139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0.9.1.)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1.6.30.)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국문정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서로, 이봉운이 1897년 순한글로 간행한 것으로 국문의 중요성, 국어사전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는데, 국문에 대한 올바른 연구나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에 선구적인 문법 연구서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님.
- 다만, 현재 기 등록 2건과 신청건 외에도 타 기관에 소장된 수량이 많은 점과 유물의 보존상태도 기 등록 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이해은('21.6.30.)

- 이 자료는 한글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초기 국어 문법서로서 그 가치를 이미 인정 받은바 있음. 그러나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동일 판본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기 등록본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상태 등에서 우월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향후 등록문화재 등록시 자료의 유일성, 희소성, 대표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등록된 동일 유형의 문화재와 비교하여 선본(善本) 여부와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기준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한미경('21.6.30.)

-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결과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검토에서 기술한 것처럼 물리적 손상과 재장정 등의 인위적 훼손이 많음.
- 동일 유형의 현존본 또한 다수 존재함.
- 조사대상 <국문정리>의 경우 제첩의 탈락, 홍사의 손상, 재장정, 책지의 중첩 문제, 판심의 훼손, 낙서, 곰팡이 등과 같이 물리적 손상과 훼손 및 생화학적 손상 등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낮음.

○ 前 연세대 교수 홍윤표('21.6.30.)

- 국가가 외세에 의해 지배당할 때, 자주 독립하고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국어문법서라는 점이 문화사적 가치가 높음.
- 국가적으로 언어와 문자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어문연구자나 전문가가 희소하였고 또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만한 주장을 한 것도 대단한 언어학적 인식이라고 생각됨.
- 한국어 및 한글 관련 문화재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어나 한글보다는 영어나 알파벳이 범람하는 시기에, 한국어 및 한글 관련 자료를 문화재를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의의가 있음.
- 따라서 한글 관련 문화재로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희소성 및 보존상태 미흡

○ 출석 9명 / 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국문정리

2.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3. 소유자 : 국립한글박물관

4. 조사자 의견('21.6.30.)

<문화재위원 이해은>

1) 개요

- 이봉운(李鳳雲)이 국문에 관한 주장을 모아 편찬한 국어문법 연구서로 1897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 자료는 이봉운(李鳳雲, 생몰년미상)이 편찬한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서로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 연구서로 평가하고 있음. 저자인 이봉운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본인인 사카이하타로(境益太郎)와 함께 1895년 일본어 학습서인 『단어연어일화조전(單語連語日話朝雋)』를 출판한 바 있음.
- 書末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 이 있어 건양 2년인 1897년 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경성 묘동 국문국’에서 간행한 내용이 있으며 특히 관허 판권으로 ‘관허 판권 소유라 혼 뜻슨 놉이 문든 칙을 혹 스의로 인살하야 미각하면 그 지조를 빼 이 논 도적으로 드스리는 법률이 잇시니 이거시 기명헌 나라에서 선비로 하야곰 서적을 저작하는 권리를 주는 거시라’ 즉 관허 판권 소유라는 것은 남이 만든 책을 사의로 인쇄하여 매각하면 그 재주를 빼는 도둑으로 다스리는 법률이 있으니 이것이 개명한 나라에서 선배로 하여금 서적을 저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판권과 저작권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으로 모두 14장이며 표지에 ‘국國문文정正리理’의 제침이 있으며 권수제와 관심제는 ‘국문정리’임. 광곽은 四周雙變이며 半郭의 크기는 19.0 x 12.2 cm, 계선은 없으며 어미는 上下2葉花紋魚尾이며 책 크기는 24.2 x 15.8 cm 이다. 오침으로 장정되어 있음. 서문 하단에 ‘國文局章’ 인장이 있으나 습해로 인하여 印文이 훼손된 상황이며 권수제면 하단에는 국내 모 서점의 유통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 내용은 우선 서문에서 국문 전용의 중요성과 언문옥편 편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본문에서는 국문의 내력, 자모·장음반절·단음반절·받침·문법론·탁음·어토명목(語吐名目)·새언문규법이 기술되어 있음. 조사와 어미의 활용형인 어토명목은 이봉운을 역관 출신으로 추정하는 역관 문법의 형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구분한 21종의 항목임. 새언문규법(諺文規法)은 이봉운이 만든 새로운 글자로 적었으나 요지는 문자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논설임. 받침과 어토명목 항목에 한자를 병기한 것 외에는 순한글로 작성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자료의 형태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으나 표지와 내지 전반에 습해로 인한 얼룩이 관찰되며 후대에 새로 제책된 冊絲의 붉은 이엽과 낙서가 자료 여러 곳에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한글박물관 수장고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 자료의 특성 및 의미를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유물로서 향후 복제본 제작 및 디지털화 작업을 통하여 전체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을 추천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2012년 서강대학교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이 국가등록문화재 제 528호로 등록된 바 있음. 조사 대상본은 기존 등록된 문화재와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낙장도 없음
- 동일본이 국립중앙박물관, 최용신기념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문과 판권면 낙장)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동경대학 문학부 小倉文庫와 日本東洋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이 자료는 한글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초기 국어 문법서로서 그 가치를 이미 인정 받은바 있음. 그러나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동일 판본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기 등록본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상태 등에서 우월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향후 등록문화재 등록시 자료의 유일성, 희소성, 대표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등록된 동일 유형의 문화재와 비교하여 선본(善本) 여부와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기준 수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한미경>

1) 개요

- 소유자인 국립한글박물관이 2017년 9월 경매 구입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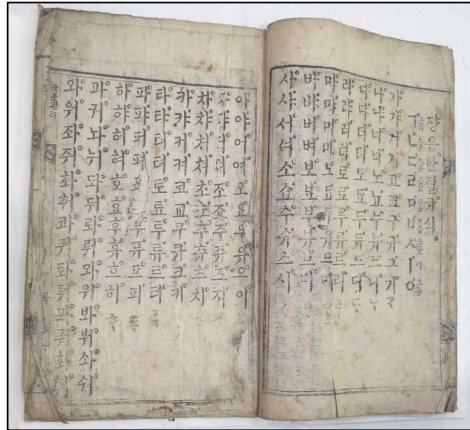
- 이봉운(李鳳雲)이 1897년에 국문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모아 편찬한 논설서임.
- 목판본, 순한글본임. 일부 한자 병기함.
-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으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침으로 ‘국國문文정正리理’이나 탈락되어 있음.
- 권수제는 ‘국문정리’이고, 관심제는 ‘서’임.
- 권말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일 경성묘동 리봉운 저작 검 발행’이라 표기되어 있음.
- 권말에 ‘관허 판권 소유’라는 저작권 표시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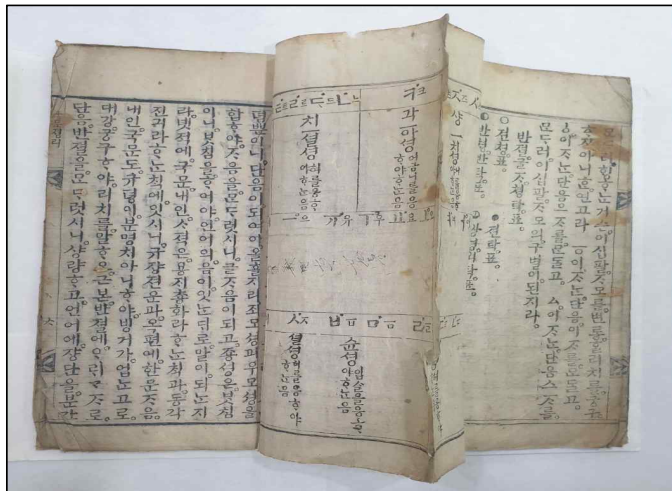
- 제침이 탈락되어 있고, 선장의 홍사 일부가 훼손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장정이 재장정 되었음. 재장정의 사례로 광곽의 크기가 다르고 본문의 책지의 중첩이 일정하지 않음이 보임(<그림 2> 참조).
- 판심부분은 훼손되어 있음(<그림 3>).
- 표지, 본문, 판권기 부분 등에 낙서들이 보임(<그림 1>, <그림 6>, <그림 7> 참조).
- 곰팡이 등 생화학적 훼손이 보임(<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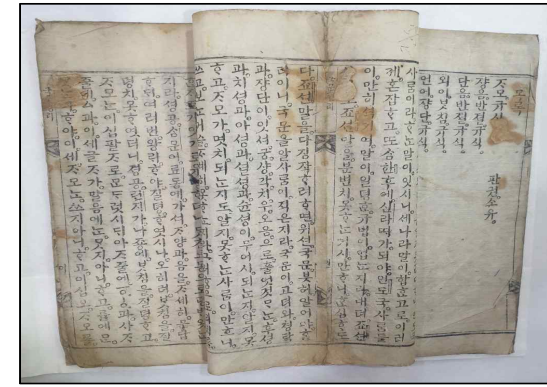
<그림 1> 표지



<그림 2> 본문, 광곽, 판심



<그림 3> 판심



<그림 4> 생물학적 손상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의 보존관리의 여건과 환경은 우수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전시와 연구 및 교육에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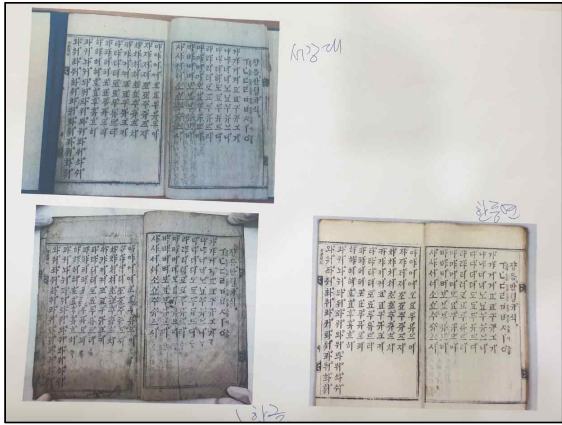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 등록된 서강대 소장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대비 물리적 손상과 훼손 및 생화학적 손상 및 낙서들이 보임(<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참조).
- 국내의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경상국립대 도서관, 가톨릭관동대 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도 소장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 日本東京大學 小倉文庫와 日本東洋文庫에도 소장되어 있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 의하면 일본 동양문고에 3종(VII-4-316, VII-1-72, 청구기호없는 1종)이 소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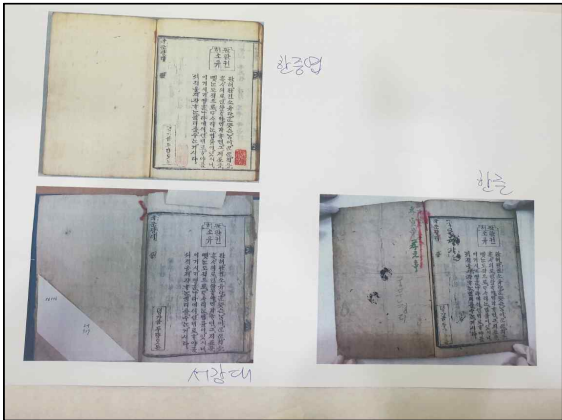


<그림 5> 서강대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본 및 한글박물관본(좌상)의 표지

1) <https://www.nl.go.kr/korcis/search/list.php?query=%EA%B5%AD%EB%AC%B8%EC%A0%95%EB%A6%AC>.



<그림 6> 서강대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본 및 한글박물관본(좌하)의 본문



<그림 7> 서강대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본 및 한글박물관본(우)의 권말



<그림 8> 서강대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본 및 한글박물관본(우)의 권수제면

7) 등록가치의견

-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결과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검토에서 기술한 것처럼 물리적 손상과 재장정 등의 인위적 훼손이 많음.
- 동일 유형의 현진본 또한 다수 존재함.
- 조사대상 <국문정리>의 경우 제첩의 탈락, 홍사의 손상, 재장정, 책지의 중첩 문제, 판심의 훼손, 낙서, 곰팡이 등과 같이 물리적 손상과 훼손 및 생화학적 손상 등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낮음.

<前 연세대학교 교수 홍윤표>

1) 개요

- 이봉운(李鳳雲)이 저술한 한국어 문법 연구서임.
- 우리나라 사람이 편찬한 한국어 문법에 관한 최초의 저술서임.
- 1897년 박문국에서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으로 서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으로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음.
- 장정은 5첩 장정이고 표지에 제첩이 붙어 있는데, 제첩의 책제목은 ‘국문정리’임.
- 제첩의 책제목 ‘국문정리’의 각 음절 아래에 그 음절에 해당하는 한자 ‘國文正理’가 쓰여 있음.
- 제첩의 오른쪽과 아랫쪽에 ‘국문정리’라는 붓글씨가 보이는데, 이것은 후대에 쓴 것임.
- 판심어미는 상하이염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고 판심제는 판심의 상판에 ‘국문정리’로 되어 있음.
- 장차는 한글로 ‘일, 이, 습, 스’ 등으로 한글로 쓰여 있는데, ‘서문’과 ‘목록’이 ‘일, 이’의 2장이고, 본문이 ‘십이’로 끝나는 12장이어서 책 전체는 모두 14장임.
- 유계(有界)에 11행 22자이고 주(註)는 쌍행으로 되어 있음.
- 앞에 저자인 리봉운이 쓴 ‘서문’이 있고, 이어서 ‘목록’이 있으며, 본문은 ‘국문정리’로 시작됨.
- 뒷부분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 경성 묘동 리봉운 저작 겸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국문정리가 1897년에 간행되었으며, 리봉운이 저술한 것으로, 묘동(현재도 종로구 묘동임)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인쇄소(印刷所)(‘刷’는 그 음이 ‘살’도 있음) 대조선 경성 묘동 국문국’이라는 ‘열람’의 뒤에 나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음.
- 그리고 ‘열람’이라고 하여 ‘학부대신 민중목 씨, 협판 민영환 씨, 비서 홍우관 씨, 편집 리경직 씨, 고준 흥정후 씨, 신정우 씨’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책이 학부에서 열람하고 인준한 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책의 마지막에 관허판권지가 있는데, 관허판권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서 판권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음.
- 책의 끝에 ‘국문정리 종’이라는 내용과 ‘덩가 금 두 량 돛 돈’이라는 정가가 쓰여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이 책의 간행 경위를 알 수 있음.
- 그 서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서문

나라 위하기는 려항의 선비나 조정의 공경이나 충심은 혼나지기로 진정을 말하느니 대더 각국 사람은 본국 글을 숭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하여 국정과 민사를 못할 일이 업시 하여 국부민강 하것되는 조선사람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은 아조 리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지라

세종조피옵서 언문을 만든것되는 조고로 국문학교와 선생이 업서 리치와 규범을 가르치며 비호지 못하고 입문 놀너 가 가 거 거 하야 음문 입에 올너 안다하디 음도 분명히 모르니 혼심한지라 금자에 문명 진보하랴 하는 띄요 또 태서 각국 사람과 일청 사람들이 조선에 오면 우선 선생을 구하여 국문을 비호기로 반절 리치를 무르던 디답지 못흔즉 각국 사람들이 말하디 너희 나라 말이 장단이 잇시니 언문에도 그 구별이 잇서야 옳을 거 신디 글과 말이 곳지 못하니 가히 우습도다 하고 멸시하니 그러헌 슈치가 어디 잇시리오 외국 사람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만 슈치가 아니오 전국이 다 슈치가 되니 그러헌 슈치 밋는 거시 통분하고 또 자주 독립의 리치로 말하야도 남의 나라 글만 위주 홀 거시 아니오 또 비유로 말하야도 그 부모는 공경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모양이니 문명의 데일 요긴한 거슨 국문이디 반절 리치를 알 사람이 적기로 리치를 궁구하야 언문 옥편을 문드르 조야에 발행하야 이왕 국문을 안다 하는 사람도 리치와 즈음과 청탁과 고저를 분명히 알아 힘문케 하고 동몽도 교육하면 우리나라 글이 자연 북을 거시오 독립권리와 자주 스무에 데일 요긴한 거시니 여러 군주는 김히 생각 하시기를 바아옵 리봉운 조서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음.

서문

나라 위하기는 여항의 선비나 조정의 공경이나 충심은 한 가지이기로 진정을 말하니 대저 각국 사람은 자기 나라 글을 숭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해서 국정과 민사를 못할 일이 없게 하여 국부민강(國富民強)하건마는 조선 사람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은 아주 이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지라.

세종조께서 언문을 만들었던만 자고로 국문 학교와 선생이 없어 이치와 규범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하고 입만 놀려서 ‘가, 가, 가, 거’하고 음만 입에 올려 안다 하여도 음도 분명히 모르니 한심한지라. 금자에 문명 진보 하는 때이고, 또 서양 각국 사람과 일본과 청 사람들이 조선에 오면 우선 선생을 구하여 국문을 배우기도 반절 이치를 물으면 대답하지 못한 즉 각국 사람들이 말하되, ‘너희 나라 말이 장단이 있으니 언문에도 그 구별이 있어야 옳을 것인데 글과 말이 같지 못하니 가히 우습도다.’하고 멸시하니 그러한 수치가 어디 있으리오. 외국 사람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만 수치가 아니요, 전국이 다 수치가 되니, 그러한 수치를 받는 것이 통분하고 또 자주 독립의 이치로 말하여도 남의 나라 글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비유로 말하여도 그 부모는 공경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모양이니 문명의 제일 요긴한 것은 국문이되, 반절 이치를 알 사람이 적기로 이치를 궁구하여 언문 옥편을 만들어 조야(朝野)에 발행하여 이왕 국문을 안다 하는 사람도 이치와 자음과 청탁과 고저를 분명히 알아 학문하게 하고 어린 아이들도 교육하면 우리나라 글에 자연히 밝아질 것이오, 독립 권리와 자주 사무에 제일 요긴한 것이니 여러 군자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리봉운 자서

-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우리나라 글에 대해서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문명의 가장 요긴하고 독립 권리와 자주 사무에 제일 요긴한 국문의 이치를 밝히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것은 19세기말의 우리나라 언어 문자 사용의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주장으로 간주됨.
- 본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 목록 부분과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교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음.

	목록	본문	비고
1	조모 규칙	조모와 궁상각치우 분음 규칙	차이가 남
2	장음 반절 규칙	장음 반절 규칙	동일
3	단음 반절 규칙	단음 반절 규칙	동일
4	외이 붓침 규칙	1. 외이 붓침하는 규범	‘1’ 추가, 규칙을 규범으로 바꿈
5	언어 장단 규칙	말이 길고 짧은 규칙	우리말로 풀어서 씀
6	문법론	문법론	동일
7	문법 말 규칙	문법 말 규칙	동일
8		속담 규칙	목록에는 없음
9	탁음 규칙	탁음 규칙	동일
10	어토 규칙	어토 명목	‘규식’을 ‘명목’으로 바꿈
11	시 언문 규칙	시 언문 규범	‘규식’을 ‘규범’으로 바꿈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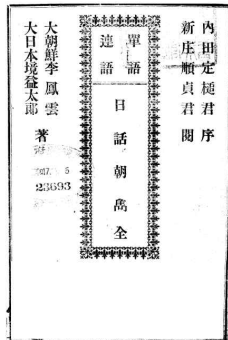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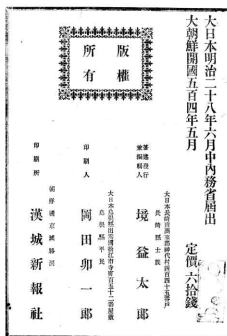
- ① 자모 규칙 : 자모의 분음에 대한 설명임.
 - ② 장음 반절 규칙 : 기존의 반절과 같이 장음이 되는 글자의 초성과 중성을 함께 기록함.
 - ③ 단음 반절 규칙 : 장음 반절 규칙과 같이 초성과 중성을 기술했지만 176자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장단음을 구별하고자 했음.
 - ④ 1. 외이 붓침하는 규범 : 소위 ‘딴이’가 붙은 모음, 즉 ‘피, 귀 뇌, 되’ 등의 모음의 단음을 표시하는 법을 예시하였음.
 - ⑤ 말이 길고 짧은 규칙 : 장단음을 사용하는 한자음의 예를 들었음
 - ⑥ 문법론 : ‘·’의 구별에 대해 언급하였음
 - ⑦ 문법 말 규칙 : ‘·’의 예를 보여주고 있음.
 - ⑧ 속담 규칙 : ‘·’가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어’로 사용되는 예를 들었음.
 - ⑨ 탁음 규칙 : 일본어의 탁음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조선 언문에도 탁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⑩ 어토 규칙 : 의미로 구분한 문법 단위에서 권장하는 문법적 어미 양상을 제시하고 있음.
 - ⑪ 새 언문 규칙 : 문자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국어의 장단음 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주장은 후대에 일반화되지는 않았음.
 - 국문정리의 특징은 형식상 특징과 내용상 특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1) 형식상 특징

- ① 국문정리의 모든 글이 순한글로 쓰이었다는 점임. 19세기말의 국어를 쓰는 문체는 주로 한문구에 한글로 토를 다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으나, 국문정리는 순한글로 쓰인 매우 드문 예임.
- ② 우리말을 표기할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다가 19세기말에 와서 한글 전용이 되면서 문장의 중의성(重義性)이 발생하게 되어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권점으로 띄어쓰는 방식을 택했었음. 15세기의 『용비어천가』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국문정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③ 고유명사 중에서 인명(人名)은 홀줄로, 지명(地名)과 국명(國名)은 겹줄로 표시하였음. 이 방법은 이미 기독교 관련 문헌에서 흔히 쓰던 방식이었는데, 『국문정리』에서도 이 방법을 원용하고 있음.
- ④ 학부대신들이 열람하고 이의 허가를 받아 출판하였다는 점. 이 점은 국정교과서의 초기의 모습으로 보임,

(2) 내용상 특징

- ① 국어에는 장단 고저 청탁의 구별이 있으니 이 구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 ② 기존의 인문반절표의 내용을 '장음반절규식'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단음반절규식' 176자를 만들어 국어에서 장음과 단음을 구별할 것을 강조한 점. 그리하여 '가'(邊)와 '가'(可), '사'(四)와 '사'(私), '찬'(讚)과 '찬'(冷) 등과 같이 장단음을 구별하려고 하였음.
 - ③ 문법론에서 '·'의 구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음. 이 논의는 1907년에 설립된 국문연구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였고,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가 폐지되었음.
 - ④ 그 당시의 국가적 현실에서 문자학습에 힘씀으로써 개화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주장과 의지가 있음.
- 저자인 '리봉운'은 현재까지 생몰연대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성장과정 등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음. 단, 북한의 조선향토대백과 인문정보판에서는 리봉운을 황해남도 연안군 출신의 서북학회 회원으로 기술하고 있음.
- 리봉운(李鳳雲)이 일본인 境益太郎과 공저(共著)로 편찬하여 1895년에 한성신보사(漢城新報社)에서 1책의 연활자본으로 간행한 『단어언어일화조준(單語連語日話朝雋)』이라는 책이 있으나 여기에도 리봉운의 이름만 보일 뿐 리봉운에 대한 다른 정보는 보이지 않음.



○ 위의 저서로 보면 리봉운은 일본어에 정통한 사람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국문정리』는 대체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 표지의 오른쪽과 아랫쪽에 쓰인 '국문정리'라는 낙서를 제외하고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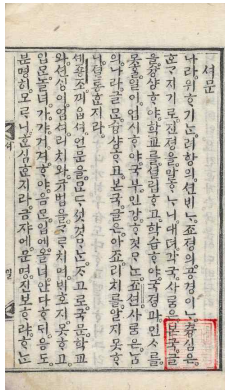
- 국립한글박물관이 국가기관이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도 보존,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철저할 것으로 예상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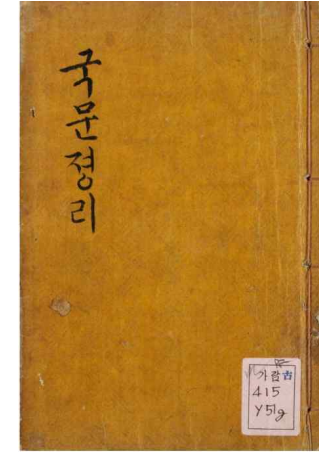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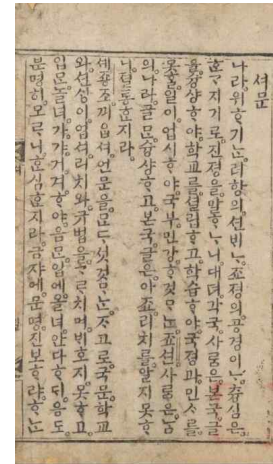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중요 한글 자료의 특성 및 의의를 알리는 자료로서 국문정리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한글의 문자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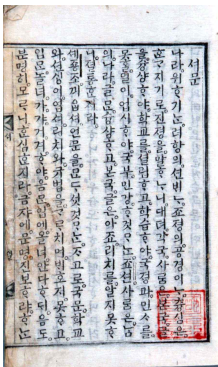
- 국문정리는 현재 몇 책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괄호 안은 청구기호)
 - ① 서강대학교 도서관 (고서 국475) : 국가등록문화재 제528-1호
 -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711.2 이45국) : 국가등록문화재 제528-2호
 - ③ 국립중앙박물관 (구4298)
 - ④ 경희대학교 도서관 (411.01-리45ㄱ)
 - ⑤ 충남대학교 도서관 (子.正音類-163)
 - ⑥ 동국대학교 도서관 (D411-이45ㄱ)
 - ⑦ 경상대학교 도서관 (금산 711 2 리45ㄱ)
 - ⑧ 연세대 학술정보원 (고서(I) 411.12)
 - ⑨ 일본 동양문고 (VII-4-316)
 - ⑩ 일본 소장문고 (AJY000000060)
 - ⑪ 서울대학교 규장각 (가람고 415-Y51g)
-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문정리 중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가람문고본은 동일한 책이면서도 그 편차를 바꾸어 놓은 책이어서 원본의 모습을 훼손한 책임.
-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책 2종과 원본이 훼손된 규장각 소장본을 제외하면, 국내에 8책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그 서영(書影)이 알려진 국문정리의 표지와 서문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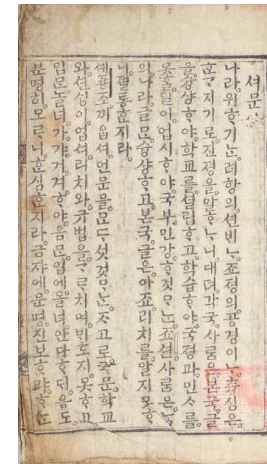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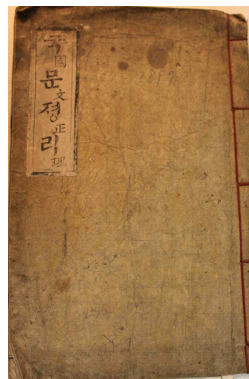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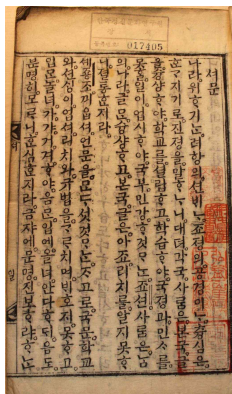
<서울대 가람문고본>



<서강대 소장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위의 서영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이 타 기관 소장본에 비하여 보존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국가 등록문화재 제 528-1호인 서강대학교 도서관과 국가등록문화재 제 528-2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과 비교하여 보아도 차이가 없는 동일 원본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9. 「김지섭 편지 및 봉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독립기념관 소장 「김지섭 편지 및 봉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지섭 편지 및 봉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4.19.)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21.6.22) : **보류**
 - 사유 : 친필로 작성한 편지 4건에 대한 필적 감정 등 보완조사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독립기념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김지섭 편지 및 봉투	4건5점	24.9 × 33.8cm 등	1924년 등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4.19.)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문화재청)
 - ('21.6.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6.22.) : '21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보류
 - 사유 : 친필로 작성한 편지 4건에 대한 필적 감정 등 보완조사 필요
 - ('21.7.13.) : 필적 감정 실시
 - 문화재전문위원 성인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태이 연구관

7) 등록가치의견

- 국가가 외세에 의해 지배당할 때, 자주 독립하고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국어문법서라는 점이 문화사적 가치가 높음.
- 국가적으로 언어와 문자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어문연구자나 전문가가 희소하였고 또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만한 주장을 한 것도 대단한 언어학적 인식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한글 관련 문화재로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
- 한국어 및 한글 관련 문화재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어나 한글보다는 영어나 알파벳이 범람하는 시기에, 한국어 및 한글 관련 자료를 문화재를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의의가 있음.
- 『국문정리』는 현존하는 자료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님.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7년 9월에 화봉경매에서 3천 3백 3십만원에 구입한 것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기존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국문정리』의 '528-1호, 528-2호'에 이어 '528-3호'로 명칭을 붙이면 될 것임.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의열단원 김지섭이 일본 지바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시기(1924~1928)에 아내와 동생에게 보낸 4통의 편지로, **필적감정 등 보완조사 결과**와 판결 언도일을 앞둔 상황(편지1), 아내에 대한 심경(편지2), 투옥된 동지의 안부, 양자(김계후) 및 가족에 대한 염려 등(엽서1, 2)의 **편지내용**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인 김지섭의 내면세계를 비롯하여 옥중에 있으면서 재판, 감옥생활, 심정, 안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친필 편지**라고 판단됨
- 다만, 등록 시 명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김지섭 의사 편지**」 등으로 검토 논의가 필요함.
- *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제3조제1항 :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제2항제3의나호 :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마. 세부목록

명칭(연대순)	조성연대	글자체	서체 및 필기구	특이사항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편지1)	1924.10.31. (봉투없음 추정)	한자거나	해서, 행서, 간체자 세필 농묵/얇은 종이	판결일(28일)이 오는 5일로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조성연대 추정
운야모에게 보낸 편지 (편지2)	1925.3.28. (봉투없음 추정)	한글	-	중재이자 변호사로 면회 온 김완섭으로부터 같이 면회 오고 싶어 했다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의 심경과 제반 가사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내용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엽서1)	1927.5.7.(소인)	한자거나	행서, 초서, 간체자 세필 농묵/따뜻한 양지	불안정한 환경에서 기록 종이를 들고 썼을 가능성 있음 곡선화 경향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엽서2)	1928.1.7.(소인)	한자거나	행서, 초서 탄력 모필	비교적 급하게 작성 직선화 경향

대전근대문화재연구소 소장 김지섭 친필 4편서 / 독립기념관 소장 먹지류 철필로 기재한 부분 필적으로 추정

바.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전문위원 성인근('21.7.13.)
 - 세 서한은 획의 강도, 획의 기울기, 공간의 구성, 필속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자에 대한 인식과 서사자의 서사습관이 유사하게 드러나므로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특히 27년과 28년의 엽서 두 장에서 보이는 주소, 성명 부분에 보이는 서체를 통해 동일인물의 필적이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엽서의 3錢의 가격과 '日本郵便 封緘葉書'를 표시한 붉은 색 인쇄부분과 우체국 소인까지 동일하므로 세 편지 모두 김지섭의 서한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 김지섭은 해서, 행서, 초서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서체에 대한 식견이 있었으며, 특히 초서 부분에서 속기가 없는 법도 있는 서법을 구사하고 있음.
- '1925년 김지섭이 운야모에게 보낸 서한'은 김지섭의 다른 한글자료 대조군이 없어 서체분석이 불가하며, 서한의 내용 등 인문학적 분석과 지질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원 강태이('21.7.13.)

- 감정자료 및 대조자료의 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된 자료 내에서 한자를 기준으로 동일 한자 또는 동일 자획(부수 등)의 필적의 특징을 추출 분석한 결과, 기재습성에서 일부 유사점이 관찰되나, 사용된 언어, 필기구 및 필법 등의 기재조건에서 지나치게 차이점이 있어, 동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필적 동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 편지 서두의 호칭 부분("雲也母氏")을 제외한 여타 부분 모두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할 동일 문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조건에서도 현저한 상이점이 있는 등 개인 필적의 희소성 있는 특징 및 필기시 기재조건에 따른 변화 범위 등의 개인 필적의 특징 등을 감정하기 곤란함.

○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범('21.6.9.)

- 의열단에 가입하여 1924년 1월 5일 일본 왕궁 입구의 이종교에서 수류탄 3발을 투척한 독립운동가 김지섭 관련 유물들임.
- 김지섭이 옥중에서 직접 작성하여 보낸 편지 4건은 일제 강점기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의열투쟁에 나섰던 대표적 투사의 진솔한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면의 언행중심으로 서술되어 그의 인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등록가치가 있음.

○ 안동대학교 교수 강윤정('21.6.9.)

-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해당 자료들은 1924년 1월 5일 이종교 투탄 의거를 진행하였다가 순국한 김지섭과 관련된 유물임.
- 김지섭 작성 편지 4건은 김지섭이 옥중에서 직접 작성한 친필 자료로 사료되며, 내용 또한 의열투쟁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음. 편지 중 「운야모(雲也母,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김지섭의 유일한 한글필체로 대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4건 모두 일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한미경('21.6.9.)

- 김지섭 옥중 편지 4건은 1924년 투옥이후 1928년에 이르기까지의 편지로, 운야모와 동생 김희섭에게 옥중에 있으면서의 재판, 감옥 생활, 심정, 안부 등을 쓴 편지임. 해당 유물은 후대가 귀하게 보존해 온 독립운동가 김지섭의 옥중 편지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김지섭 의사 편지」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6명, 부결 2명, 기권 1명

<붙임1>

필적 감정 의견서

1. 명 칭 : 김지섭 편지 및 봉투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필적감정 조사 일시: '21.7.13.

<문화재전문위원 성인근>

해당 자료는 1924~1928년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 세 통임. 여기서는 세 통 편지의 서체분석을 통해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자료1.

- '1924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은 총 2장으로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여 일본어로 썼음. 하단이 비치는 얇은 종이에 세필로 농묵을 찍어 썼음. 서체는 한자의 경우 해서와 행서 위주로 쓰였고, 간혹 간체자를 혼용하였음. 봉투는 없음.

1924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1-1



1924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1-2



2) 자료2.

- '1927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은 총 1장의 종이에 앞뒷면을 활용해 서사하였음.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여 일본어로 썼음. 미끄러운 양지에 세필로 먹을 찍어 썼음. 서체는 한자의 경우 해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고, 간혹 간체자를 혼용하였음. 가로로 긴 엽서를 세 번 접었으며 마지막 면을 활용해 주소와 성명을 써 봉투로 삼았음.
- 글씨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쓰인 듯함. 책상 위에 정상적으로 놓고 쓴 글씨가 아닌 종이를 들고 썼을 가능성이 있음. 김지섭 특유의 필체를 보이지만 전반적 획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직선보다는 곡선화 경향이 강함. 다른 24년, 28년 서한에 비해 낱글자에 초서체가 흔히 쓰인 특징이 있음. 또한 다른 서한에 비해 선의 강도가 적어 비교적 부드러운 붓을 쓴 것으로 보이며, 먹색 또한 묽어 담묵을 사용한 글씨임.

1927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1-2



1927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1-2



3) 자료3.

- '1928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은 총 1장의 종이에 앞뒷면을 활용해 서사하였음.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여 일본어로 썼음. 미끄러운 양지에 세필로 먹을 찍어 썼음. 서체는 한자의 경우 행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고, 간혹 간체자를 혼용하였음. 가로로 긴 엽서를 세 번 접었으며 마지막 면을 활용해 주소와 성명을 써 봉투로 삼았음.
- 글씨는 김지섭 특유의 필체를 보이지만 전반적 획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곡선보다는 직선화 경향이 강함. 다른 24년, 27년 서한에 비해 선질이 강하여 탄력 있는 모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획의 속도감이 강하게 드러남.

1928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1



1928년 김희섭에게 보낸 서한-2



4) 서체분석 의견

- 세 통의 서한에서 단독글자와 연속글자를 추출하여 서체분석을 실시하였음. (서체 분석 자료는 아래의 《별표: 편지자료별 단독글자·연속글자 비교표》 참조)
- 단독글자는 家·本·御·書·處·驚·度·其 등 세 서한에 공통적으로 쓰인 글자를 위주로 추출하였음. 24년 서한은 주로 해서와 행서 위주로 쓰였고, 간혹 초서나 간체자가 드러남. 27년 서한은 담묵으로 행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음. 28년 서한은 농묵으로 행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으며 다른 두 서한에 비해 획의 강도와 속도감이 드러나고 있음.
- 세 서한은 해서, 행서, 초서 등 서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27년 서한은 획의 곡선화 경향이 두드러짐. 서사한 종이, 먹의 농도, 붓의 탄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 서한의 기본적인 문자인식과 서사습관에서 공통성을 띄고 있음.
- 연속글자는 日本·手紙·兄弟·一體·親戚·幾何·出來·苦痛·自身·丈夫·餘 "後便 등 세 서한에 공통적으로 쓰인 사례를 추출하였음. 낱글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24년 서한은 해서와 행서를 주로 썼고 간혹 초서나 간체자가 드러남. 27년 서한은 행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고, 다른 두 서한에 비해 선의 기울기,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이 일정치 않은 특징이 있음. 앞에서도 밝혔듯 서한을 쓴 당시 환경과 관련한 것으로 보임. 1928년 서한은 행서와 초서 위주로 쓰였으며 다른 두 서한에 비해 필속이 빨라 비교적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세 서한은 획의 강도, 획의 기울기, 공간의 구성, 필속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자에 대한 인식과 서사자의 서사습관이 유사하게 드러나므로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특히 27년과 28년의 엽서 두 장에서 보이는 주소, 성명 부분에 보이는 서체를 통해 동일인물의 필적이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엽서의 3錢의 가격과 '日本郵便 封緘葉書'를 표시한 붉은 색 인쇄부분과 우체국 소인까지 동일하므로 세 편지 모두 김지섭의 서한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김지섭은 해서, 행서, 초서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서체에 대한 식견이 있었으며, 특히 초서 부분에서 속기가 없는 법도 있는 서법을 구사하고 있음.
- '1925년 김지섭이 윤야모에게 보낸 서한'은 김지섭의 다른 한글자료 대조군이 없어 서체분석이 불가하며, 서한의 내용 등 인문학적 분석과 지질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별표: 편지자료별 단독글자·연속글자 비교표》

단독 글자 비교표-1

연대	家	本	御	書	處	驚
1924년						
1927년						
1928년						

<연속 글자 비교표-1>

<연속 글자 비교표-2>

<연속 글자 비교표-3>

연대	日本	手紙	兄弟	一體	親戚(親族)	幾(何)	出來	苦痛	自身	丈夫	餘(後便)
1924년											
1927년											
1928년											

주소성명 부분 글씨 비교

연대	朝鮮	大邱府	金禧燮	주소	우체국 소인 부분
1927년					
192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원 강태이>

- 1) 감정물 : 가. 감정자료 : 순번 1~4번.
나. 대조자료 : 순번 5번.
- 2) 감정사항 :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필적의 동일 여부.
- 3) 시험방법 : 문자구성과 배자, 방향과 각도, 자획의 간격과 위치, 필순, 곡획과 굴절 및 숙련 상태에 따른 기재습성 등의 외관 검사 및 기필과 종필 부분, 필압과 필세, 필적의 변화상태에 따른 자·모음의 특성 등의 검사.
- 4) 시험 고찰 :
 - 가) 감정자료 중 순번 1번은 1924년에 작성된 편지로, 붙임사진 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며,
 - 나) 순번 2,3번은 붙임사진 2,3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927년 및 1928년에 작성된 엽서로, 동 순번 2,3번 두 필적 모두 엽서 겹면 및 안쪽면에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고, 엽서 겹면에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와 같이, “金禧燮” 성명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祉”의 일부 자획이 미상의 원인으로 지워진 흔적이 관찰됨.

다) 한편, 감정자료 중 순번 4번은 1925년에 한글로 작성된 기재된 편지로 붙임사진 4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의 서두 호칭 부분(“雲也母氏”)을 제외한 여타 부분은 모두 한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특징이 관찰됨.

라) 대조자료인 순번 5번은 김지섭의사의 이력서로 붙임사진 5~9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해진 서식 내에 세로쓰기 방법으로 한자가 비교적 정자체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며, 동 이력서에 기재된 필적의 필기구잉크 특성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적 일부를 확대 검사한 결과, 붙임사진 10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기구잉크로 직접 기재된 필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종이 표면 필기구잉크의 번짐이나, 필기구잉크 농담(濃淡)이 관찰되지 않고, 농담(濃淡) 없는 흑색 색재가 종이표면에 묻어있는 등 종이에 필기구잉크로 직접 기재된 필적이 아닌, 한번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을 두 벌 이상 기재할 때 관찰되는 먹지류에 첩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 부분 필적 특징이 관찰됨.

마) 감정자료 순번 1~3번 필적 및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

- ① 감정자료 순번 1번과 순번 2,3호는 각각 편지와 엽서 형식의 필적으로 붙임사진 11호 적색 및 청색표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1번(1924년 편지)에서는 문장의 마침을 공백(띄어쓰기)으로 표시된 반면, 순번 2,3번(1927년 및 1928년 엽서)에서는 문장 끝 부분에 세로쓰기에 사용되는 마침표인 고리점을 사용한 특징이 관찰되는 등 기재 형식의 차이점이 관찰되나, 동 고리점의 사용 유무의 차이점이, 상이한 필적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인지 또는 동일 필적에서 관찰될 수 있는 기재조건에 변화범위인지는 동 자료들의 작성 정보가 없어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 ② 대조자료인 순번 5번 이력서 필적은 라.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해진 서식 내에 한자를 비교적 정자체로 먹지류에 첩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된 필적으로 추정되는 반면, 감정자료 중 순번 1~3번에 기재된 필적은 가. 및 나.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를 정해진 서식이 없는 종이에 상대적으로 흘림체에 가깝게 기재된 필적으로, 붓과 먹물류를 이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된 언어, 필기구 및 필법 등의 기재조건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관찰됨.
- ③ 대조자료 순번 5번 및 감정자료 순번 1~3번에 기재된 필적 중 동일 한자(“安”및“事”)에 대한 비교 검사 예시 사진은 붙임사진 12,13호와 같으며, 동 붙임사진 청색 및 적색표시와 같이, 대조자료와 감정자료의 동일 한자에 대한 필법이 정서체 및 흘림체로 상대적으로 상이하게 관찰되는 등 개인 필적의 희소성 있는 특징 및 필기시 기재조건에 따른 변화 범위 등을 분석할 자료로 부합하지 않으나,
- ④ 제시된 자료 내에서 한자를 기준으로 동일 한자 또는 동일 자획(부수 등)의 필적 특징을 추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사점이 관찰됨(붙임사진 14호~42호 적색표시 참조).

- 아 래 -

비교 필적 부분	특징 유사점 부분	비고
“木”, “休”	- “木”에 대한 독특한 구성형태	붙임사진 14~42호 (적색표시 참조)
“書”	- “書” 중 “日”에 대한 구성형태	

비교 필적 부분	특징 유사점 부분	비고
“通”, “達”, “過”, “隨”, “這”, “遺”, “送”, “逝”, “迎”, “導”, “連”, “返”, “邊”,	- 책받침(“乚”)을 단순한 획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습성	
“相”, “樣”, “校”, “柄”, “極”, “檢”	- 나무목변(“木”) 4획을 생략하여 기재하는 습성	
“補”, “神”, “社”, “祖”,	- 옷의변(“衤”) 또는 보일시변(“衤”) 오른쪽 파임 획을 생략하여 기재하는 습성	
“無”, “無”	- “無”에 대한 독특한 구성형태	
“無”, “熟”, “焦”	- 연화발(“灬”)의 을 단순하게 변경하여 기재하는 습성	
“期”, “其”	- “其”에 대한 획을 단순하게 변경하여 기재하는 습성 및 구성형태	
“事”	- 5·7획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습성	
“譯”	- “尺”에 대한 구성형태	
“判”	- 1,2획을 연결하여 기재하는 습성	
“地”	- 구성형태	

⑤ 한편, 감정자료 순번 1~3번 자료 내에서 한자를 기준으로 동일 한자 또는 동일 자획(부수 등)의 필적의 유사점을 추출한 결과는 붙임사진 43호~54호 적색표시 부분임.

바) 감정자료 순번 4번 필적 및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

감정자료 순번 4번 필적은 먹물류와 붓을 이용하여 기재된 필적으로, 편지 서두의 호칭 부분(“雲也母氏”)을 제외한 여타 부분 모두 한글로 기재된 반면,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은 먹지류에 첩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 부분 필적으로 모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할 동일 문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조건에서도 현저한 상이점이 있는 등 개인 필적의 희소성 있는 특징 및 필기시 기재조건에 따른 변화 범위 등의 개인 필적의 특징 등을 감정하기 곤란함.

붙임사진 54매 참조. 『붙임 사진은 설명 등을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것임』

5) 감정결과 :

가) 감정자료 순번 1~3번 필적 및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

① 감정자료 순번 1번 1924년에 작성된 편지 및 순번 2,3번 각각 1927년 및 1928년에 작성된 엽서 모두는 한자와 가타가나를 함께 사용된 일본어로 기재된 필적인 반면, 대조자료 순번 5번 김지섭의사의 이력서는 정해진 서식 내에 한자로만 기재된 필적으로 사용된 언어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 ② 동 감정자료 순번 13번은 비교적 흘림체로 붓과 먹물류(추정)를 이용하여 직접 기재된 필적인 반면,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은 정서체로 필기구잉크 및 먹물류 등을 이용하여 직접 기재된 필적이 아닌, 한번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을 두 번 이상 기재할 때 관찰되는 먹지류에 첩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 **부분** 필적 특징이 관찰되는 등 필기구 및 필법 등의 기재조건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관찰됨.
- ③ 동 감정자료 및 대조자료 필적에서 기재조건인 현저한 차이점이 관찰되나, 감정자료 및 대조자료의 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된 자료 내에서 한자를 기준으로 동일 한자 또는 동일 자획(부수 등)의 필적의 특징을 추출 분석한 결과, 기재습성에서 일부 유사점이 관찰되나, 가.1) 및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된 언어, 필기구 및 필법 등의 기재조건에서 지나치게 차이점이 있어, 동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필적 동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나) 감정자료 순번 4번 필적 및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

- 감정자료 순번 4번 필적은 먹물류와 붓을 이용하여 기재된 필적으로, 편지 서두의 호칭 부분(“雲也母氏”)을 제외한 여타 부분 모두 한글로 기재된 반면, 대조자료 순번 5번 필적은 먹지류에 첩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 부분 필적으로 모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할 동일 문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조건에서도 현저한 상이점이 있는 등 개인 필적의 희소성 있는 특징 및 필기시 기재조건에 따른 변화 범위 등의 개인 필적의 특징 등을 감정하기 곤란함.

※ 필적 감정 분석표는 <붙임3> 참조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김지섭 편지 및 봉투
-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 4. 조사자 의견('21.6.9.)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범>

1) 현황

- 현상 :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 양호하며, 글씨가 선명하여 전문 판독 가능함.

2) 내용 및 특징

- 1884년 경상북도 안동군 오미동(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에서 태어난 김지섭은 1907년부터 1913년까지 보통학교 교원과 재판소 통역생(검 서기 직)을 역임하고 1919년경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함. 거기서 고려공산당과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일본 도쿄에서의 투탄거사 감행을 결심하고 1923년 12월에 승선 도일하여 1924년 1월 5일 일본 황궁 입구의 니주바시(二重橋)에서 수류탄 3발 투척의 의거를 결행하였음.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1924년 11월 6일의 1심 판결과 1925년 8월 12일의 항소심 판결에서 공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이에 변호사가 상고하였으나 본인은 1심 구형대로의 사형 언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고를 스스로 취하하고 치바(千葉)형무소에서 수형 옥고를 겪던 중에 1928년 2월 20일 돌연사로 순국함.
- 여기서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할 친필 편지들은 김지섭의 옥중편지 전부가 아니라 부인으로 추정되는 ‘운야모씨(雲也某氏)’에게 보낸 것 1통과 동생 김희섭(金禧燮)에게 보낸 것 3통으로 일단 국한시켜서임.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김지섭이 운야모씨에게 보낸 편지

- 실물 외양 : 수량 1장, 규격 24.0×83.4 cm, 목필, 순한글 중서. 봉투는 없음.
- 형식 : 1925년 3월 념[念]팔일(=28일), 지바형무소에서 김지섭이 ‘운야 모’로 지칭하는 여성에게 붓글씨로 써 보낸 ‘하오’체의 편지임.
- 석장의 백지를 같은 재질의 띠지 2개 위에 대고 풀로 맞붙여 장방형의 긴 편지지로 만든 다음에 붓으로 써내려간 것임. 장기보관 중에 접힌 부위를 따라 절단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붙였을 것으로 보이는 스카치테이프가 말라 떨어져 나온 자국이 누렇게 세 줄 남아있음.



<사진 1. 김지섭이 '운야모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 2.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1의 겉면과 마지막 면>

- 내용 : “雲也母氏 살피시암”이라고 제(題)하고, 면회 온 종제(從弟)인 변호사 김완섭(金完燮)으로부터 ‘형수’가 같이 오고 싶어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의 심정을 절절히 표하면서도, 오려면 비용과 교통편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보아도 허무하지만 할 테니 면회 올 생각은 절대 말고 앞으로의 제반 가사만 잘 챙겨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음. 편지 끝의 ‘가부서’는 ‘家夫 書’의 한 글음인 것으로 추정됨.
- 그러므로 이 편지는 김지섭이 고향의 부인 권석희(權錫禧)에게 보낸 것임이 분명하며, ‘운야’가 양자 김재휴(金在休)의 아명이었음(1924년 5월 7일에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편, 『추강 김지섭』, 2014, 310쪽 참조)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함. 김지섭의 유작 중에 유일의 순 한글 문서이게 된 이 편지는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대표적 의열투사의 인간적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서간문의 백미(白眉)라 할 것임.
- 이 편지를 포함한 김지섭의 유작·유품들은 모두 아우 김희섭(金禧燮)이 정리해두고 발간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과 더불어 원자료 수집이 진행되던 중인 1983년에 김희섭의 친생자이면서 김지섭의 양자인 김재휴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영구보관 및 전시를 조건부로 기증함으로써 이 편지도 독립기념관 소장품이 되었음.

②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1

- 실물 외양 : 수량 1장(접어서 6면이고 그 중 1면은 공백). 규격 26.6×12.4cm. 가는 목필의 일문(日文) 중서.
- 수신처 : 朝鮮 大邱府 辯護士 金完燮方 金禧燮君
- 발신처 : 日本 千葉市外 貝塚 192[=지바형무소의 주소인 듯] 金祉燮
- 제작시점 : 겉면 소인(消印)에서 1927년임이 확인되고, 엽서 본문의 말미에 ‘5월 5일’이라고 적혀있음.
- 내용 : 친동생 김희섭에게 써보낸 엽서인바, 자주 편지 보내주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이어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존평, 동향인이고 절친 동지이던 김시현(金始顯)의 투옥 중 안부 걱정과 이감(移監)에 대한 조언, 몇몇 친척들의 근간 소식에 대한 소감 등을 피력한 후, 본인의 상황을 전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집사람’(즉 부인)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음. 동향 친척이면서 조선공산당 비서이던 김재봉(金在鳳)의 피체에 관한 소식도 알고 싶다고 했으며, 양자인 재휴의 필적을 보고프니 습자장(習字帳) 한 장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여 애뜻한 부정(父情)을 드러냈음.

③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2

- 실물 외양 : 수량 1장(접어서 6면이고 그 중 1면은 공백). 규격 12.0×32.8cm. 목필의 일문 중서
- 수신처·발신처 : 앞서의 ‘봉합엽서 1’과 동일
- 제작시점 : 본문 말미에 ‘무진(戊辰) 원단(元旦)’이라는 말이 있고 겉면 소인(消印)에서도 1928년임이 확인됨. 날짜는 엽서 마지막 면에 ‘1월 7일’로 크게 적혔음.
- 내용 : 동생 김희섭 및 그 가족과 ‘관사 숙부’에 대한 신년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 가계지출을 줄일 것을 조언하며, 김시현의 이감과 김명특(金命特)이 면회 온 사실 및 처남 권기하(權奇夏)의 별세 소식에 대한 소감을 차례로 피력함. 이어서 음력 설날에 아들 재휴를 데리고 찍은 사진에 아들의 글씨로 ‘무진 원단 촬영’이라고 적어서 우송해줄 것을 신신당부하여, 양자에 대해 갖는 애뜻한 부정(父情)을 전년도의 필적 송부 요청에 이어 다시금 진솔하게 드러냄.



<사진 3.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2의 겉면과 마지막 면>

④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 실물 외양 : 수량 2장, 규격 24.6×33.5cm, 목필의 일문 중서. 봉투 없음.
- 수·발신처 : 봉투가 없어서 확인 불능임
- 제작시점 : 편지 본문 말미에 ‘10월 31일’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연도는 적지 않았고, 봉투가 없어서 소인으로 연도가 확인되지도 않음. 그러나 본문에서 “지난 28일이 판결 연도일이었는데 오는 5일로 바뀌었다고 하니”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피체 후 10개월이 지났고 1심 판결일(1924.11.6.) 1주일 전이던 1924년 10월 31일에 작성된 것임이 확실시됨.



<사진 4.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의 앞장>

<사진 5.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의 뒷장>

- 내용 : 한자와 일본어 가나(かな)를 섞어 쓰는 것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라고 하여, 서신검열을 위한 형무소 규칙이 그러함을 암시함. 수신자인 김희섭이 먼저 보냈던 엽서에 (아마도 형이 걱정할까 봐) 집안 소식이 전혀 없었음을 질책하고, 면회 오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비용과 영치금을 마련하느라 여러 경제적 손실과 위신 실추가 따를 것을 염려하며 단단히 경계하고 극구 만류함. 덧붙여, 형이 거사한 취지와 품었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에 대해 서운한 심정도 같이 피력하면서 구형(즉 사형) 그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강경하게 표하고 있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결코 슬프고 애처로운 문구는 편지에 쓰지 말게”고 당부도 하고 있음. 김지섭의 평소 성품과 옥중의 투지 및 내심의 결의를 넉넉히 엿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서한문임.

3) 문헌자료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편, 『추장 김지섭』, 2014.
- 김용달, 『일왕 궁성을 겨눈 민족혼, 추장 김지섭』, 지식산업사, 2011.

4) 기타 참고사항

- 편지와 엽서를 포함하여 김지섭의 유작·유품들은 모두 아우 김희섭이 거두어 정리해두었고 발간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과 더불어 원자료 수집이 진행되던 중인 1983년에 김희섭의 친생자이면서 김지섭의 양자인 김재휴(金在休)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영구보관 및 전시를 조건부로 기증하였음. 그때 위의 편지와 엽서들도 같이 기증되어 독립기념관 소장품이 되었고, 상설전시관 전시와 더불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도 되었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지섭의 옥중서신 가운데 여기서 검토된 4건은 특히 부인과 동생에게 보낸 것들 중의 일부인데, 일제 강점기의 민족독립운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전개된 의열투쟁에 나섰던 대표적 투사의 진솔한 내면세계를 유작 시문집인 《아관》 이상으로 절절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 그러므로 이들 문서는 외면의 언행 중심으로 서술·이해되어 온 독립운동사의 다른 한 면을 보충해주면서 독립운동가의 인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자료임. 그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고, 유일 원본으로서 희소성이 있으며, 원형도 잘 유지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동대학교 교수 강윤정>

1) 현상 : 대체로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

-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지섭의 옥중 친필 편지」 총 4건임. 3건은 아우인 김희섭에 보낸 편지이며, 1건은 운야모(雲也母, 부인)에게 보낸 편지임

제 목	작성년도	작성일자	규격(가로*세로)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1	1927년	5월 5일	27.5*12.5cm
김지섭이 雲也母氏에게 보낸 편지	1925년	3월 28일	83.4*24cm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봉합엽서 2	1928년	1월 7일	41.7*12cm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1924년	10월 31일	33.5*34.5cm

①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1

-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족제(族弟) 김완섭(金完燮) 집에 있는 동생 김희섭(金禧燮)에게 보낸 편지임. 작성 연도는 봉투 소인에 「2」가 찍힌 것으로 보아 1927년(소화2년)임. 편지를 작성한 날짜는 편지 내용 끝 부분에 5월 5일로 되어 있음. 즉 이 편지는 1927년 5월 5일 김지섭이 치바(千葉) 형무소에서 작성한 것임.
- 편지의 내용은 집안 아이들의 교육과 상사(喪事) 등 일상사도 있지만, 특히 독립운동가 김시현·김재봉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 또한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내용과 양아들 재휴(在休, 1916년생, 당시 12세)의 필적이 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김지섭의 옥중 심경을 보여주는 자료임.

② 김지섭이 雲也 母에게 보낸 편지

- 김지섭이 옥중에서 운야모(雲也母, 부인)에게 보낸 편지임. 보낸 날짜는 편지의 끝부분에 「을축 양력 삼월 념팔일」로 기록되어 있어, 1925년 3월 28일에 쓴 것으로 확인됨.
- 편지 수신자인 운야 어머니는 김지섭의 부인 안동권씨 권석희(權錫禧)로 보임. 편지 내용 중에 집안 족제인 완섭(完燮, 1898~1975)이 자신을 면회하면서 『형수씨가 같이 오시겠다고 편지를 하셨으나, 형편상 부득이하여 잠자코 왔습니다.』라고 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형수씨’는 김지섭의 부인으로 짐작된다. 또한 편지에는 「40평생 수구부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부인 권석희(1881~1972)는 44세였음. 아들 재휴(在休)의 아명이 ‘雲’으로 확인 되어, 운야 모는 김지섭의 부인으로 확인됨.
- 「雲也母氏 살피시암」이라고 제목으로 시작하여, 일본어로 김지섭을 면회 오려는 부인을 만류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옥중에서 쓴 한글 편지로 자료적 가치가 있음.

③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봉합엽서 2

-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임. 편지 작성 날짜는 봉투에 1월 7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작성 연도는 기록이 없음. 다만 편지 내용 끝부분에 재휴(在休)의 사진을 요청하면서 「무진원단촬영」이라고 써서 보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무진년 즉 1928년의 편지로 사료됨. 재휴(1916년생, 당시 12세, 생부 김희섭)는 그의 양아들임.

- 이 편지에는 김지섭의 건강 상태와 독립운동가 김시현이 대우로 이감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양아들을 그리워하는 심경이 잘 드러남. 특히 김지섭이 1928년 2월 20일 치마행무소에서 순국하기 40일 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④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 김지섭이 옥중에서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임. 편지 작성 날짜는 10월 31일 로 기록되어 있으나, 작성 연도는 기록이 없음. 「지난 28일이 언도 날이었지만, 오는 5일로 바뀌었다」는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1924년으로 사료됨. 그 근거는 1924년 10월 16일 제3회 공판이 있었고, 이어 1924년 11월 6일 도쿄지방법관소에서 무기징역이 언도되었기 때문임. 날짜가 김지섭이 기록한 5일이 아닌 6일로 하루 차이가 있지만, 1924년으로 보기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또 한 가지 근거는 편지 글에 「요전 9월 10일자로 생각되는데 규섭(奎燮)씨에게 편지를 올렸으나 도착하지 않았는지 전혀 답장이 없다」는 내용이 있음. 현재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는 김지섭이 김규섭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 1건이 확인되는데, 소인이 대정13년으로 찍혀 있음. 이를 근거로 이 편지는 1924년 10월 31일에 작성한 것임. 즉 3차 공판이 끝나고 판결 언도가 나기 전에 쓴 것임
- 일본으로 면회 오려는 동생을 심하게 꾸짖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과 더불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태연하게 있어달라고 당부를 부탁하는 의사(義士)의 면모를 보여줌. 또한 1924년 니주바시 의거를 단행한 당해 연도의 김지섭을 둘러싼 주변의 염려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자료임.

3) 문헌자료

- 김재휴, 『秋岡遺稿』, 1984.
- 김용달, 『일왕 궁성을 겨누는 민족혼』(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6), 지식산업사, 2011; 『김지섭 - 살신성인의 길을 간 의열투쟁가』, 역사공간, 2017.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6 - 추강 김지섭』, 2014.
- 국가보훈처, 공훈록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1924년 1월 5일 이종교 투탄 의거를 시도했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김지섭과 관련된 유물임
- 김지섭이 옥중에서 직접 작성한 친필 자료로 사료되며, 내용 또한 의열투쟁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음
- 편지 중 「운야모(雲也母,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김지섭의 유일한 한글필체로 대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4건 모두 일괄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하여 관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한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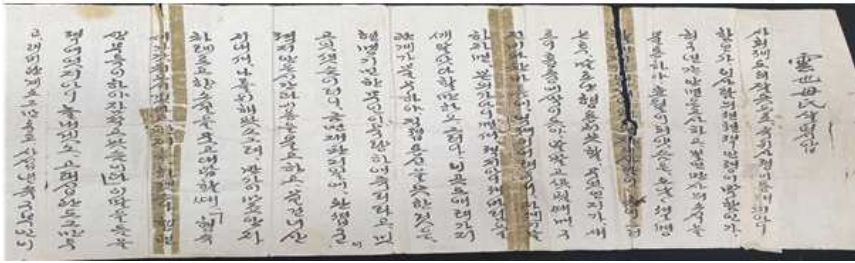
1) 현상

-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 절첩한 부분이 탈락되어 후대에 의하여 테이프로 붙여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떨어져 나간 흔적이 세군데 있어 이에 대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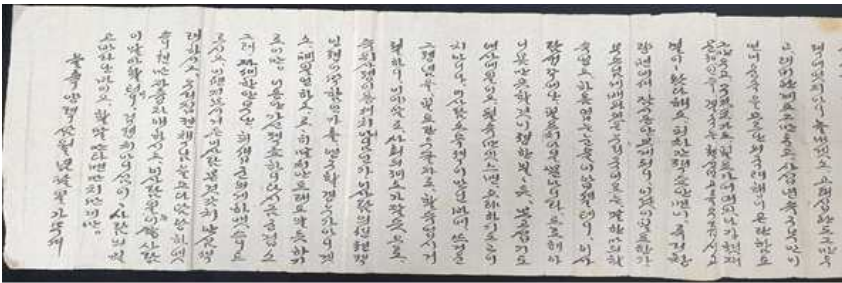
- 김지섭이 1927년에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 1장을 3면(앞 뒤 총 6면)으로 절첩하고 있으나 그중 1면이 분리되어 이에 대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그림 3〉, 〈그림 4〉 참고).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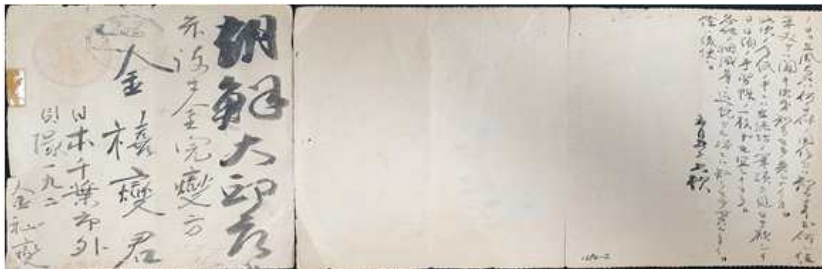
- 김지섭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임. 1884년 7월 21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928년 2월 20일에 순국하였음. 본관 풍산(豊山), 자 위경(衛卿). 호 추강(秋岡)임.
- 김지섭은 상주보통학교 교원을 거쳐 금산지방법원 서기, 김응섭(金應燮)법률사무소 상주출장소원을 지냈음. 1919년 3·1운동 때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약하다가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음. 주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음.
- 1924년 일본의 국회인 제국의회(帝國議會, 데이코쿠기카이)에 참석하는 일본고관들을 저격하고자 도쿄(東京)에 잠입하였으나 제국의회가 휴회 및 무기한 연기되었음. 이에 계획을 변경하여 1월 5일 일본 궁성(宮城)의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 3개를 투척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었음. 이후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8년 2월 20일에 옥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동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에 기사가 실렸음. 김지섭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 이는 김지섭의 옥중 친필 편지로서 1) 1925년 3월 28일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 2) 1927년 5월 5일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3) 1928년 1월 7일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4) 년도 미상(1924년 추정), 10월 31일에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로 구성되어 있음. 주로 재판과 감옥생활 및 심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가)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는 '을축(乙丑, 1925년)'으로 편지 작성년이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음(〈그림 1〉, 〈그림 2〉 참고).
 - 나)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는 절첩 형태로 1927년 5월 5일의 편지임. 이는 직인이 찍혀있어 판매되던 형식화된 엽서임을 알 수 있고, 소화(昭和) 2년의 발송 소인과 편지 끝의 기록으로 엽서 작성 년도와 날짜를 알 수 있음(〈그림 3〉, 〈그림 4〉 참고). 내용은 일어로 작성되어 있음
 - 다)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는 절첩형태로 뚜껑이 있음. 1928년 1월 7일의 편지임. 이는 직인이 찍혀있어 판매되던 형식화된 편지임을 알 수 있고, 발송 소인과 편지 끝의 '무진(戊辰)'과 날짜 기록으로 엽서 작성 년도와 날짜를 알 수 있음(〈그림 5〉, 〈그림 6〉 참고). 내용은 일어로 작성되어 있음.
 - 라) 연도 미상으로 10월 31일의 김지섭이 동생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로 반첩하여 2장 4면임(〈그림 7〉, 〈그림 8〉 참고). 내용은 일어로 작성되어 있음. 이 편지는 이상의 두 편지와 같이 동행 김희섭에게 보내는 것이며, 편지말미에 10월 31일로 기록하고 있음. 특히 년도는 미상이나 편지 날짜가 10월 31일이며, 김지섭이 1928년 2월 20일에 옥중 순국한 것으로 미루어 늦어도 1927년에 쓰여진 편지로 추정됨. 그러나 실제 편지의 내용과 관련 사건의 전개에 따른 기사를 살펴보면 1924년으로 판단 가능함. 구체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음.
 - (i) “지난 28일 이 판결 언도 날이었지만 오는 5일로 바뀌었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처신을 편지로 말할 것이니”라는 본 편지 중의 내용.
 - (ii) 동아일보의 '金祉燮 言渡는 래월 룩일로 연극'이라는 1924년 10월 29일자 기사.
 - (iii)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의 '金祉燮은 무기징역'이라는 1924년 11월 7일자 기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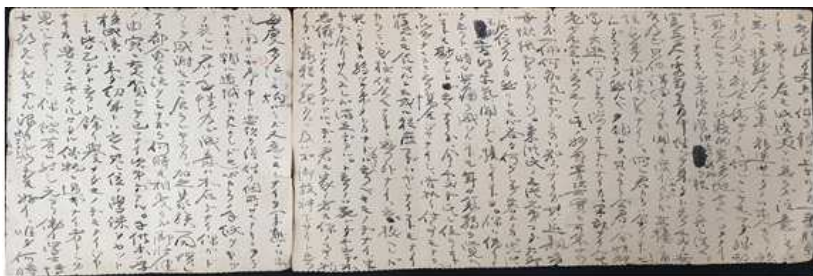
〈그림1〉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 전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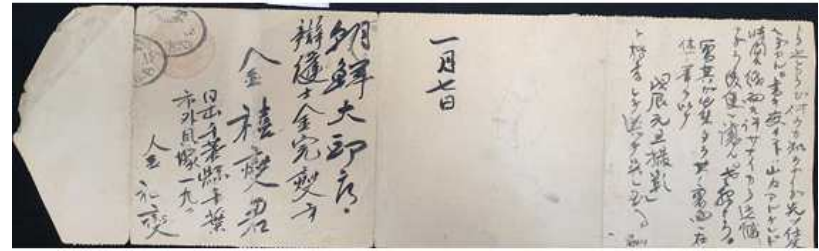
〈그림2〉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의 후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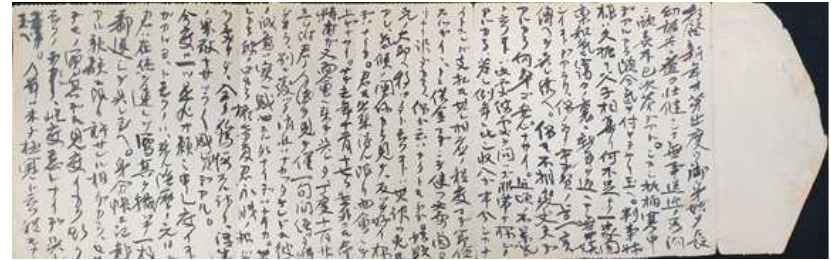
〈그림3〉 1927년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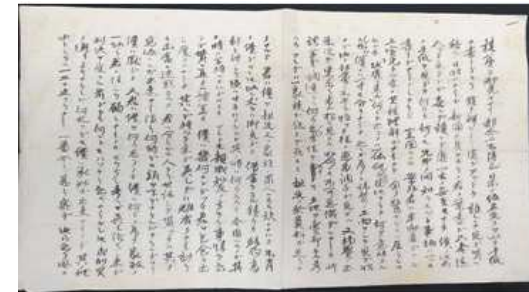
〈그림4〉 1927년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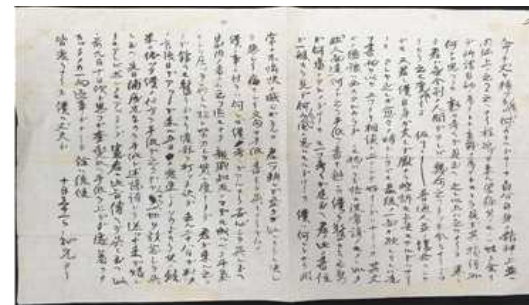
〈그림5〉 1928년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앞면



〈그림6〉 1928년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뒷면



〈그림7〉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1면



〈그림8〉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2면

3) 문헌자료

- 교남문화 역. 「추강 김지섭」. 안동: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2014.
- 김주현. “신채호 집필 추정 작품에 대한 저자 논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2016. 2), 35 - 70.
- 김주현. 『신채호문학연구초』. 서울: 소명출판, 2012.
- 김창록. “후세 타쓰지(布施辰治)의 법사상 : ‘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1(2015. 4), 45 - 91.
- 두산백과. “김지섭.” <<http://www.doopedia.co.kr>>.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지섭은 독립운동가로서 일본 궁성(宮城)의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 3개를 투척,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8년에 옥사하였음. 김지섭은 독립운동가로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 이는 김지섭의 옥중 편지 4건(1)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 2) 김지섭이 1927년에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3) 김지섭이 1928년에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4) 1924년 추정의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임.
- 이상의 김지섭 옥중 편지는 1924년 투옥이후 1928년에 이르기까지의 편지임. 운야 모와 동생 김지섭에게 옥중에 있으면 재판, 감옥 생활, 심정, 안부 등을 쓴 편지임. 즉 후대가 귀하게 보존해 온 독립운동가 김지섭의 옥중 편지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상의 4건의 김지섭 옥중 편지 중
 - 1) 1925년에 김지섭이 운야(雲也) 모(母)에게 보낸 편지- 후대에 의하여 절첩한 부분에 붙었던 테이프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세군데 있음. 이후 해당 부분의 탈락 및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
 - 2) 1927년에 김지섭이 김희섭에게 보낸 편지 - 1장 3면(앞 뒤 총 6면)의 절첩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1면이 분리되어 있어 분실 등의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

<붙임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태이 공업연구원 필적 감정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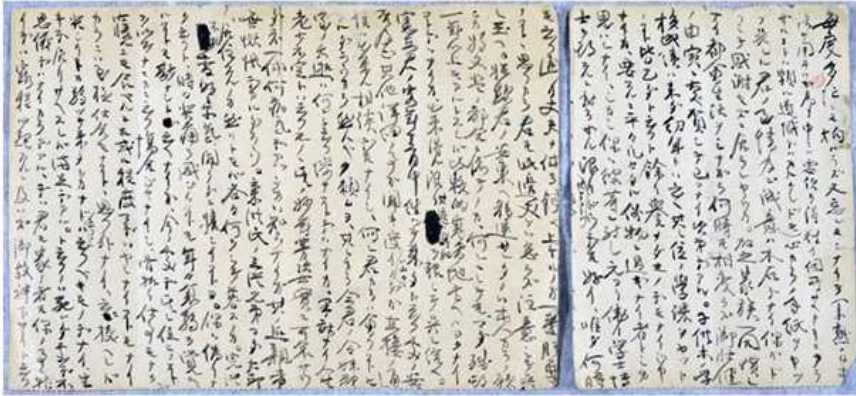
[붙임사진 1]



순번 1: 1924년 편지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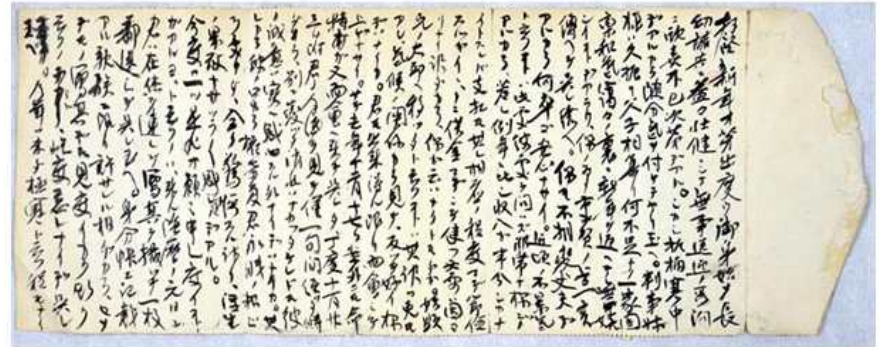
1924년 편지는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됨

[붙임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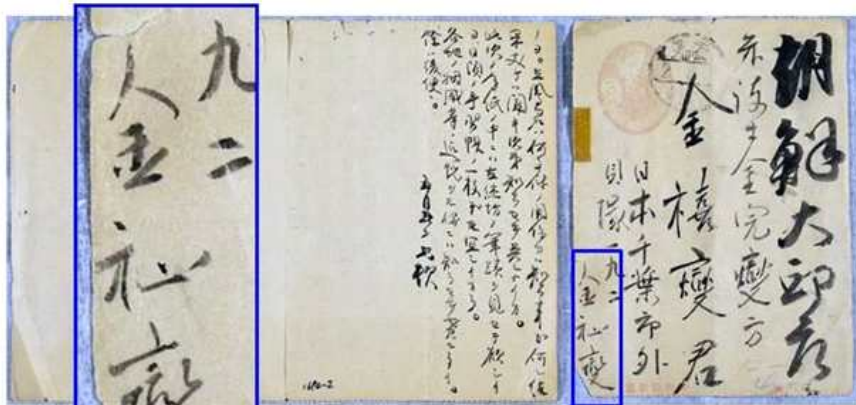


1927년 엽서 안쪽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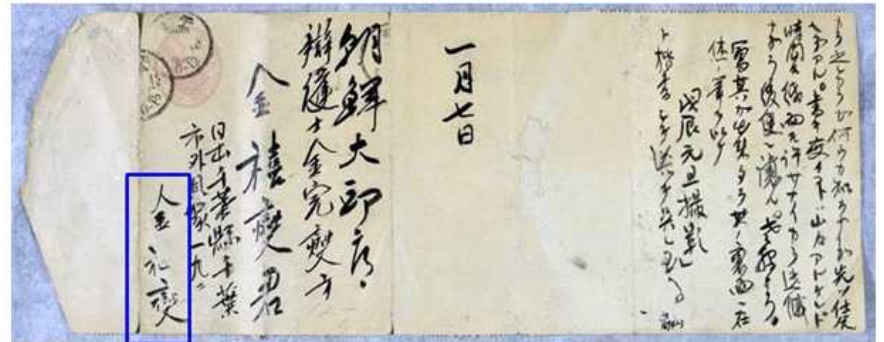
[붙임사진 3]



1928년 엽서 안쪽면 사진



1927년 엽서 겉면 사진



1928년 엽서 겉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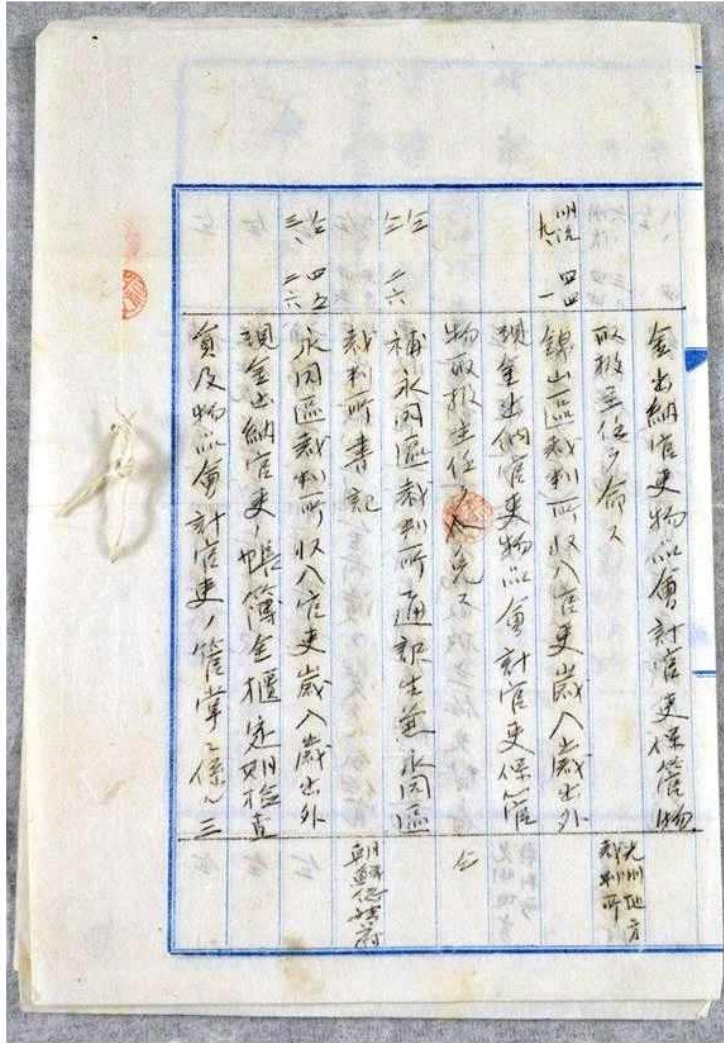
순번 2: 1927년 엽서 1점

순번 3: 1928년 엽서 1점

1927년 엽서는 겉면 및 안쪽면에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며, 엽서 겉면에 “金社變” 성명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청색표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社”의 일부 자획이 미상의 원인으로 지워진 흔적이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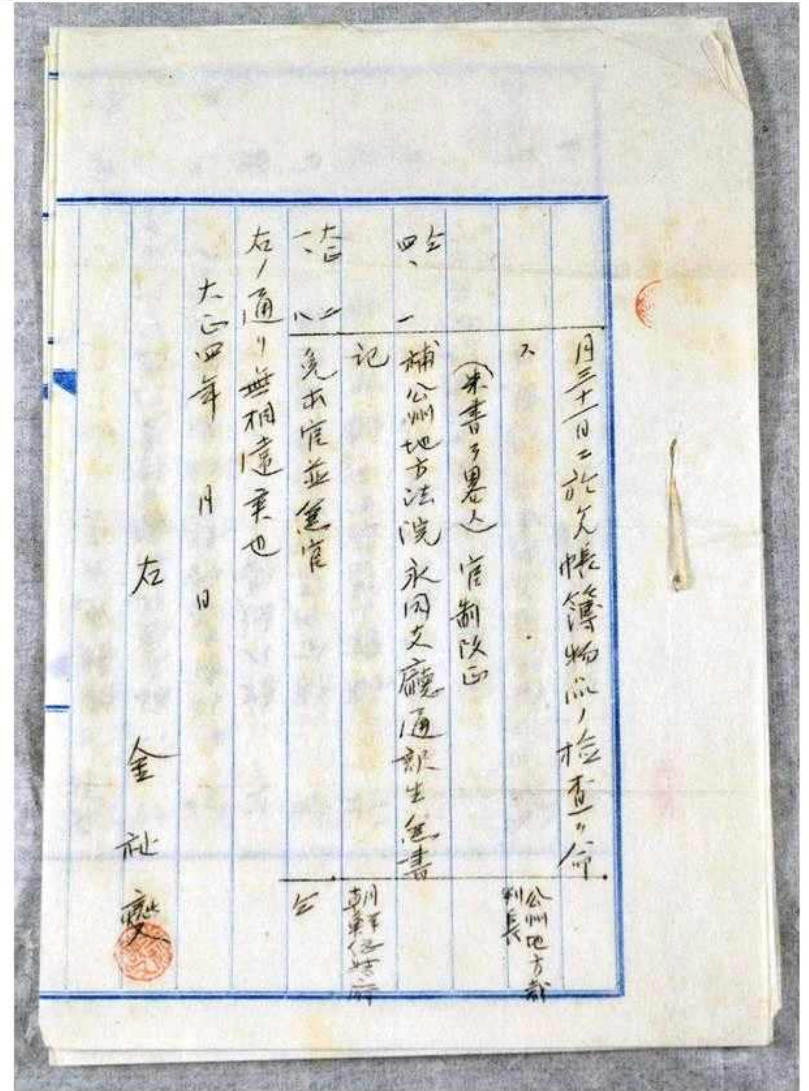
1928년 엽서는 겉면 및 안쪽면에 한자와 가타가나가 함께 사용된 일본어가 세로쓰기 방법으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며, 엽서 겉면에 “金社變” 성명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청색표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社”의 일부 자획이 미상의 원인으로 지워진 흔적이 관찰됨

[붙임사진 8]



순번 5 : 이력서 4쪽 사진
한자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됨

[붙임사진 9]



순번 5 : 이력서 5쪽 사진
한자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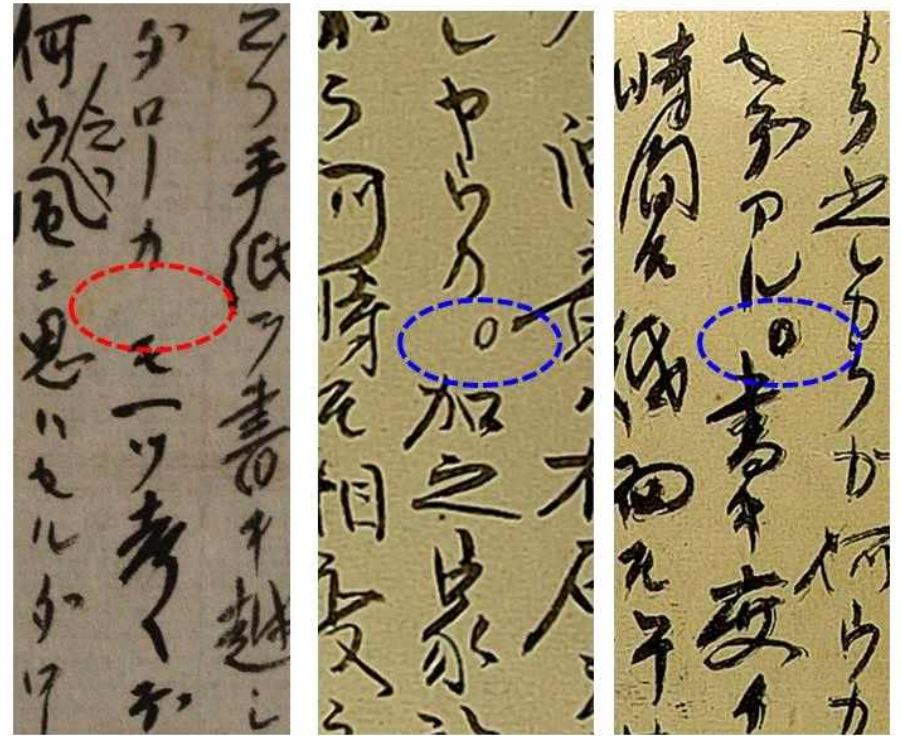
[붙임사진 10]



이력서 일부 문자 일반광 확대 사진

이력서에 기재된 필적에서는 자질에 필기구잉크 번짐이 관찰되지 않고, 필기구잉크의 농담이 관찰되지 않은 등 필기구잉크로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닌 먹지류에 철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 부분 필적으로 추정됨

[붙임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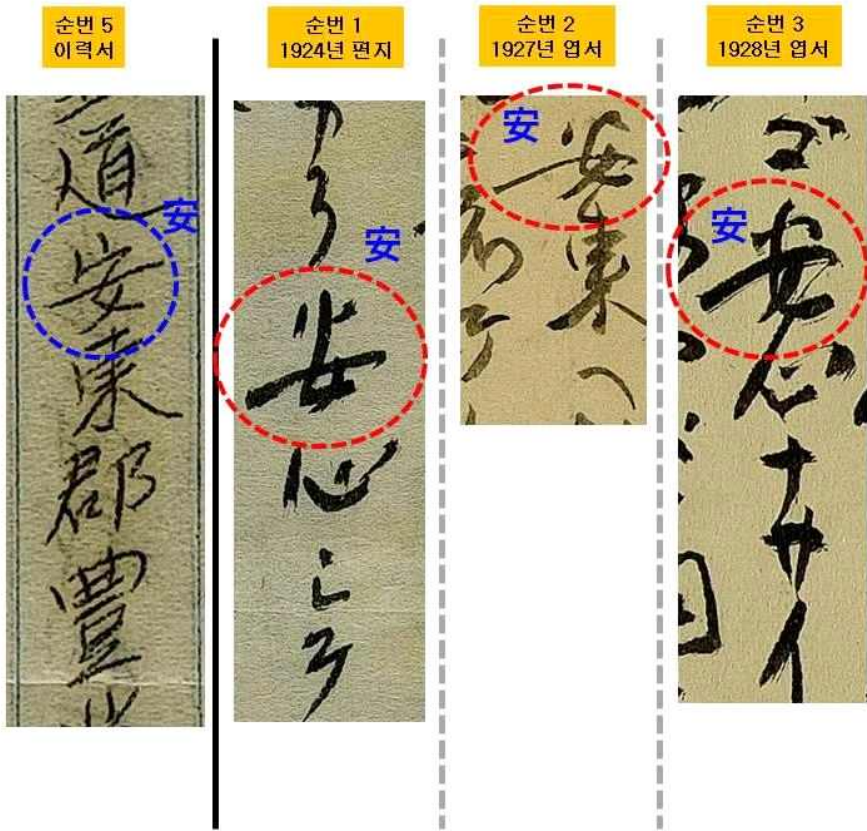
순번1 : 1924년 편지

순번2 : 1927년 엽서

순번3 : 1928년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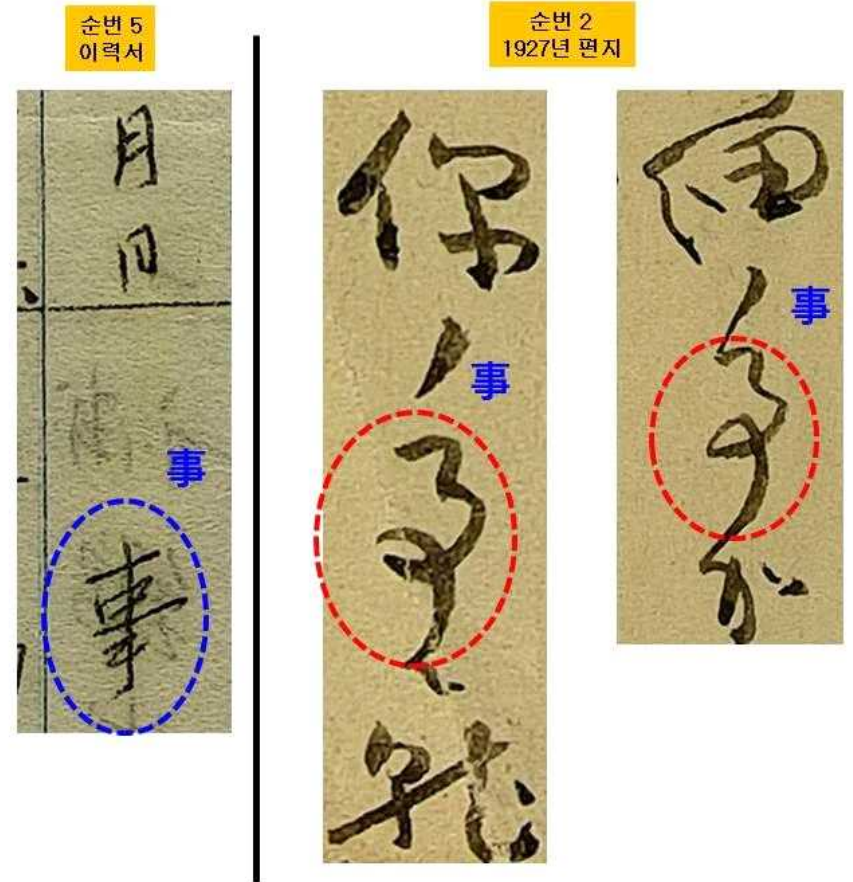
1924년 편지에서는 문장의 끝을 공백(띄어쓰기, 적색표시 참조)으로 표시하였으나, 1927년 및 1928년 엽서에서는 문장 끝에 세로쓰기에 사용되는 마침표인 고리점(청색표시 참조)을 사용한 특징이 관찰됨

[붙임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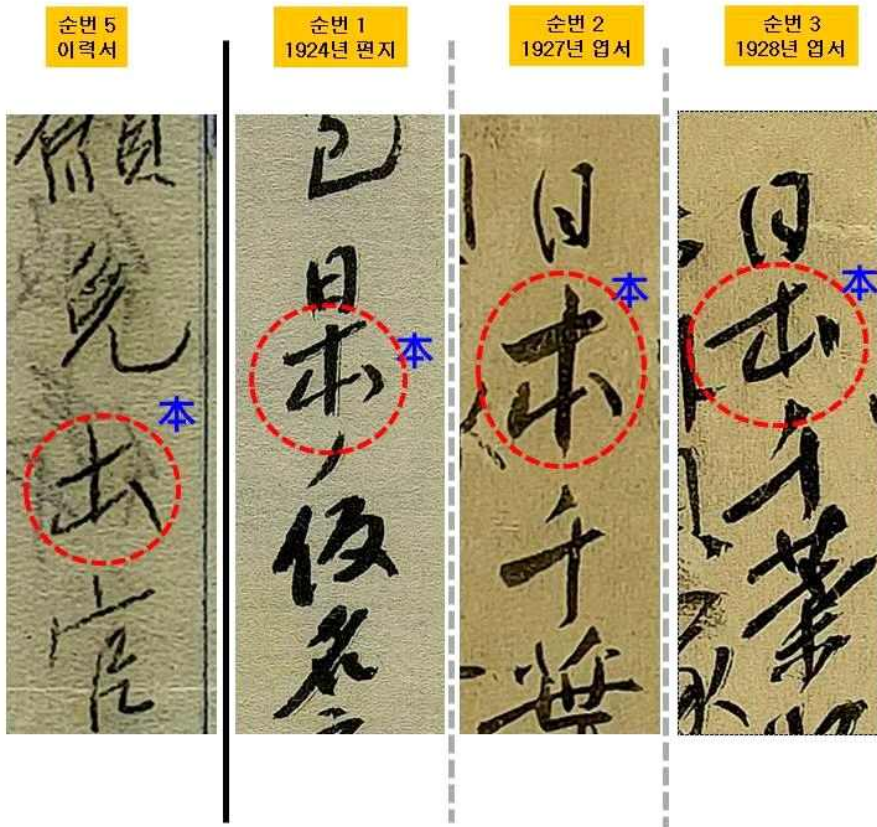
청색표시 및 적색표시와 같이 동일 문자에서 필법의 차이점이 관찰됨

[붙임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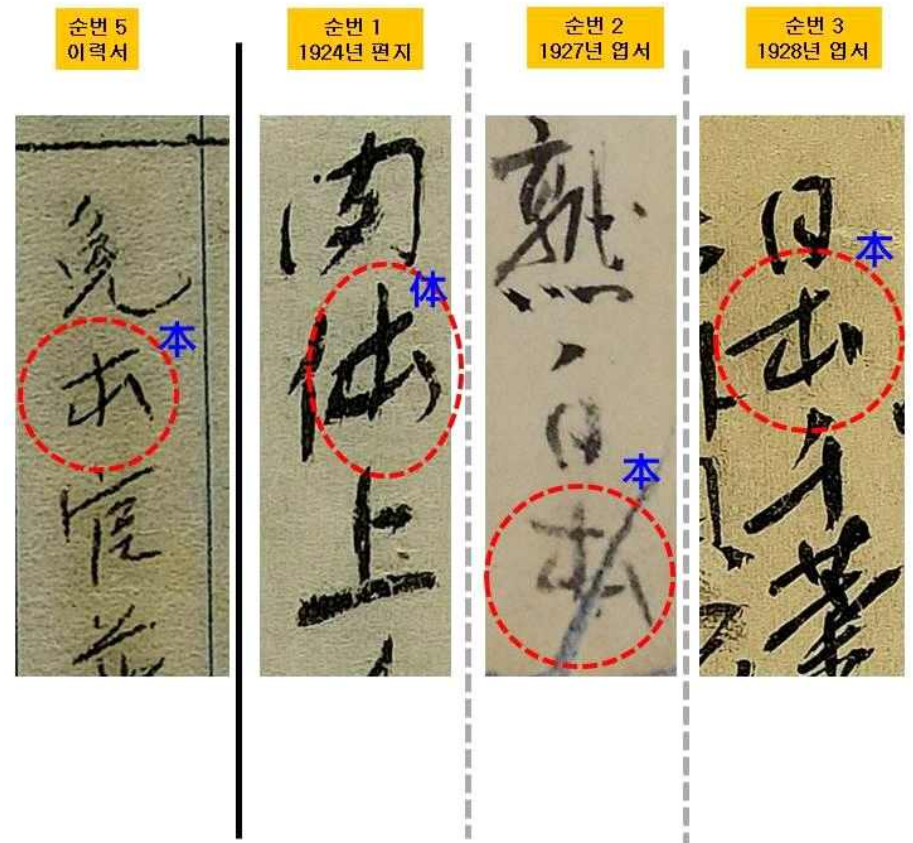
청색표시 및 적색표시와 같이 동일 문자에서 필법의 차이점이 관찰됨

[붙임사진 14]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15]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16]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17]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18]

순번 5
이력서



순번 1
1924년 편지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19]

순번 5
이력서



순번 1
1924년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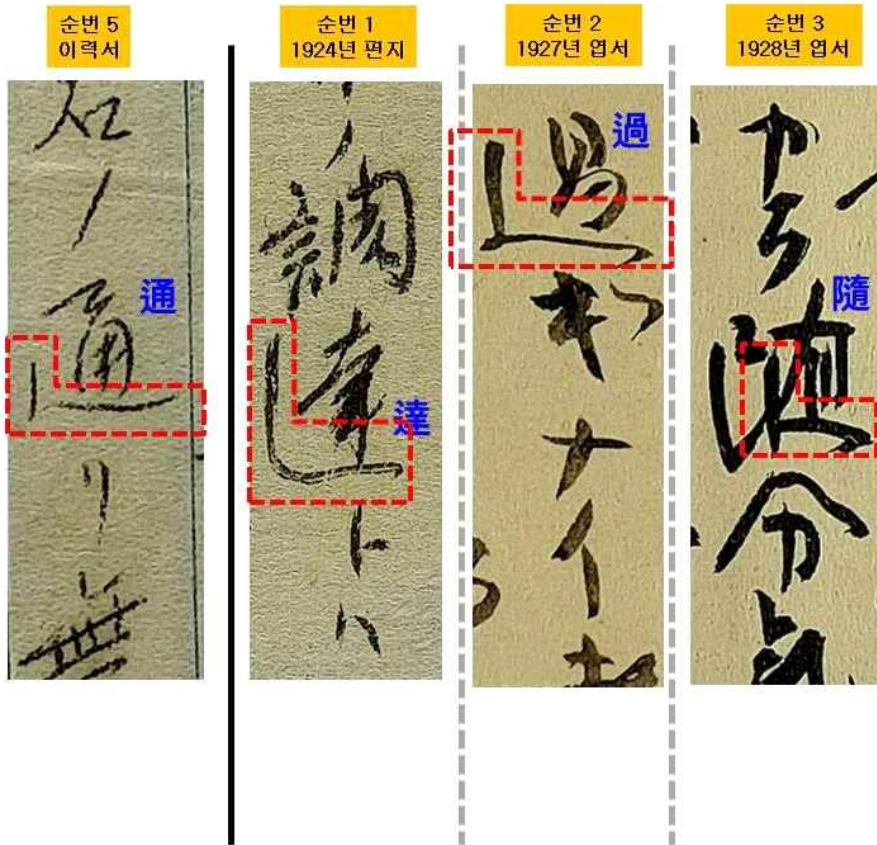


순번 3
1928년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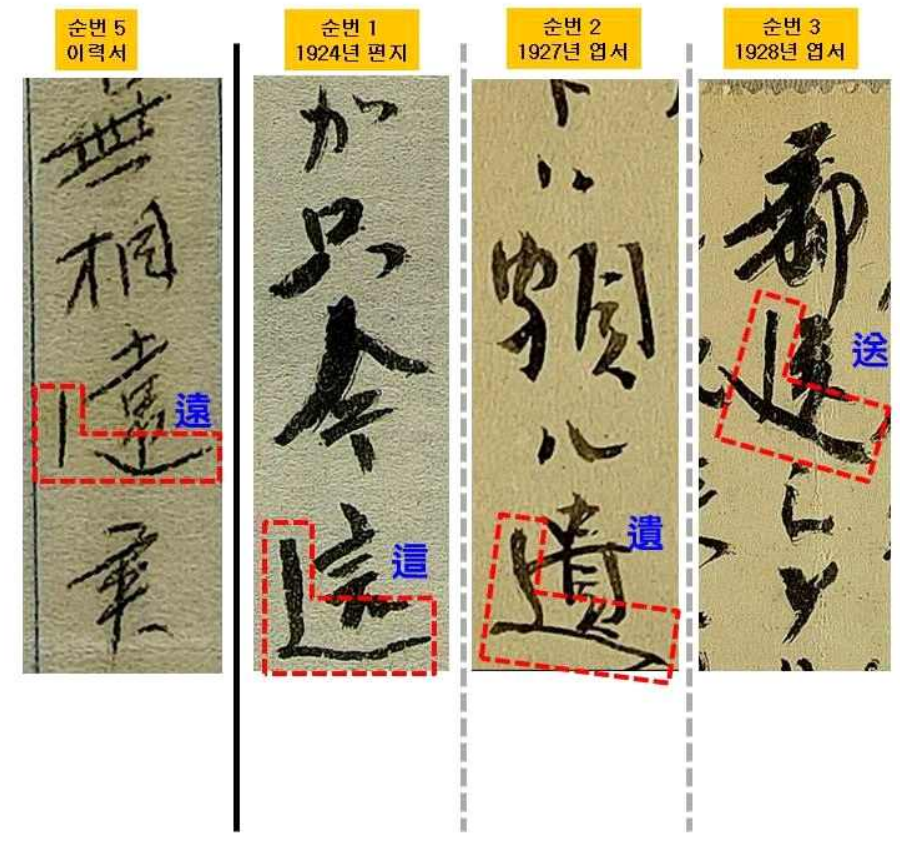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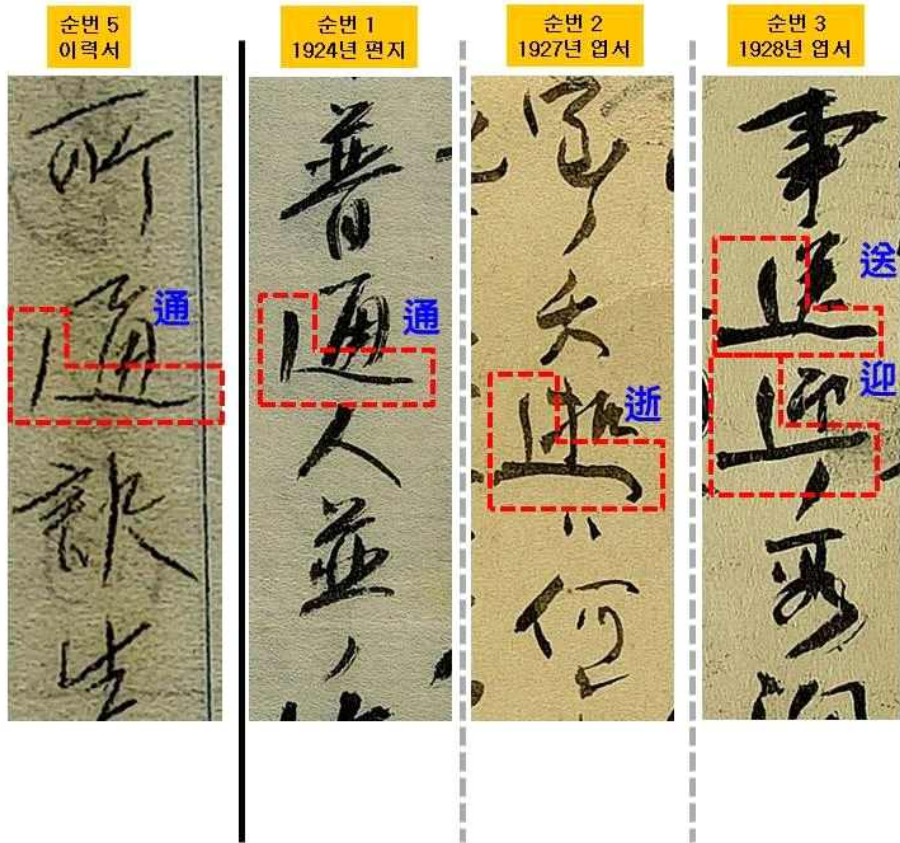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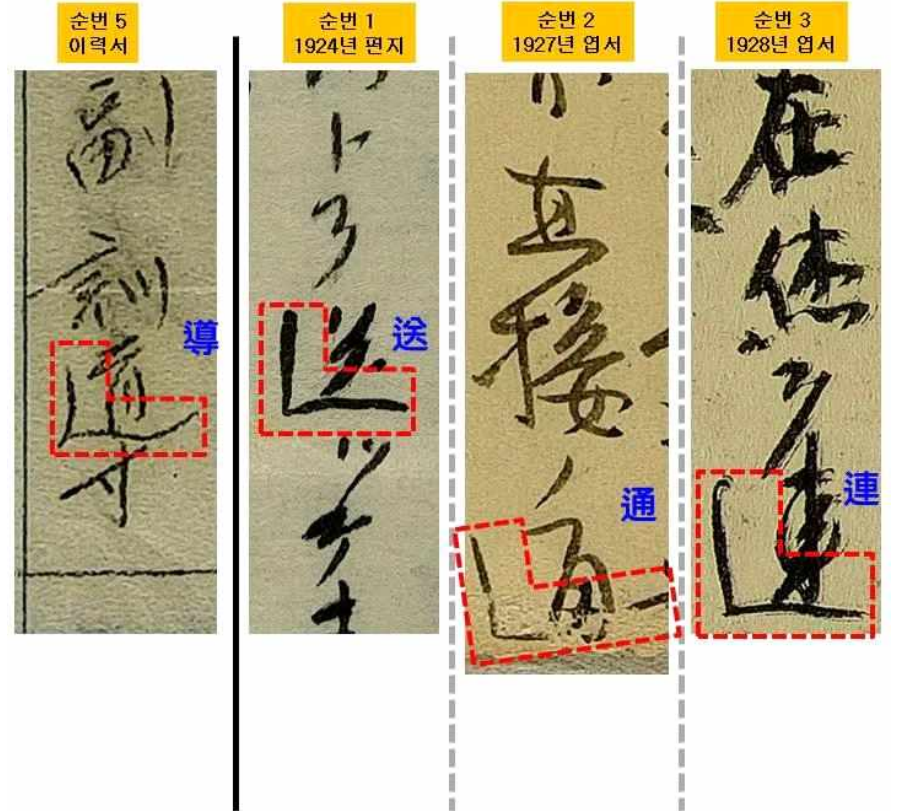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2]



[붙임사진 23]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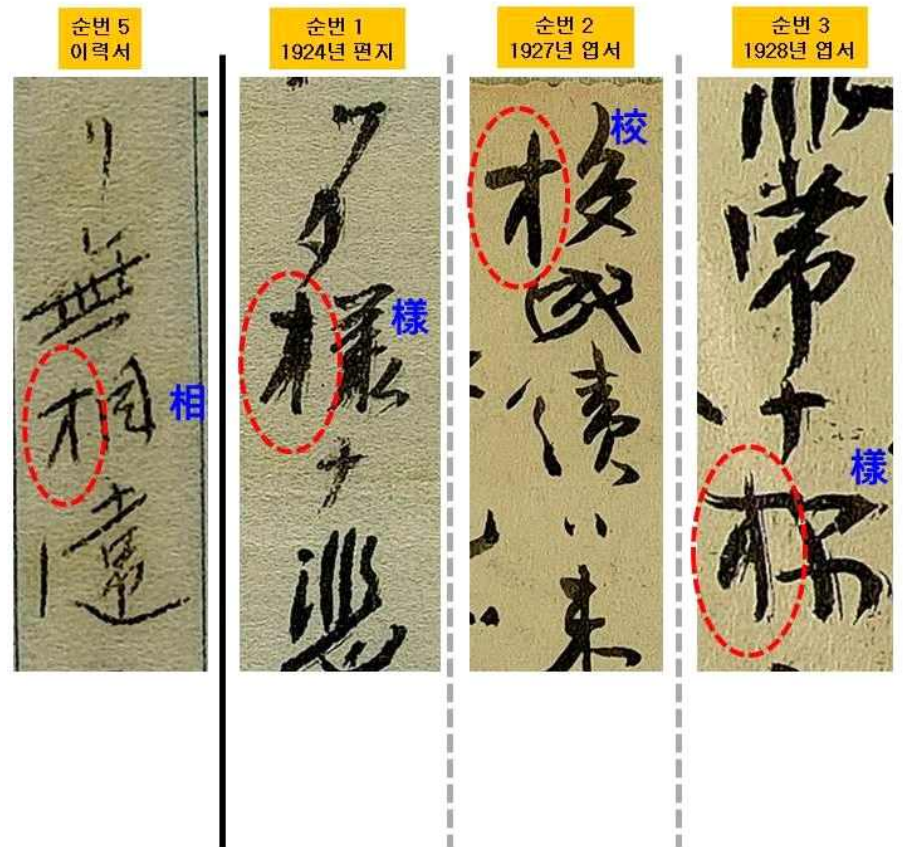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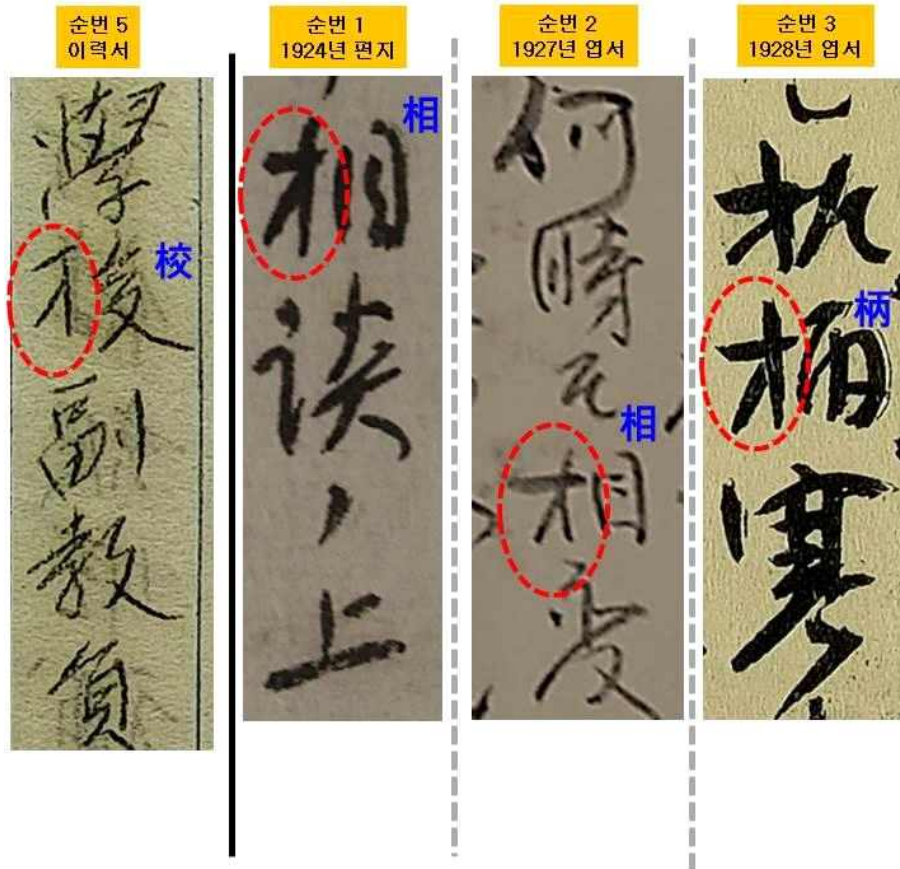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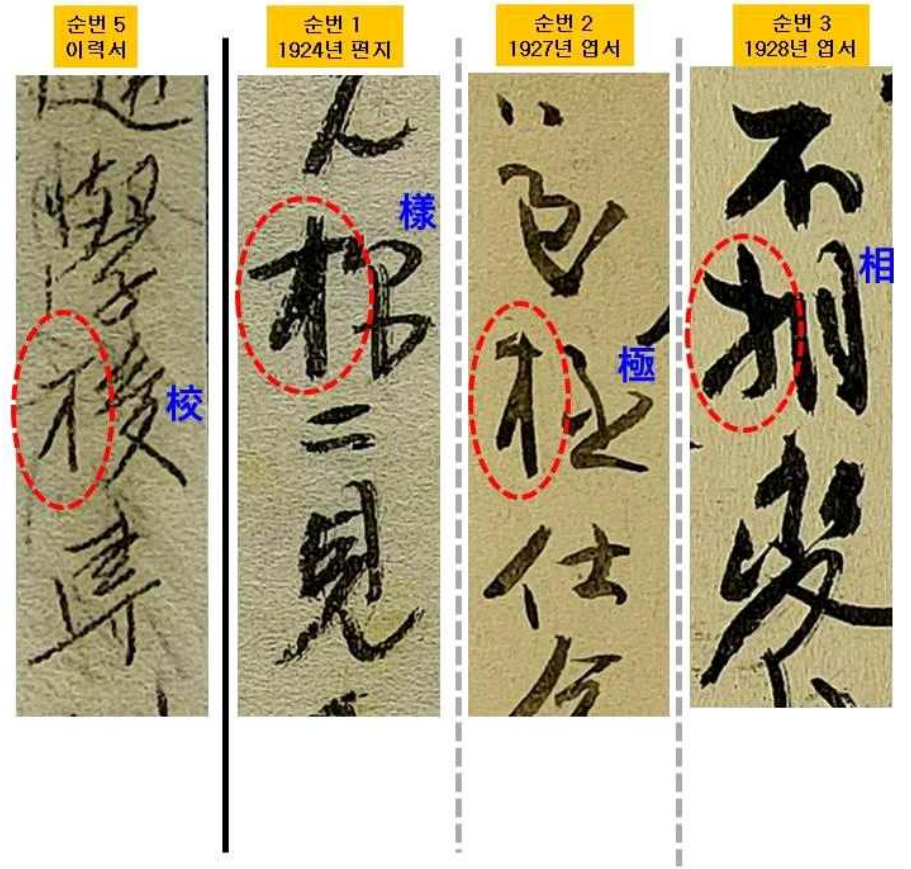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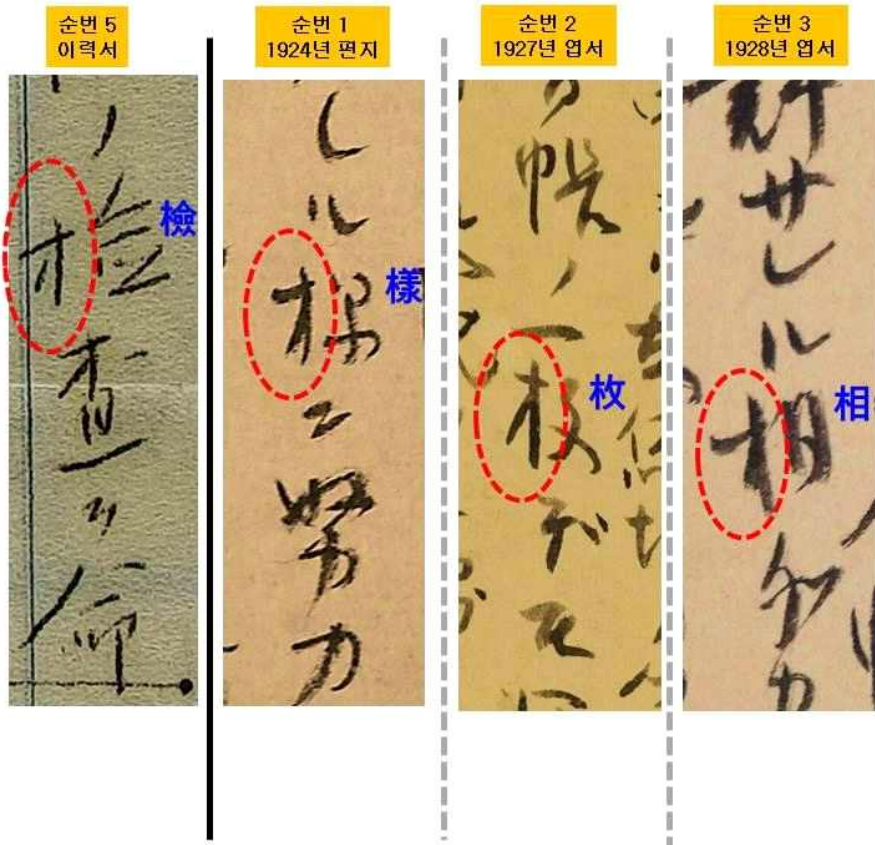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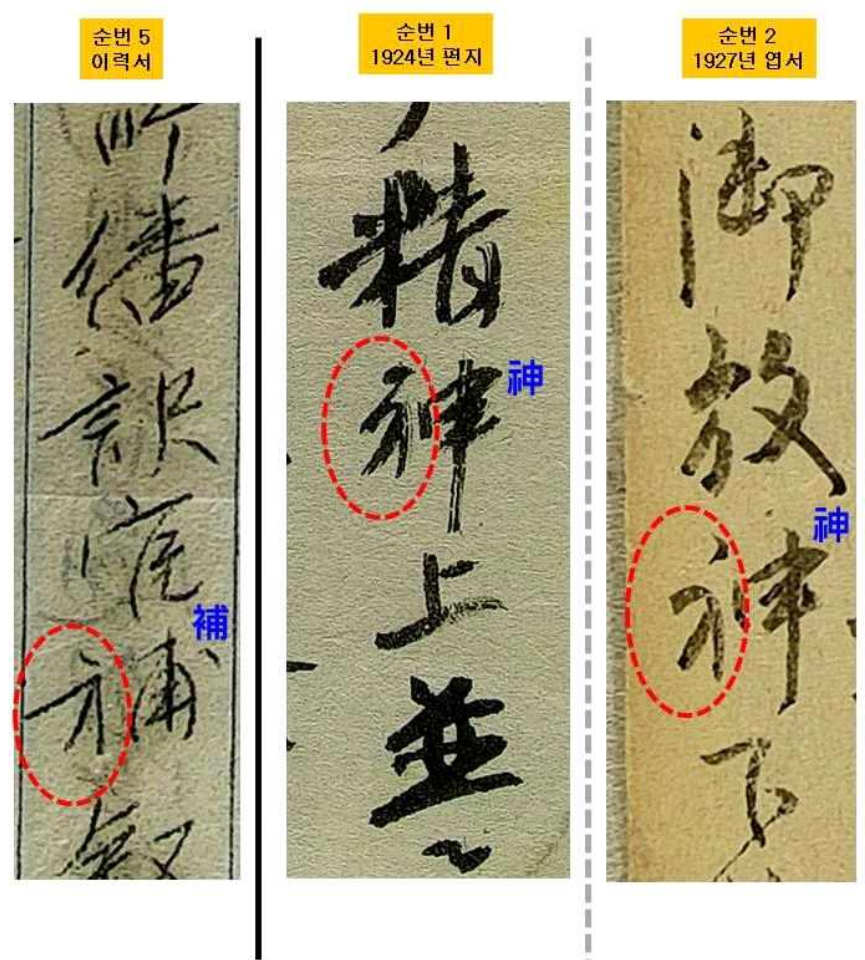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8]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29]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0]

순번 5
이력서



순번 1
1924년 편지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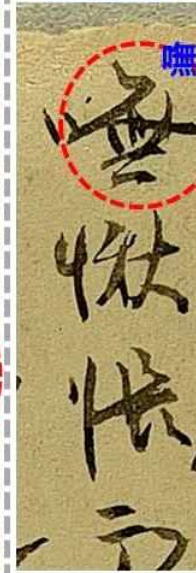
순번 5
이력서



순번 1
1924년 편지



순번 2
1927년 엽서



순번 3
1928년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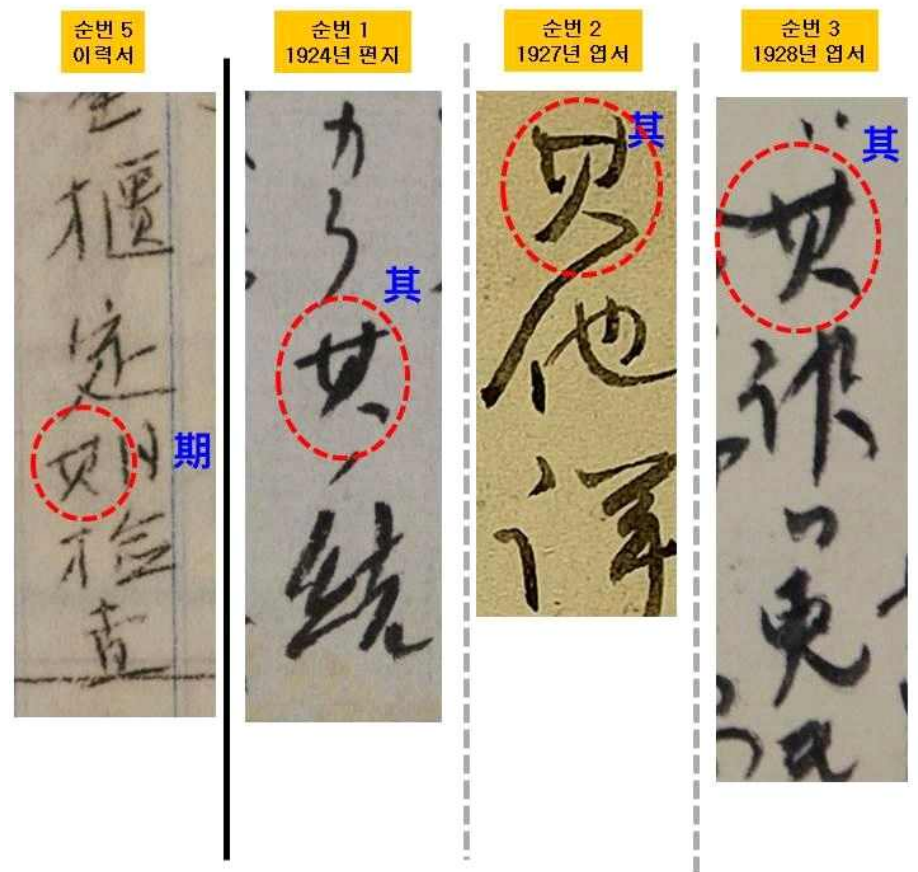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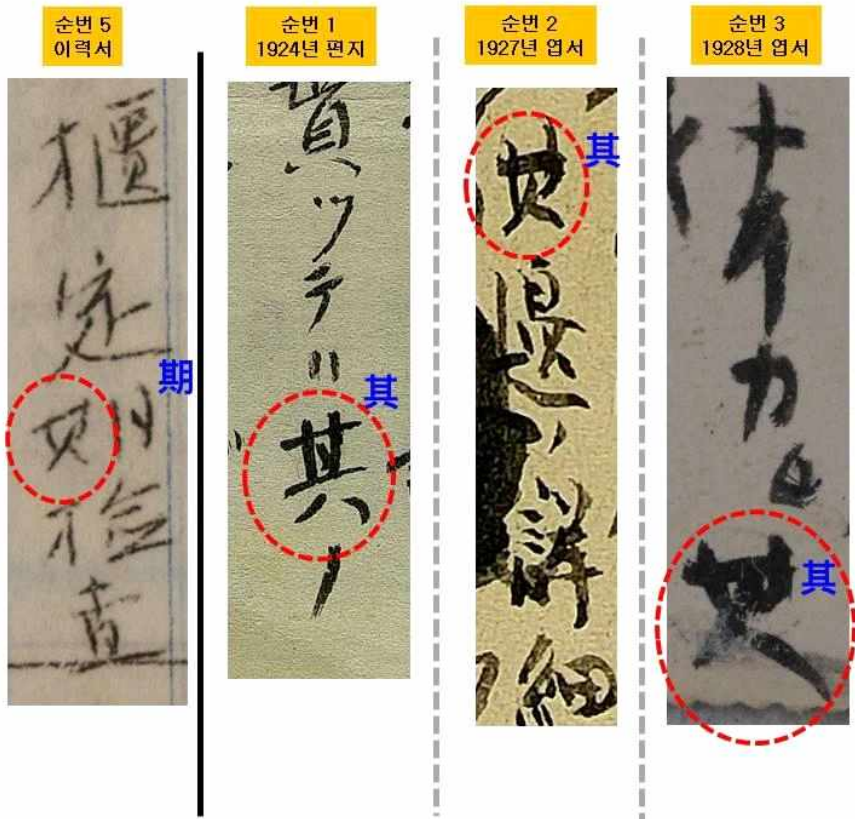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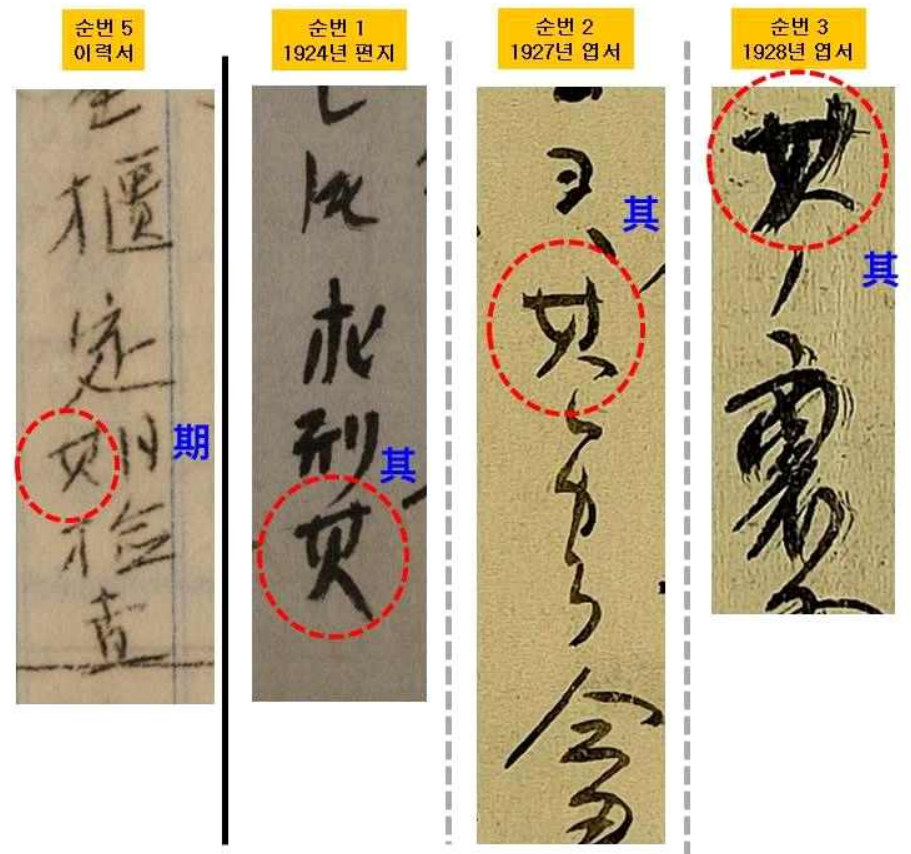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4]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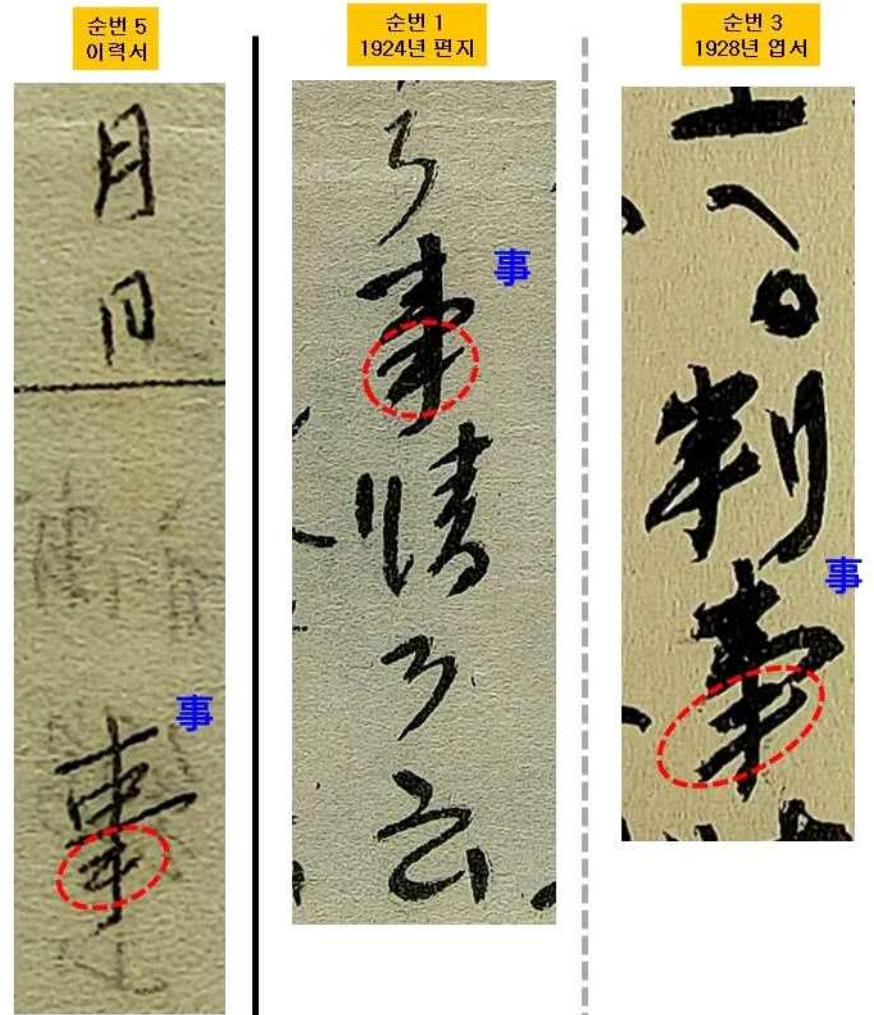
적색표시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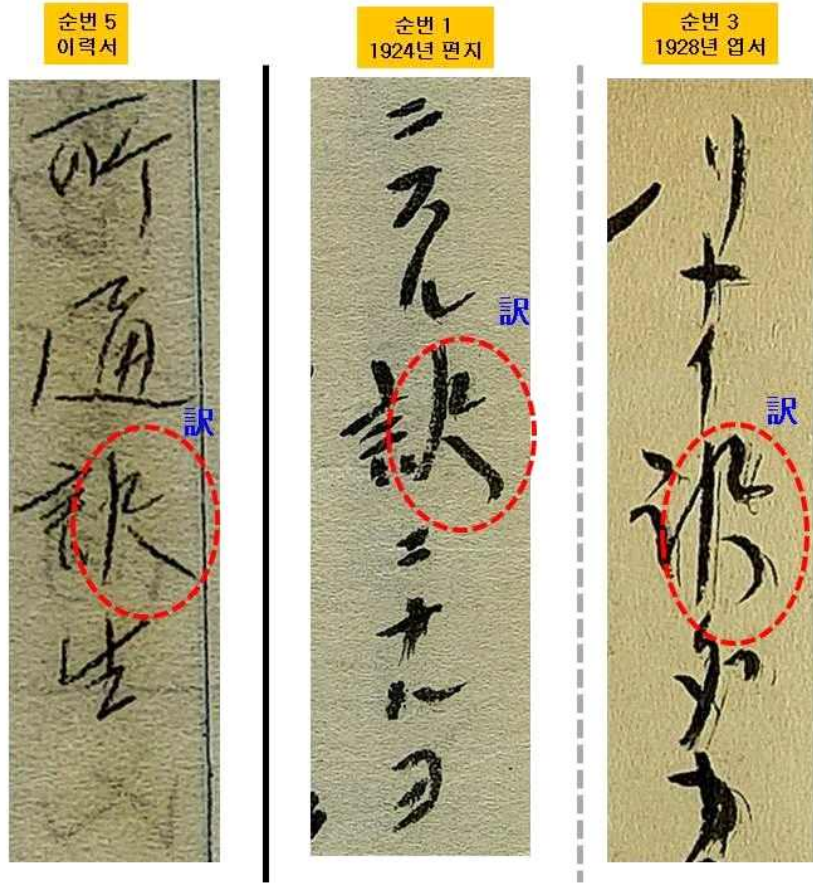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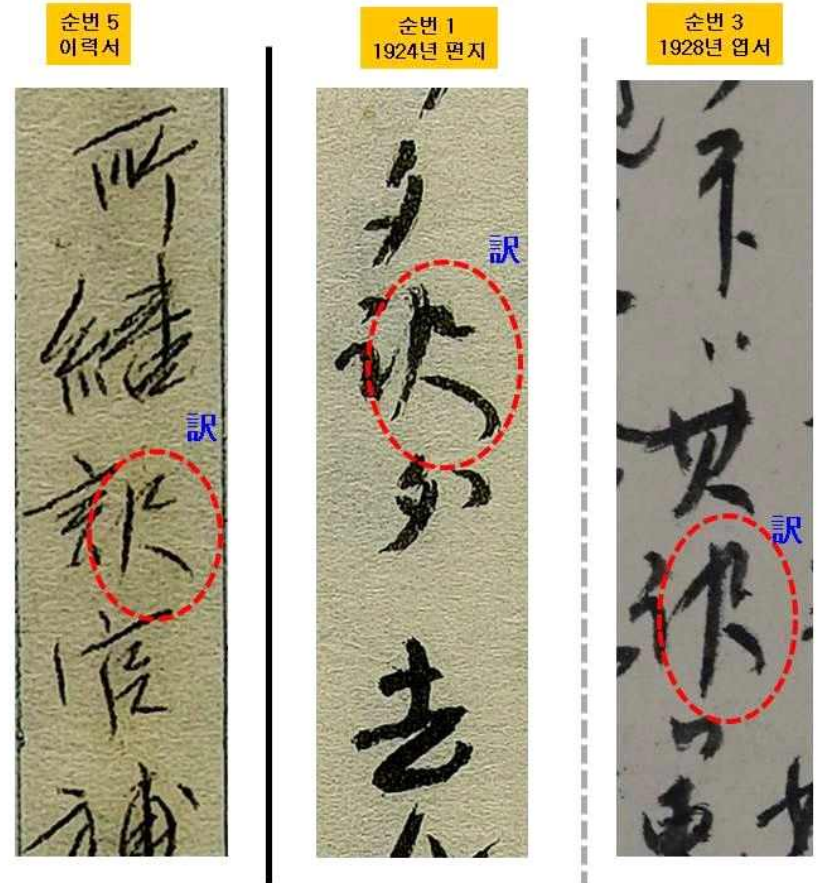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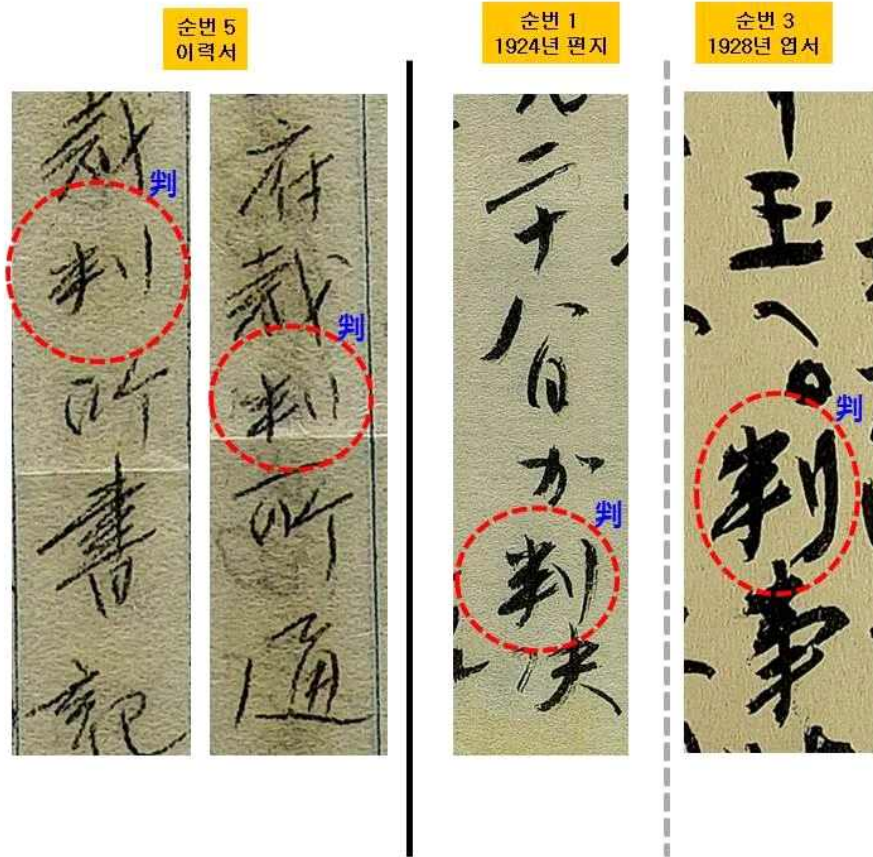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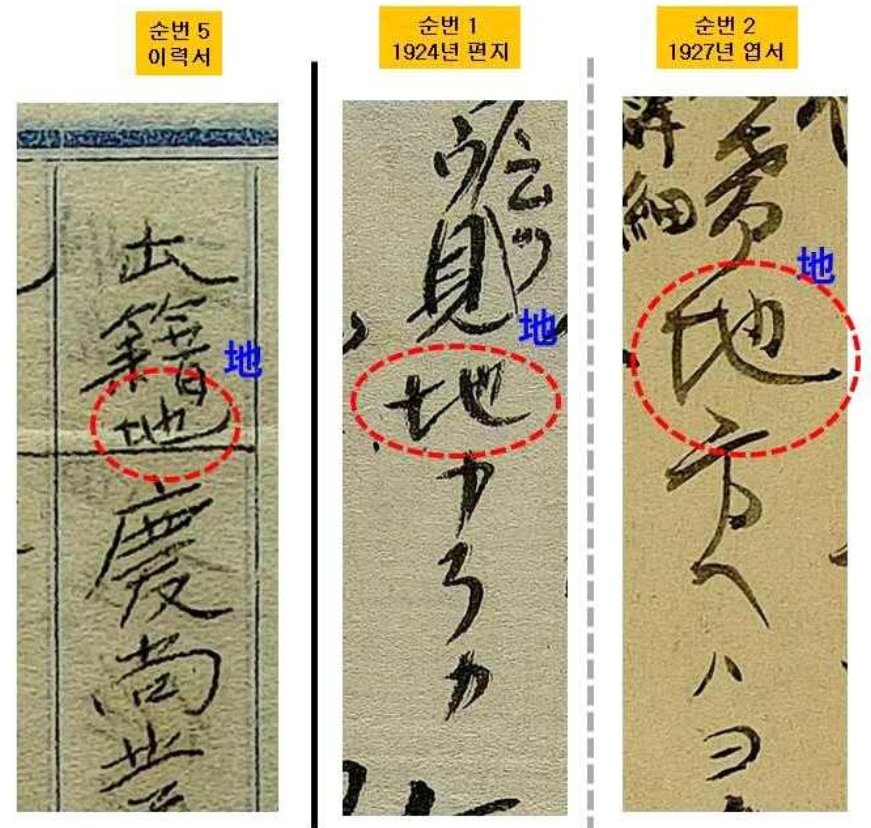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0]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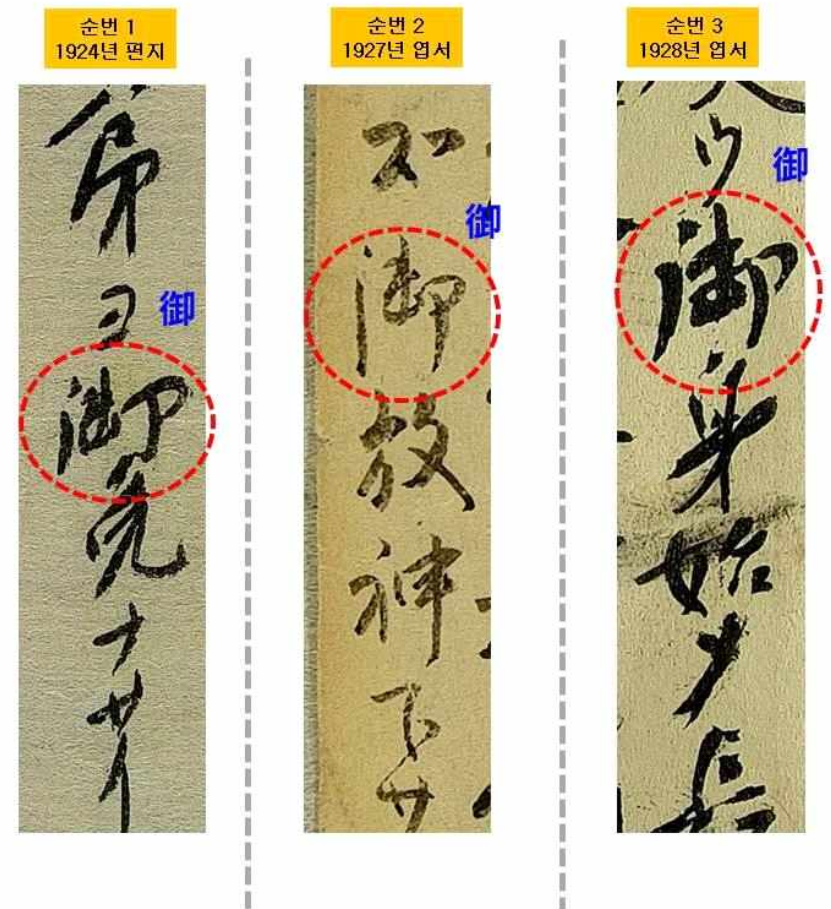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2]



적색표시는 대조 필적(순번 5)과 감정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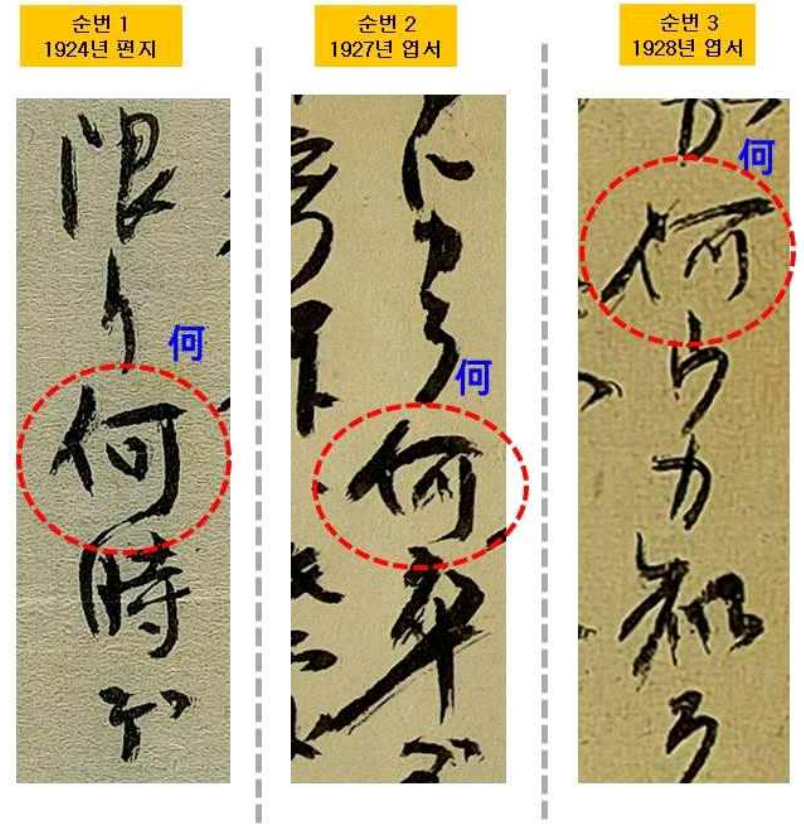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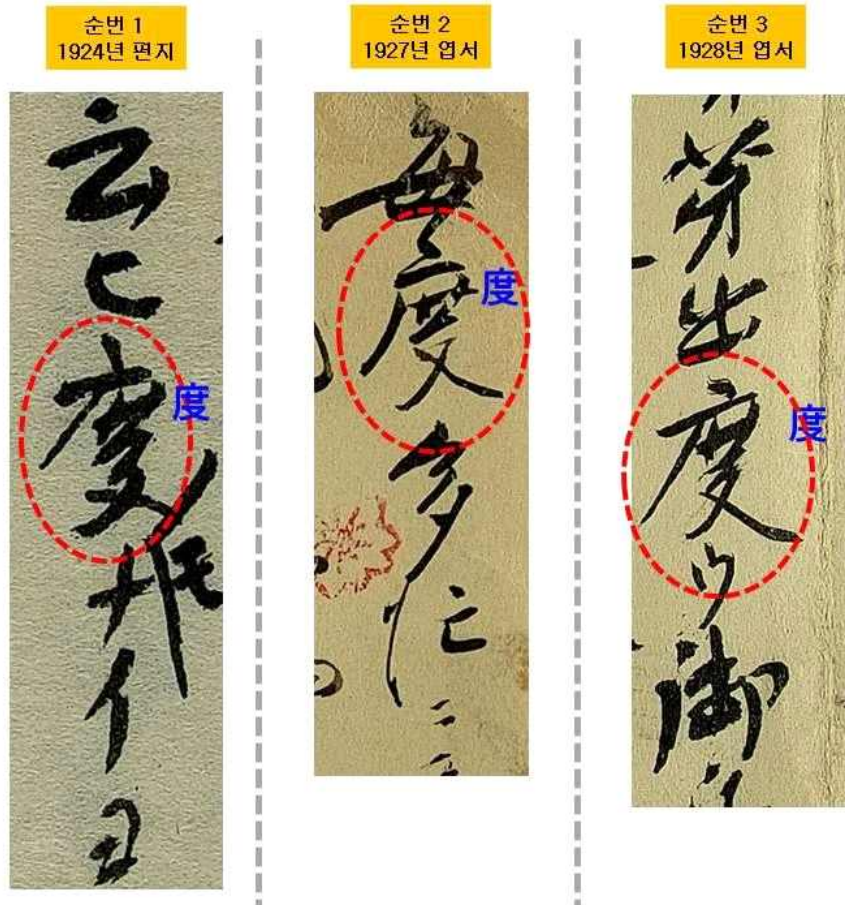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5]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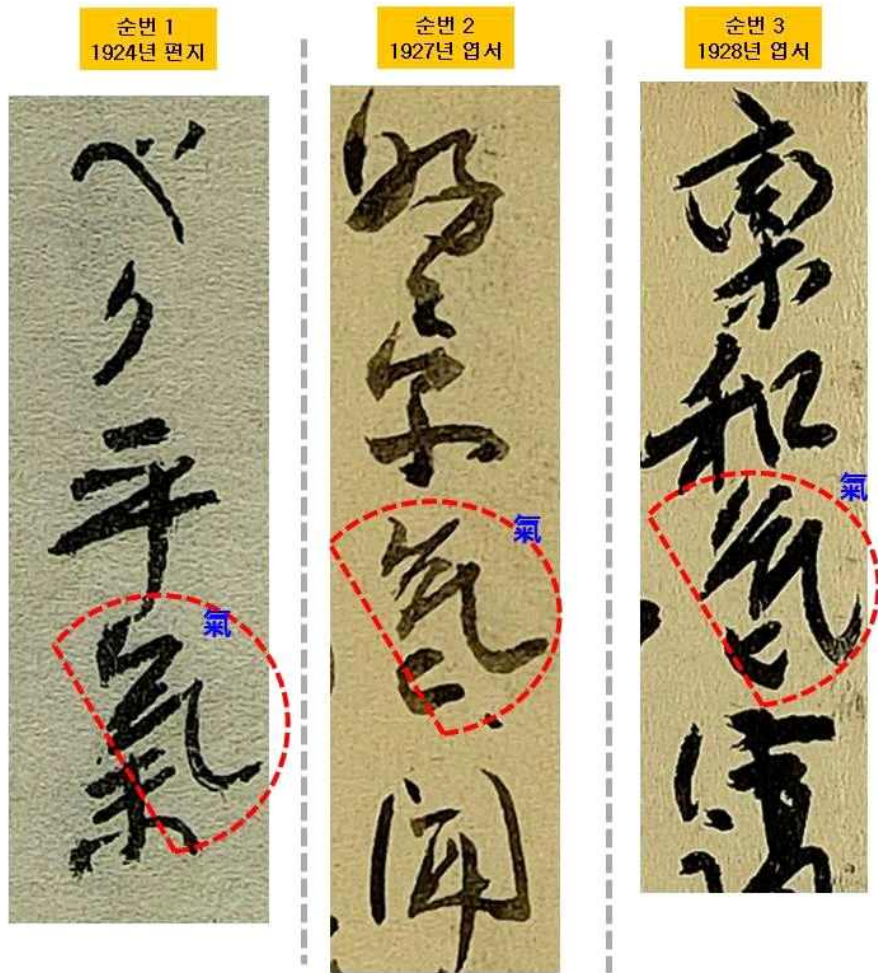
[붙임사진 47]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8]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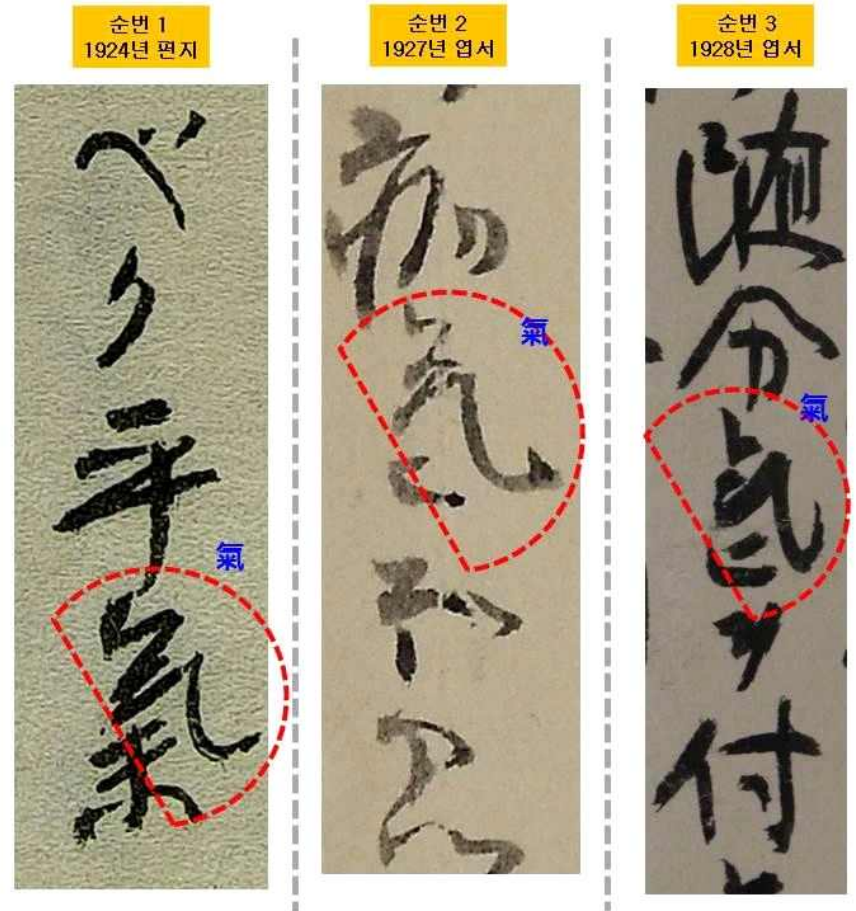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50]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로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51]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로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52]

순번 1
1924년 편지



순번 2
1927년 엽서



순번 3
1928년 엽서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붙임사진 53]

순번 1
1924년 편지



순번 2
1927년 엽서



순번 3
1928년 엽서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순번 1
1924년 편지



순번 2
1927년 엽서



순번 3
1928년 엽서



적색표시는 각 감정자료 필적의 특징 유사점 부분임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문화재야행을 위한 가설 무대 설치 등에 대한 현상변경을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장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 허가 (2021 서대문 문화재야행)> (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청장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원 ○ 내 용 : 2021 서대문 문화재야행 ○ 상세내용 - 행사용 가설무대 및 음향 영상 구조물 등 설치, 외벽 포스터 현수막 설치 (3) 허가기간 ○ '21.9.8.~'21.9.13.	허가	'21.8.1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